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6호 8월31일

평양 로동신문사발행 1949

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잡지

제16호 (38)

1949년8월31일

내 용

八·一五해방四주년기념보고

박 헌 영

(우렁찬 박수 속에 등단)

친애하는 동포여러분!

오늘 우리는 八·一五해방 四주년 기념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二차세계대전이 쏘련을 비롯한 민주주의, 동맹국들의 승리로써 종막된지 벌써 四년을 경과하였습니다.

민주주의동맹군 특히 위대한 쏘련군은 서방에서 히틀러독일을 격파하고 구라파의 제민족을 팟쑈의 유린으로부터 구출한후 세계평화를 하루속히 확립하기 위하여 전상을 회복하고 전진을 씻을 사이도 없이 그 정의의 총뿌리를 동방으로 돌리어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아세아의 제민족과 우리 조선민족을 일제의 기반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근 반세기에 걸친 장구한 기간 간악한 일본제국주의 식민지통치 하에서 신음하던 우리민족은 이에 비로소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선인민은 오늘 이 력사적 기념일인 八월十五일 해방 四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민족의 해방자인 위대한 쏘련군대와 쏘련인민과 그의 천재적 령도자인 쓰딸린 대원수에게 열렬한 감사와 전민족적 영예를 드리는 바입니다.

인류력사상에 있어서 가장 류혈적이었던 제二차세계대전이 쏘련을 선두로하는 민주동맹국들의 승리로써 종결된 결과 전세계 인류와 제 약소민족들에게는 해방과 평화의 기쁨이 찾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거름은 결코,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해방과 평화의 행복은 쏘련의 결정적 역할로 말미암아 얻어진것입니다。 오늘날 전세계의 인민들과 해방된 모든·민족들이 쏘련인민과 그의 위대한 령도자 쓰딸린 대원수에게 자기들의 구원의 은인으로서 해방의 구성으로서 최대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제二차대전의, 막대한 희생과 가혹한 시련의 댓가로 얻어진 이 귀중한 승리를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은 전세계 자유애호인민들과 해방된 민족들의 최대의 임무입니다。

여기에서 쏘련을 선두로 하는 평화와 자유와 독립과 민주를 사랑하는 전세계의 인민들은 이 고귀한 평화와 자유를 고수하기 위하여 二차대전의 고귀한 교훈을 망각하고 이미 멸망한 히틀러를 본받아 세계의 제패를 참망하는 미제국주의 독점가들을 선두로 하는 새전쟁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어선 것입니다。

一、조선의 국제정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二차세계대전후 세계의 정치 세력 배치에는 근본적 변동이 발생하여 민주주의적 반제국주의적 진영의 력량은 강화되었으나 반민주주의적 진영의 력량은 약화되었습니다。

이 전후 정치세력배치의 변화는 시일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쏘련을 선두로 하는 국제 민주력량은 날이 갈수록 더욱 장성되어 불패의 세력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미국을 선두로 하는 세계 제국주의진영은 점점 약화되어 붕괴의 전야에 처하고 있는 것이 금일 국제정세의 특징입니다。

제一차세계대전의 결과로 발생된 자본주의적 경제체계의 일반적 위기는 더욱 심각화되고 있으며 자본주의제도의 고유한 내부 모순은 일층 첨예화 되고 있습니다。 쏘련의 거대한 경제적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의·성공은 자본주의경제적 몰락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二차대전후 중구라파 및 동남구라파의 제국이 자본주의 체계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실과 중국민족 해

방전의 성공은 세계자본주의체계를 더욱 파괴하여 그것을 축소시켰으며 아세아 제 약소민족해방운동의 급격한 성장은 자본주의의 식민지적 후방을 극도로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제국에 대한 쏘련의 사심없는 원조와 친선관계의 강화는 독점자본가들의 활동범위를 축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약소민족을 희생으로 하여 그들의 탐욕을 만족시키려는 과거의 수법을 리용할수 없게하고 있습니다。

제二차 세계대전후 유일의 자본주의강국으로 잔존하는 북미합중국은 극도의 경제적 혼란에 빠진 서구라파의 자본주의 제국을 조종하면서 시종일관하게 자기의 상품시장을 확장하며 총검으로써 타민족을 위협하고 이들을 예속화시키려고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을 선두로 한 제국주의진영은 오늘날에 와서는 새전쟁을 방화함으로써 약화된 자기의 지위를 회복하고 자본주의제도를 유지하여 그들의 세계제패를 세우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레닌선생은 벌써 제一차대전 전에 그 유명한 저서 「제국주의론」에서 다음과 같이 쓰셨습니다。

「제국주의는 자유에로가 아니라 지배에의 지향을 가져오는 금융자본 및 독점의 시기이다。」(레닌선집 제二十三권 二八三페지)

「트루맨주의」니 「마―샬안」이니 혹은 「북대서양조약」이니 「군사원조안」이니 하는 것은 세계 제패를 잠망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팽창정책의 표현이며 새전쟁방화정책의 발로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불평등적 노예조약체제의 설립, 군대의 점령, 군사고문단, 무기원조에 의한 무장적 간섭의 강화, 분활 통치, 타민족과 국가에 대한 정부교체 및 정부구성의·변경, 타국가에 수백군사기지의 설정, 차관강제, 월가독점자본가와 대리인 파견, 유·엔기구의 리용, 소위 유·엔위원단의 조직 파견등 가지가지의 방법과 형태를 쓰고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새경제공황이 박두하고 있습니다。 경제문제에 관한 미국무장관보 토르프가 「국제적 경제관계에 있어서의 전후의 달콤한 사기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고 있다」고 언명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경제공황은 이미 개시되었다는 것을 며제국주의자 자신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아니고무엇입니까。작년말부터 시작된 생산저하는 오늘날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즉 一九三五년—一九三九년의 평균생산량을 一〇〇으로 한다면 一九四八년十월에는 一九九였던것이 금년四월에는 七十九로 저하되고 있습니다。이것은 불과 반년동안에 二〇% 즉 一九三五년—一九三九년 평균생산량의 五분지 一이 감소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이와 같은 생산저하의 경향은 「유나이티드·쓰테이츠·뉴스 앤드 월드 레포트지」가 보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앞으로 더욱 저하될 것」입니다。

또 미국의 파산기업체의 수도 년년이 증가되고 있습니다。즉 一九四七년에 三·四七六개가 파산하였다면 一九四八년에는 五·二五二개(五〇%증가)가 파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 독점자본가들의 리윤은 계속 장성되고 있습니다。즉 법인 리윤을 보면 一九三九년에는 六十四억딸라이었으며 전쟁중 최고수준인 一九四四년에는 二백四十三억 딸라이었던것이 一九四八년에는 실로 三四〇억딸라 즉 전쟁중 최고리윤보다 四〇%나 더 증가하였습니다。

다른편으로 미국로동자들의 생활형편은 이와는 반대로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一九四五년一월부터 一九四八년八월까지의 사이에 생활비 지수는 三七·三%가 등귀하였음에 반하여 임금은 一三·四%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또 실업자의 수는 공식 발표에만 의하더라도 一九四九년七월 현재 등록된 실업자의 수만 四백九만五천인이라는바 금년六월에는 三백七十七만八천명이던것이 불과 一개월에 三十一만七천명이나 격증된것이라 합니다。(이것은 실수보다 극히 축소된 것입니다。미국로동조합 통계에 의하면 二월에 벌써 五백만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반실업자가 一천一백八十만명 이상이라고 합니다。그러나 이 실업자의 수는 계속되는 공장 폐쇄와 조업단축등으로 점점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대외수출은 해외시장의 축소로 점점 감소되고 있으며(일년간에 二三% 저하) 미국 국내구매력의 감퇴로 국내 시장도 점점 감축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과잉생산을 격화시키고 있으며 상품재고량을 점점 증가시키고 있습니다。미 제국주의자들은 이

[illegible]듯 박두한 경제공황을 미봉하기 위하여 방대한 군사예산을 계상하고, 불안과 소란과 전쟁히스테리를 선동하여 새전쟁을 도발하며 하고 있습니다。평화적 환경에 있는 오늘날에 있어 각종 무력의 확장, 원자무기리용에 대한 계획작성, 침략적 무기인 원자탄의 축적, 공군 및 해군기지망의 건설, 전후 四년이 경과한 오늘날까지 워싱톤의 영미 련합 군사참모부를 보존하고 있는 것, 폰텐블로에 서부군사동맹참모부를 창설하는 것등등은 이러한 정책의 표현인 것입니다。

특히 지난 四월三일에 조인된 「북대서양조약」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 전쟁방화정책의 가장 로골적인 표현입니다。

이 「조약」은 쏘련과 인민민주주의 제국을 반대하는 침략적 군사동맹입니다。이 「조약」은 국련기구의 로대를 파괴하는 것이며 얄타 및 포츠담협정과 전쟁중 및 전후에 개최되었던 동맹국들의 제반 회의결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 「조약」은 조약참가국들의 령토를 미국의 군사기지로 전변시킴으로써 미국의 반쏘침략의 군사기지망을 확장시키는 것이며 미군이 구라파제국에 주둔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조약참가국들을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미국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을 백여년전의 「신성동맹」의 재판이며 一九三六년의 독, 일, 이 「방공협정」의 신판이라고 부르며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 뿐만 아니라 이 조약참가국들의 인민들까지도 절대 반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조약이 국제협조의 근본토대를 파괴하여 평화애호인민들의 사활적 리해관계와 근본적으로 적대되기때문이며 세계제패를 참망하는 미영지배 그루빠의 탐욕적 독재에 세계인민들을 복종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방화자 미제국주의자들은 북대서양조약의 보충으로서 침략적 군사조약인 「태평양조약」의 조작을 최근로골적으로 책동하고 있습니다。즉 중국인민의 굳센 투쟁에 몰리어 겨우 대만에서 숨어서 잔명을 유지하고 있는 매국노 장개석과 비률빈 인민의 배격을 받고 있는 퀴리노 「대통령」과 조선인민의 반역자 리승만이

미제국주의 지시 밑에서 전면에 나서 책동하고 있습니다.

八월六일에 장개석과 리승만은 남조선 진해만에서 회견하여 장개석 퀴리노회담 성명에 합치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태평양동맹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가까운 장래에 예비회담을 소집할 것을 퀴리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태평양연해 제국의 반동괴뢰들을 규합하여 「공산주의 위협의 반대」 즉 아세아 제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 침략적 군사뿔럭을 조직하려는 것입니다. 태평양동맹안 책동에 있어서 미제국주의자들이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마니라크로니클」 지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번 장개석과 퀴리노 회담에는 비률빈의 장군들과 맥아더사령부의 대표들이 참가한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명백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미국인들은 이 동맹에 있어 자기들이 배후에 서있으면서 일본에게 현저한 역할을 떼주려 하고있는 것입니다. 태평양동맹의 책동은 아세아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고 제국주의의 체계를 제민족에게 강요하며 미 영 제국주의자들이 조작하는 또 하나의 전쟁준비입니다. 일관하여 전쟁도발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반동지배층들은 또한 독일과 일본의 침략세력과 군국주의 력량을 재생시키는 것이 극히 중요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팟쇼의 찌그러기 즉 히틀러 뭇소리니 도죠(東條)의 후손들을 자기들 주위에 규합시키고 있습니다.

독일을 민주화하고 비나치화하여 평화애호석이며 민주주의석인 통일국가로 급속히 회복시키는 원칙하에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비단 독일뿐만 아니라 전구라파의 평화애호 인민들의 큰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츠담회담에서 결정된 근본원칙이며 평화와 자유를 갈망하는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영반동지배층들은 대독강화조약을 준비하려 하지 않고 독일문제해결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독일분활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독일을 침략전쟁의 군사기지로 리용하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서부독일에 자기들의 군사전략적 기지를 창설하고 있으며 강도적 독일제국주의의 군사 경제적 토대를 부활시키고 있으며 또 그들의 침략적 목적에 복무할 용병으로 만

들기 위하여 독일팟쇼군대를 재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六월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四국외상회의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정책을 다시한번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즉 그들은 독일에 대한 자기들의 단독조치를 외상회의에서 승인받으며 자기들의 분렬적 활동을 합법화 하며 자기들의 반민주주의적인 독일문제 해결계획을 강요하려하는 한편 포츠담의 결정의 원칙에 립각한 쏘련의 제의를 반대하고 특히 대독강화조약을 급속히 준비할것과 조약체결후 一년내에 점령군대를 철퇴시킬데 대한 제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은 독일문제에 대한 그들의 제국주의적 야도를 숨김없이 로정하는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문제에 있어서도 독일문제에 있어서와 꼭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는 三十六년간이나 우리민족을 억압하던 불구대천의 원쑤이며 일본문제의 해결 여하는 극동에서의 평화와 안전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민주독립국가건설에 대하여서도 직접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일본문제 해결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을 극동에 대한 팽창기지 침략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일본군국주의를 재생시키고 있으며 일본에서 미국의 군사기지를 건설하는데 광분하고 있습니다.

일본점령 미군 제八군단 전사령관 아이케로 바ー카중장이 미국에 돌아가서 「일본은 구라파보다도 더빨리 재무장지대가 되어야 된다」고 절규한 것은 저간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며 맥아더원수가 영국신문 「데이리 메일」지의 ( ) 기자에게 「나는 오끼나와(沖繩)에 二十五개의 비행장을 건설하였다. 이 비행장들에서 B一二九는 一일에 三천五백대가 비행할 수가 있다. 싱가폴로부터 우라지웍스토크까지의 전극동은 이 비행기들의 활동범위에 속할 것이다.」라고 언명한 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일본군사기지화 정책의 일단을 말하여주는 것입니다. 일본각지의 비행장외에 구레(吳)、요꼬스카(橫須賀)、사세호(佐世保)의 三군항은 미국식으로 재무장되어 二十五년간 기한으로 미제국주의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전,일본경찰총수의 二배를 넘는 十二만五천명의 「륙상경찰」을 완전히 무장시키고 있으며 그 수를 또다시 三十만으로 증가시킬 안이 지난 五월十六일 국회중의원에서 통과되었으며 七억五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사회질서안전군」이니 「이민분견대」니 하는 각종 명목으로 전팟쇼군대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그 수는 실로 근 六十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지난 五월十二일 극동위원회 미국대표 막고이가 발표한 미국의 일체 대일배상을 취소하며 또 일본에 대하여 배상지불을 요구하는 여하한 제안도 반대하겠다고 한 성명입니다. 이것은 수년 전까지 일본제국주의 침략군을 무장시키고 있던 八四五개의 군비공장을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반환하여 전쟁전의 일본군국주의를 그대로 재생시키려는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이것을 일본제국주의를 재무장시켜서 이것을 미제국주의자들의 팽창정책의 야욕을 실현시키는 앞잡이로 리용하려는 로골적인 전쟁도발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인들은 일본과의 강화조약체결을 자꾸 연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파리외상회의에서 쏘련정부대표는 일본과의 강화조약 체결안을 내놓았으나 미영대표들은 이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의 재생과 재무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이며 일본을 민주주의적으로 부흥시킬 것을 규정한 포츠담결정의 정확한 실천을 요구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을 선두로 하는 제국주의국가들의 반동지배층들이 이와같이 로골적인 전쟁도발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의 불가피적 질병인 새경제공황이 박두하고 그 내부 모순이 일층 첨예화하였기 때문이며 또 제국주의 진영의 력량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몰락하여 가는 자기들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공황으로부터 혈로를 찾기 위하여 전쟁수단을 리용하려는 것입니다.

쓰딸린대원수께서는 一九四六년 선거전 연설에 있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맑쓰주의자들은 세계경제의 자본주의적 체제가 전반적 공황과 군사적 충돌을 내포한다는 것, 그러므로 세계 자본주의의 발전은

현대에 있어서는 평탄하고 균형적인 전진운동의 형태로서가 아니라 공황과 전쟁을 거쳐서 진행된다는 것을 재삼 말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전쟁도발의 결과는 그들에게 점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협, 공갈, 회유, 매수등 온갖 수단을 리용하면 리용할쑤록 그들은 점점 더 인민으로부터 고립되고있으며 그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민주력량은 그와는 반비례로 점점 더 장성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옹호하며 자유와 민주를 사랑하는 전세계인민들의 단결된 력량은 무한히 강대하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四월하순 파리와 쁘라그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던 평화옹호자 세계대회와 지난 七월상순 미라노에서 개최되었던 세계직련 제二차대회에서 명백히 전세계에 선시되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앞잡이들은 이 평화대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대회대표자들에 대한 박해, 불란서 입국사증교부의 거부, 자기한들의 대항대회준비등 온갖 책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六억이상의 평화애호인민을 대표하는 약二천명의 전세계 모든 나라의 대표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민족 인종 피부색의 여하를 불구하고 사상, 신념 종교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세계의 모든 정직한 사람들은 평화를 희망하며 전쟁을 반대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평화를 희망하는 전세계인민들의 노력은 소수 제국주의 도배들의 흉악한 의도와 범죄적 계획을 능히 파괴시킬 수 있으며 또 반드시 파괴시키고야 말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동대회에서 채택된 선언서에서 다음과같이 전세계 인민들에게 호소한것으로써 명백히 알수있습니다.

즉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용감하고 또 용감하라……우리는 평화를위한 이 투쟁—생명을 위한 이 투쟁에서 승리하리라는……우리들의 결의와 우리들의 의사를 표명하는 바이다.」

이 호소에 호응하여 전세계 평화옹호인민들이 평화를 옹호하여 일어서고 있습니다.

파리평화대회가 그친 후에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은 홧김에 말하기를 「우리 적들은 평화를 위한 책전투에 승리하기에 성공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세계직련 제二차대회는 새 전쟁도발자들을 반대하여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투쟁에 단결되어있는 로동계급의 력량을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어떠한 방해、파괴、분렬공작도 이를 약화시킬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근로인민들은 제국주의 파괴분자들의 이러한 책동들을 보기좋게 물리치고 그 력량을 점점 더 굳게 단결시키고있으며 평화와 민주와 자유를 위하여 더욱 광범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것입니다。

평화옹호대회에는 우리의 민족대표들도 참석하여 평화를 위한 전세계인민들의 공동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선인민들이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 및 근로인민들과 굳게 단결되어 세계의 평화와 민주를 위한 투쟁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발전을 위한 조선인민의 애국투쟁은 전세계인민들의 절대적 지지와 후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것입니다。

아세아에 있어서의 민족해방투쟁은 미증유의 전과를 거두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민해방전쟁三년간에 거둔 영웅적 중국인민들의 승리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금년六월말현재로 중국인민해방군은 반동국민당군 五백六十九만이상의 병력에 손해를 주었으며 남경을 비롯한 중국전체의 도시 및 지방도시의 五二%의 도시를 포함하며 전 중국인구의 五八%가 거주하는 약三백만 평방키로메터의 지역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승리는 나날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월남과 인도네시아인민들은 국가독립과 민주주의를위하여 제국주의침략군과 용감히 투쟁하고 있으며 비루마와 마레이인민들이 전개하고있는 자유를위한 투쟁은 완전히 민족해방전의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세계 민주진영은 불패의 태세로 장성되었으며 혁혁한 승리를 거두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민주진영의 선두에는 평화의 성벽이며 민주의 보루인 위대한 쏘련이 서 있습니다。

쏘련은 레닌 쏘딸린당의 지도하에서 공산주의 사회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유일의 사회주의국가이며 세계최대의 강국입니다。 쏘련은 무계급사회이며 따라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모르는 국가입니다。 쏘련에는 실업자도없고 경제공황도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쏘련은 단시일내에 전후경제를 부흥 발전시켰으며 벌써 전전수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 배급제 페지、화페개혁、일용품 가격 인하등의 시책으로 말미암아 인민들의 불질문화 생활수준은 급격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쏘련인민들은 세계 어느나라에 비할수없이 가장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하여 오늘날 쏘련은 오로지 세계의 평화와 인민의 안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평화와 민주의 철벽같은 성색으로 되고있습니다。

쏘련은 우리 민족을 일제의 멍에로부터 해방시켜주었을 뿐만아니라 한결같이 조선의 민주주의적 자주독립을 원조하기 위하여 시종일관하게 투쟁하였으며 사심없는 원조를 아낌없이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쏘련 정부대표들은 모쓰크바 三상회의 및 량차에 걸친 국련총회에서 해방된 조선을 또다시 식민지노예화하려는 미제주의자들의 침략적 야도를 폭로분쇄하면서 진정한 조선의 통일적 민주독립을 위하여 해방의 노력을 다한것은 누구나 다 아는바 사실입니다。 또 쏘련정부는 조선문제를 급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쏘미량군을 동시에 철거시키고 조선문제해결을 조선인민 자신에게 맡기자는 력사적 제안을 一九四七년九월에 제의하였습니다。 一九四八년 九월 조선최고인민회의가 쏘미량군이 동시에 조선으로부터 철거할것을 요청하자 쏘련정부는 이를 쾌히 접수하여 우리의 해방자요、원조자인 위대한 쏘련군대는 작년말에 북조선 지역으로부터 완전히 철거하였습니다。

또 우리공화국정부가 수립되자 쏘련은 우리공화국과 제일먼저 외교관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지난三월十七일에는 우리공화국정부와 쏘련정부는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우호적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정은 우리공화국의 경제건설과 발전을 촉진하는것이며 막대한 방조로 되는것임은 두말할것도 없습니다。 이 협정은 대소민족의 평등권과 자주권을 존중시하는 레닌—쏘딸린적 평화적 대외정책을 실시하

는 사회주의국가 쏘련만이 타국과 체결할수있는 완전한 평등적 협정입니다。 여기에서 조선인민은 누가 조선인민의 벗이며 누가 조선인민의 원쑤인가를 잘 알고있습니다

해방 四년간의 경험은 쏘련만이 조선의 진정한 벗이며 원조자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쏘련과의 친선은 조선의 통일과 독립과 민주의 보장이며 조선인민의 안전과 행복의 담보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인민은 쏘련과의 친선을 일층 굳게하여야 할것입니다。

조선인민과같이 전세계의 모든 민주주의국가의 인민들과 자유애호인민들도 쏘련과의 친선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독립과 자유 민주와 평화를 위하여 전세계의 민주주의제국과 자유애호인민들이 쏘련을 중심으로 그 민주력량을 굳게 단결하고있으며 그 력량이 나날이 장성되고있는것이 현하 국제정세의 특징입니다。

二、조선의 국내정세

여러분!

국내정세의 기본적 특징을 이루고있는 남북 조선의 정치경제정세의 상반성은 지난 一년동안에 더욱 첨각화되었습니다。 조선인민들의 통일적 자유선거에 의하여 수립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중앙정부의 지도하에서 북반부인민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성취한 모든민주개혁과 량차에걸친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완수한 성과들을 토대하여 새로운 二개년인민경제계획완수에!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북반부인민들의 애국적 열성과 창발적 노력은 거대하게 발휘되었습니다。

우리민족의 영웅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상 김일성장군의 아래와같은 말씀은 북반부인민들의 모든 사업에 있어 지침으로 되었습니다。「이미 쟁취한 민주개혁의 성과를 더욱 확고 발전시키며 공화국의 정치경제적 토대를 더욱 굳건히하며 공화국의 철옹성같은 확고부동한 강력한 기지를 축성함에 전체인력과 물력을 동원하여야 하겠습니다。

공화국 북반부인민들이 전체력량을 집결하여 二개년인민경제 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하면 우리조국에는 완전자주독립국가의 더욱 튼튼한 경제적 토대가 구축될것이며 인민대중의 물질문화생활은 일층 제고될것입니다」

북반부인민들은 오늘날 김일성수상의 올바른 지시를 받들고 이미 쟁취한 모든 성과들을 확보하면서 경제 정치 문화 각부문에 있어 새로운 전진을 거듭하고있습니다。

해방되던 첫해에 있어서는 쏘련군대의 형제적 원조하에서 북반부인민들은 인민들 자신의 정권을, 확립하고 모든 일제잔재와 봉건적 소유제도를 청산하여 조국의 민주주의적 발전의 길과 인민생활에 있어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는 사업에 전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토지개혁과 중요산업국유화의 결과는 북반부인민들로하여금 해방후 제二년인 一九四七년도에 벌써 인민경제부흥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하고 자기력사상 처음으로 수립한 이 계획을 완수하는 투쟁에 나서게하였습니다。 잔악한 일본제국주의자에 의하여 파괴된 공장 기업소들는 대량적으로 복구되었으며 농업생산은 더욱 그 성과가 큽니다。 一九四七년도 제一차인민경제계획과 一九四八년 두번째 인민경제 계획의 실시로 산업에 있어서 一九四七년도에 一九四六년도에 비하여 그 생산이 더욱 장성되었으며 농업생산에 있어서는 해방전 최고수준 一九三九년에 비하여도 초과하였습니다。

인민경제계획의 이와같은 성과는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경제체제의 우월성을 더욱 똑똑히 증명하였습니다。 북반부인민들은 이와같은 승리에 의하여 자기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급진적으로 향상시키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하던 북반부가 자급자족의 지대로 전변되었으며 산업의 신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인민들에게 수요되는 생활필수품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수있는 조건들이 지어졌습니다。 모든 민주개혁들을 토대하여 량차에 결친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한것은 비단 북반부인민들뿐아니라 전조선인민들의 대성과입니다。

이와같은 조건위에서 새 二개년인민경제계획의 수행이 더욱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二개년인민경제계획은 북반부에서 도달한 인민경제의 발전수준을 더욱 제고시키어 우리민족경제구조내에서 식민지적 편파성과 봉건적 락후성을 숙청하고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구축하게 되는것입니다。二개년 인민경제계획은 북반부의 산업과 농업을 부흥발전시킴에 그 의의가 그치는것이 아니라 현하 남반부에서 미제국주의와 그 주구 리승만도당의 분활식민지정책에 의하여 파멸의 일로를 걸어가고있는 남반부의 경제를 조국의 통일됨과 동시에 곧 그 것을 복구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二개년 인민경제계획은, 그 최종년인 一九五○년말에 이르러서는 국영산업으로 하여금 一九四八년말에 비하여 약 二배로 증가시킬것이 예견되어있으며 그 것은 벌써 一九四四년도의 생산을 릉가하게되는것입니다。농업생산에 있어서는 북반부로 하여금 풍족한 지대로 약진시킬것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불타는 애국심과 고상한 헌신성에 의하여 북반부의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은 고도의 복잡한 기계들과 대규모의 근대적 시설을 가진 대공장들 그중에는 황해제철、흥남비료、성진제강、수풍발전소와 같은 대공장들이 우리로동자와 기술자들의 손으로 완전히 복구되었고 그것을 그들손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뿐만아니라 평양기계제작소 평양방직공장같은 대규모의 공장들이 신설되고있습니다。이러한 사실들은 북반부의 산업이 복구향상되는것을 증명하는것입니다。그러나 二개년 인민경제계획 제一년인 一九四九년 상반가의 계획실행 총결을 보면 몇가지부문에 있어 부분적으로 계획숫자를 완수하지 못한것도 있습니다。그리하여 대외무역에 지장을 주고있는것이 사실입니다。우리들은 이점에 주의를 돌리어야 하겠습니다。

공장과 기업소내에는 남조선반동파의 촉수로서 태공분자、암해 파괴분자들이 남아있어 우리 건설사업을 방해하는데 대하여 우리들은 세심한 관찰과 경각심을 높이어 제때에 반동분자들의 행동을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산업이 일반적으로 복구장성됨에 따라 로동자들과 일반 주민들의 물질적 복리도 또한 장성되고 있습니다。즉 물가에 있어 국가 가격과 일반 시장 가격이 저하되였습니다。물가의 저하는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한발에도 불구하고 북반부 농민들의 이앙작업은 성공적으로 진척되었습니다。북반부 농민들의 천후와의 투쟁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약 북반부에서 농민자신들이 로지의 주인이 되지못하였다면、조국에 대한 사랑과 헌신성을 발휘못하였다면 금년과 같은 한재를 능히 이길수 없었을것입니다。해방이래 건설행성에서 화대된 관개시설사업이 없었다면 이와같은 한재와의 투쟁성과는 거둘수없었을것입니다。

참으로 북반부의 경제형편은 신속한 복구로서 향상의 일로를 달리고있습니다。이와같은 향상은 북반부에있는 三대 민주수의정당들과 기타 사회단체들의 협력과 노력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공화국 중앙정부의 올바른 지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북반부에는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어있습니다。각정당 사회단체들은 완전한 활동과 사업의 자유를 가졌으며 공화국중앙정부는 이들 정당 사회단체들의 조국건설을 위한 활동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주고 있습니다。각정당 사회단체들은 각기 자기의 기관지를 가지고 있으며 집회 시위의 자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북반부인민들은 각계 각층을 물론하고 제고된 애국심에 의한 화목과 친애로써 중앙정부를 중심하고 굳게 단결되어 있습니다。

인민들의 자각심과 정치성은 나날이 향상되고 있습니다。북반부인민들은 자기들의 조국창건의 위대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정치적 통일이 날로 장성되고 있습니다。

북반부에서는 반동분자들의 토대가 완전히 박멸되었습니다。봉건적 지주제도를 청산한 로지개혁과 중요 산업국유화의 정책등에 의한 민주개혁들은 반동분자들의 기생할수있는 토대를 괴멸시키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매국노들은 이「신사」들에게 호의호식과 사리사욕을 마음대로 채울 자리를 주지아니하였다는 탓으로 북반부에서는「민주주의」가 없느니「독재정치」가 실시되느니 하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사실에있어서는 이러한 반동분자들의 설자리가없는 까닭으로 북반부가 인민들을 주인으로한 나라로서 진정한 민주주의나라로서 전인민들의 화목은 장성되고 통일은 강화되어 어떠한 침략자든지를 능히 방어할수있는 난공불패의 태세로 장성되고 있는것입니다。

문화방면에 있어서도 북반부의 발전은 참으로 눈부신 때였습니다。미래를 두어깨에 걸머진 청년들은 각각 자기의 재능에따라 선진과학기술과 선진사상으로써 무장되어가고있습니다。우리나라의 과학문화전선에있어 오늘날 북반부와같이 이렇게 찬란하게 발전하고있는 시기는 일찌기 우리의 력사상에 있어 본 일이 없습니다。정치경제각부면에있어 우수한 간부들이 더욱더욱 배출하며 루천년의 전통을 가진 우리민족문화를 세계에 자랑할수있는 날이 머지 아니한것을 우리는 확언할수있습니다。

실로 우리나라의 북반부는 경제 정치 문화 각부문을 통하여 건설과 발전의 일로를 걸어가고 있습니다。二개년인민경제계획의 실현에 의한 성과들은 우리의 민주건설이 성공되고있는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것입니다。

인민의 원쑤들은 우리의 건설과 발전을 극도로 싫어하며 몹씨도 무서워하여 남조와 허구로써 온갖 비방을 퍼붓고 심지어는 동족상잔의 내란으로 파괴와 방해를 백방으로 시도하지마는 북반부 인민들의 적체인력과 물력의 동원으로써 축성되는 통일 독립의 민주기지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누가 감히 우리 나라의 통일독립을 위한 민주주의적 기지가 북반부에서 나날이 장성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의심하겠습니까?

동포여러분!

우리조국의 북반부가 이와같이 건설과 광명과 자유의 나라로 장성되고있는 이때 다른편으로 우리조국의 남반부는 폭력、파괴、암흑、테로의 구렁으로 더욱 참혹하게 전락되고 있습니다。미제국주의자들의 경

제적 지배와 정치적 간섭은 더욱 심각화하여 가고 리승만 매국도당의 폭력과 학살은 더욱 악랄하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一년동안 남반부의 경제형편은 미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괴뢰정권 사이에 조작한 망국조약들과 미제국주의자들의 소위「경제원조」정책에 의하여 더욱 혹심하게 예속화되고 있습니다。

주지하는바와같이 소위 대한전력회사、대한석유회사、대한해운공사등의 조직과 아울러 철도 및 체신에 대한 권리의 독점권으로 인하여 남반부의 동력、원료、지하자원、운수、교통 및 통신에 대한 전권리를 미제국주의자들이 독점하게 되었습니다。만약 남반부 산업에 있어서 이상의 제부문의 권리를 미제국주의자들이 틀어쥐고 있다면 과연「남반부 산업의 지배권은 미제국주의자들이 가지고있다」고하는 이외에 다른 대답은 있을수 없습니다。또한 남반부 산업의 지배권을 미제국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다면 남반부전경제의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이것 역시「그 주인은 미제국주의자들이다」라는 이외에는 다른 대답은 있을수없습니다。

실로 남반부경제는 남반부 주민을 위하여 있는것이 아니라 미제국주의자들의 탐욕적 리윤추구를 위하여 존재하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새전쟁방화계획에 봉사하기 위하여 존재하게 된것이 더욱 명백하여졌습니다。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팽창적야욕을 추구하기 위하여는 남반부의 산업을 부흥 발전시키는것이 아니라 세계·도처에서와같이 더욱더욱 파괴 위축시킴으로 남반부를 완전한 자기의 식민지적 상품판매시장으로 만드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남반부기계공업에 있어서는 해방직후 그 중요한 공장들이 미제국주의 군대의 고의적 파괴에 의하여 벌써 그 중요한 부분이 없어진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즉 부평조병창、삼능제강소、조선비행기공장、조선전기제강소、진해공장등의 기계가 전부 파괴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이 남반부 산업이 총붕괴에 직면하고 있는것을 말하고 있는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 남반부는 더욱더욱 심각하게 월가 장사꾼의 상품판매시장으로 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톤 八월三일 에이•피의 보도에 의하면 一九四八년도의 남반부의 수입은 一억八천九백만딸라인데 수출은 겨우 八백九十만딸라밖에 안된다고 하였습니다。곧 수출은 수입의 겨우 四•七%밖에 안됩니다。 남반부가 미제국주의자의 중요한 상품판매시장으로 되어있는 증거는 이 숫자 한가지만 가지고도 넉넉히 알수있습니다。

이상과같이 산업의 예속화와 파멸과 및 상품시장화가 리승만괴뢰정권 조작이후에 있어 미제국주의자들이 떠들어대던 소위 경제원조의 결과입니다。

남반부 농민으로부터의 량곡공출정책은 일본군국주의 재생문제와 깊이 관련되어있는것입니다。 남반부 농촌경제는 이 강제공출정책으로 인하여 더욱 파괴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피와 땀을 흘리면서 一년동안 죽도록 지어놓은 량곡은 실제에있어 농민들의 식량으로는 소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봉건적 소작제도의 견고한 유지와 함께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혹독하게 파괴하며 농민들로 하여금 대량적으로 농촌을 떠나게하는 현상이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한실례로는 전남 광주 한군에서만 금년 五월중 五천여명의 농민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게 되었으며 四월에 있어서는 七、二五五인의 리농자를 내었습니다。

이와같은 현상은 남반부 전체적으로 보편되어있으며 이러한 현상하에서 어떻게 농업경제가 피폐 위축되지않겠습니까! 산업과 농업이 이렇게 무참하게 파괴 위축되는 형편하에서 주민들의 생활이 지극히 참담한것은 묻지 않아도 가히 알것입니다。 주민들의 생활난은 괴뢰정권의 무제한한 화폐람발에 의한 물가고로써 더욱 혹심히여지고 있습니다。 괴뢰정권 소위 재무장관 김도연의 발표에 의하면 금년 七월二十三일 현재로 남반부 통화 발행고는 四백四十억에 달하였더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七월말 三백四十억에 비하여도 실로 一백억이 증가히였습니다。 이것도 부족하여 九월말까지는 五백억을 발행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형편하에서 인민들이 어떻게 그 생활을 유지할수 있겠습니까? —

남반부는 암흑과 야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지시하에있는, 리승만 매국도당들의 테로와 학살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욱 혹심하여 갑니다。 미제국주의자가 지금 매국정권 반동정당을 비롯한 소위 각기관에, 소위 고문을 파견배치하고 이것을 조종하고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에도 부족을 느껴 테로단에까지 고문을 파견하고 인민들에대한 학살과 폭행을 미국 양키-식으로 직접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七월五일에도 미국으로부터 「테석」란자가 남조선에와서 「무초」의 지시하에 테로단 대한청년단의 고문으로서 취임하였다고 남조선 신문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는 고사하고 전면적으로 그 생명이 법밖에 놓여있습니다。 민주주의적 활동가들은 물론이요, 인민들까지 아무 재판도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총살되는것은 심상한 일로 되어있습니다。 단편적이나마 확실한 보도에 의하면 八월一일 리승만 정권 경찰은 애국자들을 혹독한 고문 끝에 근처산중에서 총살하였는데 한례로써 전남 완도군 한녹호씨를 구암부락 뒤ㅅ산에서 총살하였으며 장흥군 정만호씨를 영당리 뒤ㅅ산에서 사살하였으며 풍천군 룡동면 리태호씨를 산중에서 총살하였으며 정도군 빡기옥씨를 산중에서 총살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 매일 남조선 각지에서 조사도 재판도 없이 총살되는 애국자들의 질 수는 도저히 알 도리가 없습니다。 남반부의 각 감옥에는 전부 정원의 배이상을 초과하고있는데 례하면 대구감옥같은데에는 약一천명밖에 수용못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二천六백명을 감금하고 있으며 심지어 창고 사무실까지 뜯어고쳐 감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대문형무소에는 기결 미결 합하여 三천명밖에 수용하지 못하는데 현재는 六천명을 감금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사람씩밖에 수용못하는 감방에 九명이상을 수용하고있다고 소위 서대문 형무소 소장 원택연은 기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실로 리승만매국도당은 남반부를 조국통일과 민주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애국자들의 피속에 잠그고 있습니다。 리승만 매국도당은 인민들의 피를 주고 자기상전들로부터 총검을 사들이고 또한 이 총검에 의하여 학살한 인민들의 피위에 자기의 매국정권을 유지하려하고 있습니다。

파멸과 예속화의 구렁으로 전락되는 경제와 잔인한 테로 학살 통치하에서 어찌 민족문화의 싹인들 돋아 오를수있겠습니까? 도덕적 퇴폐와 야비한 풍속이 늘어갈 뿐입니다。 남반부 인민들의 앞에는 빈궁과 기아와 노예와 폭압과 학살당하는 자유가 있을 뿐입니다。

동포여러분!

해방후 四년이되는 오늘의 북반부와 남반부의 경제정치정세는 이상과같이 천양의 차로서 상반되고 이 상반된 정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하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반부 인민들은 자기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참혹한 상태를 앉아서만 보고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이러한 야만적 노예화정책을 가만이 앉아 보고만있지않습니다。 그들은 조국의 통일과 자유를 위한 투쟁을 용감히 전개하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오늘날 자기들을 이와같은 암흑과 노예의 구렁속에서 구출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을 완전히 분쇄하고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조국통일을 쟁취하여야 된다는것을 똑똑히 알고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조선인민들은 一년동안 미군철퇴를 위한 투쟁에 그 전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조국의 통일과 자유를 쟁취하기위한 이 투쟁에있어 위대한 쏘련군대가 북조선으로부터 철거한것은 인민들의 미군철퇴를 위한 투쟁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소민족들의 자주권과 자결권을 존주하고 조선의 통일독립을 백방으로 원조하는 원칙위에서 위대한 쏘련이 자기군대를 북반부로부터 완전히 철거한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자기군대를 남조선에서 철퇴치아니한 구실을 근거없이 만들었으며 미군철퇴를 위하여 투쟁하는 전인민들에게 무한한 용기와 자신심을 주었습니다。 또한 쏘련군대의 철거는 공정한 세계인민들의 힘찬 여론으로 하여금 미군의 남조선계속주둔을 극히 불리한 립장에 서게 하였습니다。

날로 치열화하여가는 남조선인민들의 미군철퇴를 강력히 요구하는 투쟁과 공정한 국제여론에 의하여 아무리 자기의 팽창정책에 과렴치한 미제국주의자라 하여도 남조선에서 자기군대의 철거를 선언치아니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으로부터 자기군대의 철퇴를 성명하였다고 하여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선에 대한 분할식민지화정책에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다고 생각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군대의 철퇴를 선언하였으나 여전히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의 주인으로서 직접적인 간섭과 지배를 완강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자기군대를 남조선에서 철퇴하였다고 공포하였으나 남조선에는 금일 수많은 미국병사들과 장교들이 남아있으며 이들이 남조선괴뢰정권의 소위 국방군의 전체를 자기손에 거머쥐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미군고문단과 무초대사와 소위ECA와 자기의 침략도구인 소위 국련조선위원단등등을 통하여 의연히 남조선의 주인으로서 정치 경제 문화 각부문을 간섭지배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침략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조선 애국적 인민들을 학살 도살할 뿐아니라 나아가서는 북반부의 민주건설을 파괴하여 우리조국의 통일과 민주독립의 기초를 파멸시킬 목적하에서 리승만괴뢰정권으로 하여금 동족상쟁의 내란을 도발 선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는 전조선의 애국적 정당사회단체로 하여금 조국의 통일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력량을 총집결하며 단일적 민족통일전선결성운동에 진출케하였습니다。 여기서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의 결성은 조선인민들의 조국통일과 민주독립을 쟁취하는 투쟁에 있어 무한대의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자기의 결성대회에서 조국통일에 대한 정당하고도 구체적인 방책을 전조선인민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곧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는 제의입니다。 일체 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조선인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적 평화의 방법으로서 남북을 통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조선인민의 최고립법기관을 설립하자는것입니다。

이 력사적인 제의는 애국적정당 사회단체들의 절대다수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세

의가 어째서 이처럼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름아닌 이 제의가 전조선인민의 의사와 갈망을 그대로 표시한 까닭입니다。

해방후四년이 지나드록 우리조국의 통일이 완성치못한 이때에 조국을 통일하기위한 이러한 구체적 방책이 어째 전인민들의 의사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조성된 조국정세하에서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의 사수와 지시에 의하여 리승만 매국도당들이 동족상잔의 내란을 집요하게 선동하고 있는 이때 평화적 방책으로서 조국을 통일하자는 것보다 그 이상 민족적 리익에 절실히 부합되는것이 그 어데있겠습니까?

과연 북반부인민들은 일치하게 열렬히 이 제의를 지지환영하고 있습니다。

남반부인민들은 로동자를 선두로하여 파업、집회、시위등으로 이 제의를 열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七월二十일에 평화통일안 지지총파업이 서울을 위시하여 대구 부산 인천등 각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로동계급에 따라 농민 도시 소시민 인테리—기업가등 인민대중들이 평화통일을위한 투쟁에로 진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제의를 반대하고 나서는자는 그 누구입니까? 다만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종하에있는 한줌도 못되는 매국노 리승만도당과 미제의 주구 소위 국련위원단들 뿐입니다。리승만도당은 인민으로부터 고립된 자기의 매국정권이 튼튼치 못한것을 알고 있습니다。인민으로부터 고립된 까닭으로 민주주의적 환경과 민주주의적 원칙위에서 실시되는 총선거에 여지없이 실패되어 반드시 자기의 정권을 잃어버리게 될수 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 리승만은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조국통일을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시키려는 이 제의를 극히 무서워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리승만은 이 제의를 반대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의 지도하에 동족상쟁의 내란을 조직 도발하는데 더욱 광분하고 있습니다。

사실에있어 미군벌의 사수하에서 동족상쟁의 내란도발에 광분하는 리승만의 뱃장속에는 전쟁의 방법으로 자기의 매국주권을 전조선적으로 설정하려는 야욕이 들어 차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三八선을 넘어 북조선 침범행위의 계속、우익진영의 단결과 강화를 꾀하며、소위 태평양 조약의 체결을 책동하며、一억五천만딸라의 차관을 선전하며、소위 四十만의 군대준비에 대한 무기와 무장을 자기의 상전에게서 받는다고 떠들어대며 소위 국회에서 「병역법」을 통과시키며、三八선 二〇키로이내의 통행제한을 강제실시하며、미국대사 무쵸 군사고문단 단장 로버쓰등등이 三八선 일대 시찰등등의 대재들을 내놓고 마치 저들이 무슨힘이나 있는듯이 가장함으로써 동족상쟁의 내란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리승만도당이 동족상쟁의 내란을 조직선동하고 있는것은 저들의 상전들도 이제와서는 은폐하려 하지 않습니다。이것은 에이·피기자 웰리암 무어의 최근 보도에서 분명합니다。「민국정부의 일부 극히 중요한 인사들은 신생민국이 공세를 취치아니할수없게 될날도 그다지 머지않을 것이라고 재작하고 있으며 이 관리들은 언제까지 참을수없다고 주장하고있는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경성 二일 발 에이·피)

이와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늘날 리승만의 내란책동을 은폐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통일을 반대하고 내란을 도발하는 리승만은 해방후 四년간에 남조선에서 얼마나 무고한 인민들과 애국주의적 활동가들을 학살 검거 투옥하였습니까?

리승만은 一九四五년에 一五인、一九四六년에 四천二백여인、一九四七년에 三천八백여인、一九四八년에 三만二천여인、一九四九년에 들어와서 지나七월말까지 五만三천여인을 학살하였습니다。곧 리승만에 의하여 학살된 인민의 수가 四년동안 실로 九만三천여인에 달합니다。

참으로 리승만은 피바다 속에 남조선인민들을 잠그고 있으며 인민들의 피에 미친 살인광입니다。

잔인무도한 리승만은 해방후 四년간에 四十七만八천여인을 검거하고 그중에서 十五만四천여인을 투옥하였습니다。

리승만은 남조선을 도살장으로 생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인민들이 요구하는 민주개혁은 한가지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인민들에 해를 주는 법령들만을 수없이 만들어내고 조선민족을 팔아먹는 경제조약

불법을 미제국주의자와의 사이에 체결하였습니다。

인민들의 피에 미친 리승만은 야수같은 잔인무도한 테로학살을 북조선 인민들에게까지 펼치려합니다。 이것은 금년 一월부터 공공연히 시작하였습니다。 조선 국련신위원단이 들어오자 더욱 이 범죄적 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리승만은 북조선인민들을 학살하기 위하여 三八선 일대에 四개사단의 군대를 집결시키고 一월부터 지금까지 三八선 이북에 소위 국군 경찰 테로단등을 다음과 같이 동원 침공시키었습니다。

즉 국군 一만二천六백九十八명 경찰四천二백五十명 기타를 합하여 九十여회에 걸쳐 총계 一만八천여명을 동원하여 三八선 이북지대를 침공시키었습니다。 그러나 공화국 내무성경비대는 이러한 침공들을 제때에 격퇴하여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외에도 리승만도당들은 암살 파괴를 행하기위하여 수많은 테로단들을 북조선내에 들어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테로단은 인민들의 경각심과 내무성의 기민한 활동으로 모두 체포 섬멸되었습니다。 리승만의 이 야만적・범죄행위에 의하여 이러한 침공과 파괴로서 평화와 자유의 환경속에서 사는 무고한 북조선인민들의 피살 중장 랍치된자 수가 五백四十一인에 달하며 방화및 파괴된 가옥이 三〇三호이며 강탈된 축우가 一六七두에 달하며 기타 귀중한 인민들의 재산이 략탈당하였습니다。

이것은 반인민적 자기의 야욕을 실현키 위하여 리승만이가 전조선인민을 피의 바다속에 잠그는 흉악한 행위인것이 분명한것입니다。

이와같은 죄악행위에 대하여 리승만은 반드시 대답하여야 할것입니다。

무엇때문에 인민의 피가 이렇게도 무하히 흐르는가? 인민의 피를 이렇게 흘리게한 책임을 매국노리승만은 져야될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조선에서 인민을 이렇게 학살 검거 투옥하는것을 가만이 앉아서 방관만하는 남조선의 八몇개의 정당의 지도자들은 왜 자기들이 이것을 수수방관하는가를 대답하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이 정당지도자들은 리승만의 이러한 인민학살로써 동족 상잔의 내란을 도발하는것이 옳은가?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는것이 옳은가?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하여 대답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리승만의 매로 하상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방법으로 매국주권을 전조선적으로 설정하려는 리승만의 야망은 조금도 실현될수없습니다。 왜 그러한고하니 진정한 조국의 아들딸로써 조직되고 조국과 인민의 초소에 튼튼히 서서 조국보위에 철벽같이 장성되고 준비된 강력한 공화국 인민군대는 이 매국노들의 모험적 도전에 얼마든지 타격을 주고 민주주의 기지를 철석같이 방어하기에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날로 치열화 하여가는 구국투쟁은 리승만 도당에게 중대한 위협을 주고있는 때문입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리승만의 야망은 실현될수없으며 전면적으로 패망할 날이 머지않습니다。

소위 국련위원단은 리승만 괴뢰정권과 맞장구를 쳐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평화적 통일정책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위 국련위원단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무시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의 리익에 봉사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주구라는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증명하였습니다。 조선인민들이 이자들을 반대하여 그들의 즉시철거를 위한 투쟁에로 진출한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조선인민의 일치한 의사와 갈망이요・민족적 리익에 절실히 부합되는 평화적 통일을 반대하는 리승만도당을 우리인민들은 그 진로에서 소탕하여버리는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들은 이 매국도당들을 자기의 진로위에서 반드시 소탕하고야 말것입니다。

三、우리의 과업

이러한 국제 국내 정세에 있어 우리인민들이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해방후 四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조국의 통일이 성취되지 못한것은 실로 우리민족의 발전을 크게 방해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민족의 존립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이 하루라도 늦어가면 늦어갈수록 남반부에 있어 미제국주의자들의 분할예속화정책은 또한 섬각하여 인민들이 살수없게 될것이며 리승만 매국도당들의 폭력정책은 남반부동포들의 귀중한 생명을 더욱 대량적으로 빼앗아 갈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통일과 자유를 위한 우리의 투쟁에 있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되겠습니다。굳은 단결은 우리들로 하여금 승리를 쟁취하는데 가장 큰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 있어 신속하게 그 승리를 쟁취하느냐 못하느냐는 오로지 우리단결이 얼마나 강력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지난一년동안에 두가지의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그 한가지는 남북인민들의 통일적 자유선거로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중앙정부를 수립한것이요, 그다음 하나는 전국적 애국력량을 총집결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을 결성한것입니다。

이 두가지의 승리에 의하여 조선인민들과 제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들은 미증유의 거대한 전국적 규모로써 통일과 단결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우리의 당면임무를 달성하지못하였습니다。

매국노 도당의 온갖 시도와 모략을 격파하고 조국통일을 달성하려면 우리들은 우리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왜 그런고하니 단결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의 승리는 더욱 촉진되며 더욱 거대한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반동들과의 투쟁에 있어서 언제든지 일층 경각성을 높여야 되겠습니다。반동들은 조국의 분할식민지화정책을 계속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평화적 통일방책을 반대하고 고립된 저들의 생명을 동족상쟁의 내란을 도발조직함으로써 유지하려하고 있습니다。

조국통일독립을위한 민주주의기지가 북반부인것을 반동들은 똑똑하게 알고 있습니다。그러한 까닭으로 반동들은 三八선 일대에서 부절한 도발침공을 감행하여 우리민주기지를 파괴하려는 온갖 시도를 조작하고

온갖 흉악한 음모로 그 기회를 엿보고있습니다。만약 우리들이 높은 경각심으로서 항상 그 준비에 만전을 다한다면 반동의 시도는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말것입니다。이러한 경각성으로써 반동들에게 티끌만한 기회도 주지않아야 합니다。

우리민주주의 정당사회단체들은 일치한 협력으로써 맡겨진 이 과업을 원만하게 실현하여야 되겠습니다。우리인민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민주대 반동의 투쟁에 있어 민주진영의 세력은 전세계적 규모에 있어서나 국내적으로나 비교할수없이 반동세력보다 강대하며 우월합니다。

민주와 평화의 초소에 튼튼히 서있는 위대한 쏘련을 비롯하여 동남구라파의 제민주주의국가들의 더욱은 륭성하여가고 우리의 린방 중국의 혁명의 성공은 확실합니다。

조선인민들이 여 위대한 세계민주진영과 긴밀하게 련결되어 있는것은 우리들의 승리를 튼튼하게 보장하는것입니다。

민주진영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강력한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있습니다。그러나 반동진영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공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불안속에서 동요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지지를 조금도 받지못하고 고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반동세력은 친일파 민족반역자등 매국노들로서 인민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였습니다。

조선인민들은 승리에 대한 자신심을 더욱 확고히 가지고 민주기지를 공고화하고 조국통일을 하루속히 완성하기위하여 김일성장군을 수반으로한 중앙정부주위에 더욱 튼튼히 단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조선인민들은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에 더욱 튼튼히 집결하여 평화적 통일안을 실현하는 투쟁에 더욱 용감히 총궐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승리는 조국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인민들에게 있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조선인민의 장성된 민주력량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반드시 승리에로 인도한다

리 승 엽

현하 조성된 조국정세에 있어 우리민족의 가장 긴급하고 중심적인 문제는 조국의 통일을 하루속히 완성함에 있다。

우리조국이 위대한 쏘베트군대의 무력에 의하여 일본통치의 기반으로부터 해방된지 四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인공적 괘선인 三八선으로 분렬된채 조국강토가 통일되지 못한것은 공화국남반부에 미군이 계속주둔하고있는 까닭이며 이는 우리민족의 향상발전에 크게 조애를 주고있는것은 명백한 것이다。

우리조선민족의 완전통일독립문제는 반드시 민주주의적 토대위에서 완성되어야하며 반드시 민족자주권의 확보와 련관되어야한다。

실제에 있어 해방후 四년간의 우리조국의 독립과 민주발전을 요구하는 투쟁은 인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계속되어왔다。 현재 우리 조국의 남반부를 자기의 식민지적 예속국가로 만들기 위하여 발동적 테로 학살을 강행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의 침략정책을 본다면 그들의 정책이 시종일관 우리조국의 분렬을 위하여 진행되었으며 진행되고있는것을 명확히 알것이다。 또한 우리가 리승만매국도당들이 자기의 상전들의 리익을 위하여 해방후 오늘날까지 어떻게 조국분활을 위하여 발악하여왔는가를 본다면 민족의 예속화와 반동정권의 수립이 얼마나 조국분활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가를 똑똑히 알수있을것이다。

매국적 반동분자들은 입으로는 몇백번이고 통일을 되풀이하고있다. 그러나 이자들의 소위「통일」

은 우리조국을 분활하려는 자기들의 매국음모를 은폐하기 위한 간교하고도 음흉한 모략에 불과한 것이다。 만약 놈들이 조국의 통일을 털끝만치라도 원한다면 우리나라의 통일적 민주독립국가로 부흥 발전할것을 확실하게 예견한 모쓰크바 三국외상회의의 결정을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악랄하게 파괴하였을것인가? 무슨까닭으로 위대한 쏘베트정부의 량군 동시철퇴로 조선인민에게 통일적 정부를 수립할 조건을 주자는 제의를 발악적으로 훼방하였을까? 무슨까닭으로 우리조국의 일시적 분할을 고정화하고 남조선을 미제국주의자의 식민지로 만들 음모에서 진행한「단선」강행에 미쳐 날뛰었을까? 이자들이 부르는 소위「통일」은 오직 우리조국의 남반부를 자기의 상전인 미제국주의 자들에게 팔아먹기 위한「통일」이며 남조선인민들뿐 아니라 북조선동포들까지 놈들의 반동적 테로 학살아래서 미제국주의자의 식민지노예로 만들기 위한「통일」일것이다。 三천리 전지역을 인민 도살장으로 만들며 三천만 전동포들을 미제국주의자의 노예로 만들자는 흉계가 놈들의 소위「통일」운동의 간악한 모략밑에 숨어있는것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우리조국에 조성된 정치세력은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주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주진영과 조국을 팔아먹고 그 인민을 테로 학살로서 억압하기 위하여 광분하는 반동진영과의 대렬이며 조국통일을 쟁취하려는 력량과 이것을 반대하는 분자와의 대립투쟁인것이다。 해방후 四년동안 조국의 리익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여온 민주진영은 전인민들의 지지밑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분활정책과 그 주구들의 온갖 분활책동을 반대하여 조국통일에 대한 귀중한 민족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 시종일관하여왔다。 위대한 쏘베트정부의 량군철퇴, 통일정부 수립의 실현을 위하여, 일시적 분활을 고정화하는 망국적「단선」반대를 위하여, 남북인민들의 자유적 통일선거로써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민주진영의 투쟁은 강대하고 영용하게 계속되고있다。

민주진영은 조국통일을 위한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그 력량이 더욱 강대발전되었으나 반면에 반동진영은 조국분활을 위한 온갖 시도에서 그 흉악한 정체가 인민들에게 더욱 폭로되고 인민들로부터 더욱 고립 배격당하고있다。

× × ×

그러면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의 민주력량이 얼마나 강화 발전되었으며 과연 이 력량이 반동분자들의 온갖 분활음모를 소탕하고 자기들의 통일을 위한 과업을 능히 쟁취할수 있는가? 를

론 없다。

오늘날 우리 조국의 민주력량은 참으로 거대하게 장성되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폭압과 모략으로써 인민들을 학살 기만하며 하지마는、반동적 매국도당들이 제아무리 자기의 상전들의 무제한으로 공급하는 총검으로써 인민들을 도살 학살 한다할찌라도 남북조선 인민들의 나날이 장성 발전되는 강대한 민주력량과 조국통일을 위하는 애국투쟁의 거대한 과도는 막아낼수도 없으며 정체시킬수도 없다。

위대한 쏘베트군대의 성심성의 시종일관한 원조하에서 북반부의 민주력량은 불패의 태세를 확립하였다。 해방후 四년간에 북반부 인민들은 우리민족의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 영웅이신 김일성장군의 령도하에서 자기들의 손에 모든 정권을 장악하였다。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은 숙청되고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비롯하여 세기적 재민주개혁들을 실시하였다。 이러하여 조국통일과 민주발전의 물질적 토대가 신속하게 구축되는 동시에 반동분자의 정치경제적 토대가 근본적으로 박멸되였다。

북반부 인민들은 위대한 력사적 전변들속에서 거대한 정치세력으로 진출하였었다。 봉건적 토지관계를 청산하고 토지의 주인이 된 농민대중의 정치적 진출과 애국적 자각은 미증유의 속도로 진행되었다。

농민대중은 자기들의 생활과 권리에 대한 문제가 민주주의적 국가발전과 어떻게 밀착되어있는가를 자기들의 경험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고있다。 북반부 농민들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토지개혁을 비롯한 모든 민주개혁들이 다만 자기들을 토지의 주인으로 자기자신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 향상시킬뿐만 아니라 자기들로 하여금 바로 국가의 주인이 되어 국가의 모든 정치운영이 자기들의 의사로 좌우되게한것을 확실히 알고있다。 조국의 부흥발전을 위한 애국적 증산투쟁과 모든 정치적 투쟁에서 북반부농민들은 벌써 강고한 단결과 견인한 통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력량의 거대한 부분으로 진출하고있으며 그들의 민주주의적 각성은 날이 갈수록 성장한다。

중요산업국유화의 실시와 八시간로동제 및 전보적 사회보험제를 포함한 로동법령의 실시는 북반부 로동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급진적으로 향상시키었다。 북반부 로동자들은 자본가나 전쟁상인들을 위하여 자기로력을 팔고 자기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국의 부강발전과 또는 전인민들의 생활과 행복을 위하여 일하고있다。 북반부 로동자들은 모든 인민의 선두에 서서 가장 모범적으로 가장 헌신적으로 조국창건사업에 매진하고있다。 로

동자들의 애국적 정신과 창발적 로력은 생산사업에 있어 일제가 파괴한 공장 기업소 운수기관등을 급속도로 복구하고 또한 수많은 민족간부들을 배출하고있다。

북반부 로동자들은 우리 국가사업에 있어 중심적이요、핵심적 역활을, 하고있다。 一九四七년도와 一九四八년도의 인민경제계획을 초과달성한 후 로동자들은 새二개년인민경제계획의 방대한 숫자를 향하여 광범한 애국적 증산경쟁운동으로써 계획의 초과완수에로 매진하고있다。 북반부로동자들은 우리나라 민주진영의 우수한 기수이며 우리의 민주력량에 가장 선구적이요、진보적 부분이다。 북반부로동자의 애국적 창발력에 의하여 건설되는 북반부의 모든 산업건설은 벌써 그 의의가 다만 북반부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三八선을 넘어 미제국주의자의 침략정책에 의하여 파괴에 파괴를 거듭다하고있는 남반부 산업경제를 부흥발전시키는 토대,를 이루고있다。 이와같이 경제 정치 문화 각부문을 통하여 거대한 민주력량으로 진출하는 북반부 로동자들의 앞길은 어떠한 힘으로도 방해할수 없다。

지주와 자본가를 위하여 봉사하지 아니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하게 일하고있는 북반부 인테리들의 력량도 또한 크다。 그들의 새로운 창발력과 로력은 인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공헌하고있다。 과거의 인테리들은 그 대부분이 착취자와 압박자의 유력하에서 노예적 존재에 불과하였지마는 현재 북반부의 인테리는 인민들의 존경과 친애속에서 자기의 재능과 기능을 조국창건사업에 바치고있다。 민족문화의 새로운 싹이 북반부인테리들에 의하여 벌써 거대하게 장성되고있다。 이들은 우리민주력량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있다。

북반부에서 실시한 남녀평등권법령은 북반부의 녀성들로 하여금 봉건적 질곡과 무지의 세계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였다。 이들은 국가의 경제、정치、문화등 각부문의 당당한 일꾼으로서 그 재능과 성의를 다하고있다。 아무도 오늘날 북반부의 녀성들이 민주진영에 중요한 력량으로 진출하고있는것을 부인할수 없을것이다。

북반부의 기업가、상인、수공업자들도 개인소유의 법률적 보장과 창의적 활동에 대한 국가적 보호에 의하여 자기들의 사업과 생활을 향상시키고 인민들의 요구와 국가의 수용의 한부분을 담당하고있다。 외국독점자본에 의한 자본 및 상품침입과 대자본가 및 고리대금자본의 억압으로부터 면제되고있는 그들은 자발적으로 민주진영에 가담하고있다。

실로 북반부에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등 반동분자들이 숙청되고 그들의 발붙일토대가 박멸되였으며 그들의 횡행할 토대가 없어졌다。 민주주의의 넓은길만이 인민들 앞에 열리였다。 로동자、농민、인테리、

내외 및 중소상공업자들이 민주주의 길위에서 호상협조와 친목으로 자기들의 단결을 강고하게 하고 자기들의 력량을 장성시키고있다。 이들 각계각층은 북조선로동당을、 비롯한 정당사회단체들은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굳게 단결되어 인민정권의 모든 시책을 백방으로 협조보장하여왔다。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북반부의 민주력량은 이와같이 거대하게 장성되고 있다。

× × ×

그러면、남반부의 민주력량은 어떠한가? 주지하는바와같이 미제국주의자는 자기의 군대를 남반부에 진주시킨 첫날부터 모든 간악한 식민지정책으로、남조선인민들을 탄압하고있다。 분할 식민지화의 야욕을 품고 들어온 원쑤들은 남반부의 민주력량을「괴멸」시킬 목적으로 인민들로부터 민주주의적 자유를 여지없이 박탈하고있다。 인민들의 창의에서 창설된 인민위원회들은 탄압해산되고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은 비호 육성되고있다。 소위 정당란립정책은 민족분렬을 위하여 적극 채용되었으며 이반면에 모든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은 지하로 구축되었다。 인민들의 행복과 조국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용인될수없는 가장 무서운 일로 인정되었다。 애국투사들이 속속 투옥되었고 모든 민주주의적 언론기관들이 폐쇄되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류혈적 군사테로정치는 날이갈수록 가강되고있다。 그들은 자기의 주구 리승만도배를 사수하여 수만의 민주주의적 활동가들을 학살하고 있으며 수十만의 애국동포들을 검거투옥하고있다。 남반부 인민들은 잔인한 사형리 리승만도배들에 의하여 피의 바다속에서 신음하고있다。 천하의 악법 소위「국가보안법」은 리승만도배의 잔인한 실제적 도살정책을 보다더 혹심한데로 이끄는「법률」로 되어있다。 빈궁 기아 실업은 전인민을 주검의 구렁으로 몰아넣고있다。 실로 남반부는 무법천지요、참담한 인민도살장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원쑤들의 반동탄압이 악랄하면 악랄할수록 남반부인민들의 민주력량은 더욱 강대하여졌다。 원쑤들의 학살과 테로는 학살자에 대한 인민대중의 분노와 증오를 더욱 폭발시키고 인민들의 투쟁의지를 더욱 앙양시켰다。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며 자유와 통일독립을 갈망하는 애국적 인물에게는 재차 식민지화하려는 여하한 채쭉과 명에도、기만과 폭압도 소용이 없었다。 남반부인민들은 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정치적 자각이 더욱 높아지고 그 단결력이 더욱 강고하여졌다。 오늘날 남반부의 민주진영은 실로 거대한 력량으로 장성하여 원쑤들의 진영을 압도하는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남반부의 민주진영은 해방후 四년동안 반동파의 가렬무비한 투쟁속에서 인민대중을 더욱 더욱 자기의 편으로 결속시키였다。 인민대중의 리익과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희생을 무릅쓰고 투쟁하는 민주진영은 수백만의 각계각층 인민들의 동정과 지지를 얻음으로써 강화되어왔다。 인민대중은 날로 가렬하여가는 투쟁에서 민주진영의 애국적 정신과 반동진영의 매국적 범죄를 똑똑히 알게되였다。 자기들의 손으로 조직한 인민위원회가 미제국주의자와 그 앞잡이들에게 탄압될때 인민들은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념원과 리익을 파괴하는자가 바로 반동진영이며 인민위원회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민들과 더불어 끝까지 투쟁하는자가 민주진영임을 볼때 인민들은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념원과 리익을 옹호투쟁하는자가、바로 민주진영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게되었다。

모쓰크바三국외상회의결정이 발표되자 민주 대 반동의 투쟁은 실로 치렬하였었다。 조국의 통일과 민주독립을 보장할 이 정당한 결정을 누가 인민과 더불어 지지하였으며 그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는가? 이것은 두말할것없이 민주진영이였었다。 민주진영은 이 결정의 실천을 위하여 개최되었던 두차례의 쏘미공동위원회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인민의 지지를 쟁취하였으며 인민들속에 자기의 뿌리를 튼튼하게 박았다。 一九四七년 七월二十七일 二백여만의 인민대중이 미제와 그 주구들의 테로탄압을 박차고 남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주최로써 진행된 쏘미공동위원회경축대회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동년 六월 리승만도당의 소위 반탁시위에는 단二백명의 테로단원만이 발악하였었다。 이 두 광경을 대비하여 회상할때 남반부의 민주력량이 그때 벌써 얼마나 거대하게 발전하였는가를 알수있다。

十월인민항쟁과 三·二二총파업을 거쳐 二·七구국항쟁시기에 이르러서는 실제에 있어 인민들이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투쟁에 동원되려면 자기의 생명을 적의 총검 앞에 내놓지않고는 아니되게 되었다。 그러나 남조선 로동자들의 총파업을 선두로하여 二·七구국투쟁이 일어나자 농민、학생、소시민등 수백만의 인민대중이 이 투쟁에 참가하였다。 수천의 무고한 애국동포들이 반동의 악독한 총칼에 쓰러졌다。 이같은 탄압이 혹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민대중들은 민주진영의 호소에 호응하여、망국적「五·十단선」을 반대하는 투쟁에 궐기하였다。

이러한 수많은 투쟁들을 통하여 반동은 더욱더

옥 고립되고 민주진영은 더욱더욱 장성되었다。 로동자와 농민의 동맹은 、피로써 굳어지고 남조선민주진영의 핵심세력인 남조선로동당의 주위에는 수백만의 근로대중이 뭉쳤다。

남반부 민주진영의 거대한 력량은 우리인민들의 결정적 승리인 남북조선인민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통일선거에서 다시한번 증명되었다。 테로 학살의 환경속에서도 전유권자의 七七·五二%의 압도적 다수를 참가시키었다。 이것은 남반부민주진영의 위대한 승리이며 그 무진장한 력량을 표명한것이며 새로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굳게한것이다。

오늘날 남반부인민들의 진정한 아들 딸들이 민주진영에 굳게 단결되어 손에 무기를 들고 적을 향하여 용장무비한 유격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유격투쟁이 료원의 화세처럼 나날이 강화되는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절해고도 제주도인민들이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원쑤들의 테로 학살을 반대하여 무장항쟁의 불길을 올린지 벌써 一년반이 되어간다。 그사이 원쑤들은 수만의 소위 국군과 수천의 경찰 테로단을 투입하여 갖은 악랄한 학살 초토의 만행으로 이 투쟁을 「진압」하려 하였지만 원쑤들의 계획은 실패에 돌아갔다。 인민들의 무장항쟁은 남반부 전역을 휩쓸고있다。 날이갈수록 새로운 지역에서 유격대들이 봉기하고 있으며 새로운 전과가 인민들의 아들 딸들의 이름을 빛내고있다。

이것이 곧 남반부민주력량이 거대한 력량으로 자리를 잡고있으며 또한 나날이 가렬하여가는 투쟁을 통하여 그 력량이 더욱더욱 장성되는것을 증명하는것이다。 여하한 테로 학살도 남반부인민들을 민주진영으로부터 떼어낼수 없으며 여하한 모략 선동도 인민들 앞에서 민주진영의 위신을 훼손할수 없다。 테로와 학살에 분격한 인민대중은 자기들의 강력한 무기인 단결로써 민주력량을 철벽같이 굳게하며 자기들의 애국적 정신으로 민주력량을 열화같이 앙양시키고있다。 남반부 민주력량은 단결된 인민대중으로 구축되었으며 앙양된 애국정신으로 관통되어있다。

× × ×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성된 민주력량은 공화국남북에서 진행된 이상의 사실만으로써는 그것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민주력량은 남북인민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통일선거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한데서 더욱 장성되었으며 장성되고있다。 남북에서 각각 장성한 민주력량이 공화국 정부의 수립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되었으며 이 위대한 통일로 인하여 전인민의 력량이 한개의 통일된 민주진영에 단결되었다。

실제에 있어 공화국 남북의 민주진영은 一九四八년 四월에 열리었던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의 성공적 결속으로 인하여 그 통일은 더욱 굳어졌다。 이 련석회의의 호소에 호응하여 남북조선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리승만도배의 공모하에서 강행된 망국적「五·十단선」을 통일된 투쟁으로써 파탄시키었다。 또한 남북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거대한 승리로써 남북조선인민들의 통일적 선거를 진행하였다。 이 통일선거의 결과로써 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자 남북조선인민들은 그 기치밑에서 자기들의 통일을 더욱 강고하게 하였으며 모든 투쟁에 있어 더욱 통일된 방침으로 지도되었다。 이와같이 남북의 민주력량의 통일적 투쟁에 기초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한것은 실로 조선인민의 거족적 갈망의 달성이며 민주력량 자체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온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은 남북인민들의 이와같은 단결을 가장 무서워하며 남북인민들의 통일단결은 원쑤들의 분활식민지화정책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것이다。 왜그러나하면 남북인민의 통일은 조국의 국토통일에 가장 기본적 전제조건이 되는 까닭이며 자기들의 야욕을 달성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며 위협이되는 민주력량이 비약적으로 강화발전되는 까닭이다。

공화국정부의 수립에 의하여 민주진영의 전국적 통일이 성공함에 가장 놀랜자는 미제국주의자들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식민지화 정책을 더 유지하기 위하여 그사이 소위 우익진영의 대동단결이라는 구호밑에서 반동진영을 끌어뫃는 일을 몇번이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지도가 용이하게 성공할수 없는것은 명약관화하다。 사리사욕에 광분하고 정권욕에 미쳐날뛰는 야수같은 무리들이 자기상전의 지시라 할지라도 그것이 용이치 아니할것은 의심할 여지조차 없다。

그러나 남북인민들의 민주력량은 자기들의 단결과 통일을 가일층 강고하게 、가일층 견인하게하는 활동과 투쟁을 계속하였으며 이 투쟁은 또한 거대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것이 곧 조국을 통일시키고 미군을 철퇴시키는 공동적 목표를 가진 전국적 애국세력이 자기들의 조직된 력량을 총집결하여 단일한 민족통일전선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기에 성공한 그것이다。 여기에는 작년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 비하여 十七개의 새로운 정당 사회단체들이 참가하였으며 이 十七개의 정당 사회단체중에는 현재 괴뢰「국회」에 참가한 정당 단체들까지 포함되어있다。 곧 친일과 민족반역자들의 집단이요、미제국주의자의 충실한 주구 매국노들의 소굴인 한국민주당의 후신인 민

주국민당과, 독축국민회의 후신인 국민회를 제외하고는 七十一개의 남북조선 전정당 사회단체들이 참가하였다。

이것은 실로 조선인민들의 위대한 단결이며 민족통일전선의 완전한 성립이다。 공화국 정부수립에 의하여 단결된 민주력량이 수다한 새세력을 더욱 확대 포괄하면서 자기들의 더욱 완전한 조직적 단결과 유기적 통일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민주력량은 일층 강화되고 일층 장성되였으며 이 강화장성에 의한 무진장한 투쟁력량은 원쑤들의 분활식민지화를 위한 모든 시도를 분쇄하고 자기들의 공통한 목표인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인도하가에 넉넉한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전조선인민들 앞에 자기의 력사적 선언서를 발표하고 조국통일의 평화적 방책을 제의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이 평화적 통일방책은 조선인민의 일치한 갈망인것이다。 이것은 살인귀 리승만도배가 자기 상전의 무기로써 내란을 도발하여 동족상쟁의 대범죄를 획책하고있는 이때 인민들의 념원과 의사를 완전히 대표한것이며 민족적 리익에 절실하게 부합된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조국통일방책은 민족의 자주적 원칙위에 튼튼하게 서있으며 민주주의적 토대위에서 공화국북반부에서 실시된 제반민주개혁을 전조선적으로 실시하는 토대위에서 조국통일을 완성하는것을 기본조건으로 하고있다。 이것을 떠나서는 통일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 민주력량은 이러한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여왔으며 인민들은 이것을 위하여 자기들의 귀중한 피를 흘려온것이다。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방대한 국제민주 진영의 성원이 보다 힘있게 조선인민들을 고무하고 있다。 조선인민을 해방시켰으며 국제적 평화, 약소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하는 쏘베트동맹이 우리의 선두에 서 있으며 반동 장개석국민당정부를 타도 분쇄하는 혁혁한 중국인민해방군의 승리, 인민민주주의 국가인민들과 평화애호인민들의 새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옹호 운동은 조선인민들의 민주력량에 몇배 더되는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기때문에 반동매국노들의 패망은 조선인민들의 거센 민주력량 앞에서만 무릎을 꿇게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반동진영의 몰락을 더욱 촉진시키는것이다。

국제민주력량과의 굳은 련결밑에 단결되고 장성된 조선인민들의 민주력량은 조국의 민족적 독립과 민주주의적 발전과 긴밀하게 결부된 조국통일을 기어코 쟁취하고야 말것이다。 조선인민들은 우리민족의 령도자 김일성수상 주위에 튼튼하게 집결하여 조국통일을 반드시 승리에로 인도할것이다。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통일의 승리를 쟁취할수있을만큼 민주력량은 장성되였으며 반드시 조국통일을 쟁취하고야 말것이다。

참 고 자 료

맑쓰—레닌주의 자습당원방조에 관하여

스·노비꼬브

맑쓰—레닌주의 리론의 연구는 우리당 간부와 쏘베트 간부들에게 있어서 또한 쏘베트동맹의 인테리겐챠들에게 있어서 긴요하며 불가결의 사업이다。우리간부들은 자기의 사상—정치적 훈련과 맑쓰주의리론에 대한 준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맑쓰—엥겔쓰—레닌—쓰딸린의 저서에 대한 자습을 열성적으로 부단히 진행하고 있다。

공산주의 리론을 자습하는 당원수는 매년 증가되고 있다。一九四九년에는 五十만 이상의 당원과 각계 각층의 비당원 인테리겐챠들이 맑쓰—레닌주의 리론을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우리당 간부와 쏘베트의 인테리겐챠들이 맑쓰—레닌주의 학설을 소유하는 기본적 방법은 볼쉐위크당의 력사와 리론을 독자적으로 연구함에 있다。

一九三八년 十一월 十四일부의 「전동맹공산당 (볼쉐위크) 력사」의 출판과 관련된 당 선전사업 조직에 관한 전동맹공산당 (볼쉐위크) 중앙위원회의 결정에는 간부를 맑쓰—레닌주의로 교육하는 기본 방법은 로숙한 볼쉐위크들의 경험에서 실험된 방법 즉 볼쉐위크당 력사와 리론의 자습의 방법이라야 하며 여기에 있어서 당은 간부들의 학습과정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그들에게 신문 및 집약적으로 세련된 해설을 통하여 또한 강연보고를 통하여 방조를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동맹공산당 (볼쉐위크) 중앙위원회의 이 결정은 또한 전체 공산당원을 학습반에 망라시키려는 방법을 비난하였다。즉 「실제에 있어서 맑쓰—레닌주의의 학습방법의 주되며 기본적인 것은 자습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학습반에서만이 맑쓰—레닌주의를 배울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유해한 편견을 반드시 배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전체 공산당원들이 서적을 독자적으로 연구할수는 물론 없다。전쟁시기와 전후시기에 있어서 당대렬은 현저히 장성되였다。

최근에 입당한 다수 당원들은 아직도 요구되는 정치지식과 서적을 독자적으로 연구하는 습관을 소유하지 못하였다。때문에 그들을 위하여서는 최소한도의 정치지식을 주는 당학교와 볼쉐위크당사 학습반이 조직된다。

이러한 또는 저러한 당교양의 형식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원들과의 개별적 담화가 있은 후에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 특수성、정치적 준비정도、자습능력、사회적 정치적 활동경험을 고려한 후에 결정하여야 한다。학습형식에 있어서 당원들에 대한 일률적인 취급은 당교양 조직사업에 다만 해독을 줄 뿐이다。

정치적 자체교양의 성과는 우선 매개 당원들의 개별적 열성 여하에 달렸으나 또한 당단체로부터의 능숙한 지도 여하에도 크게 관계되는 것이다。대체로 자기의 리론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당원들의 사업이 약하게 진행되는 책임은 완전히 그 당원 자신에게 있다。그러면서 한편 이것은 때때로 당원들의 자습에 대한 당단체의 방조가 좋지못하였다는것을 똑똑히 말하는 것이다。자습사업지모는 당교양의 다른 형식의 지도보다 더 곤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조사업에 있어서 당단체들은 고도의 융통성、주도성 및 열성을 가져야 한다。

서적에 대한 자습이 때때로 학습반사업으로서 대행되고 있다。실례로서 이와노브 시의 와뻰쪼브방적공장에서는 까쉰쩨브동지를 꼰술리딴트(해석자)로 하고 그의 꼰술리따찌(해설)를 十二명의 당자차습당원들이 받게 되었다。이들은 모두가 고급 또는 중급정도의 기술교양을 소유한 동무들이다。까쉰쩨브동무는 매주마다 집단적 「해설 (담화회)」을 조직하고 거기에서 어느 한 자습당원이 자기가 연구한 제목에 대하여 강연을 하게 한다。그리고 다른 동무들은 그에 대하여 토론한다。매일매일의 과업을 강경히 지시하며 출석점、토론점수들을 기입하며 지어는 성적을 五계단 채점법으로 평가까지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까쉰쩨브동무는 사실상 해석자로 된 것이 아니라 학습반 지도자로 되었으며 볼쉐위크당 력사와 리론의 자습자들은 그의 청강생으로 되고 말았다。

일부 당단체들에서는 당원들에게 개별적 학습계획을 작성케하는 대신에 몇개의 맑쓰—레닌주의의 고전적 저서들에 대한 연구기한을 월일 까지 몽롱하게 지시한다。실례로는 지나간 년도에 있어서 이와노브 시당과 우핌스크 시당 선전선동부가 이렇게 하였던 것이다。이와같은 리론자습사업에 대한 일률적 지도는 잔 겨정으로 되며 사업에 해독을 준다。

자습방법은 매개 당원들에게 자기의 준비정도 및 개인적 능력에 따라서 필요한 저서의 임의의 부분을 학습함을 용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탁월한 것이다. 일부 지방에서는 리론자습당원들의 자습사업 보고를 당회의에 제출케 한다. 이와 같은 검열방법을 실례로써 끼르끼스 쏘베트공화국의 딸라스주 농산부의 초급당 단체에서 실시하였던 것이다. 즉 거기에서는 맑쓰—레닌주의 리론의 자습에 대한 어떠한 방조도 주지않고 다만 매 당회의에서는 一명 내지 二명의 당원들에게서 그의 자습사업보고를 청취한다. 그러나 볼쉐위크당 중앙위원회는 이미 一九三八년에 「맑쓰—레닌의 저서의 매개목자들을」 통제하며 「읽은 것을 의무적으로 보고케 하는 관료주의적이며 유해한 방법」에 대한 비판을 가하였다.

정치적 자체교양 지도의 실제에서 당단체 지도자들과 자습당원들과의 담화는 큰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다수 경우에 있어서 이 담화는 형식적 성질을 띠게 되며 당원들에 대한 조잡한 질문으로 화하고 만다. 이러한 실례로서는 야로슬라브주의 일부 구역당 지도자들이 많은 자습당원들을 불러놓고 한사람과 담화할 동안 다른 사람들은 자기 순번이 올때까지 지루하게 참으면서 기다리게 하는 사실등이다. 이런 종류의 「담화」는 다만 당원들의 열의를 랭각시킬 뿐이다.

검열은 자습당원들에게 대한 계통적 방조와 련결되었을때 비로소 효과를 가진다. 볼쉐위크당 중앙위원회의 「야로슬라브주당 단체에서의 당교양정황과 그의 개선 대책에 관한」 결정에서 중앙위원회는 야로슬라브주당에 대하여 제외하기를 「이 사업에서 형식적 보고를 피하고 해설, 특별히 개별적 리론 담화, 독서, 연구발표 검토와 같은 적당한 방조 및 검열형식을 광범히 리용하면서 실질적인 학습검열을 보장함으로써 맑쓰—레닌주의 리론을 자습하는 당원들의 사업에 대한 검열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수 당위원회들은 자습당원들에게 어떠한 절차로 저서들을 학습하며, 어떻게 그를 요구하며, 읽은 저서를 어떻게 요약하며, 연구한 자료를 어떻게 튼튼히 기억하는가 하는 조언들을 제때에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은 자습당원들로 조직된 회의를 소집하고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어떻게 저서를 요약할 것인가」 「연구발표사업에 대하여」 등의 제목으로서 보고를 한다.

개별적 및 집단적으로 되는 해설, 쎄미나르, 연구발표검토, 리론담화 및 연구제목에 대한 보충적 강연들은 자습당원들에 대한 방조조직에 있어서 큰 자리를 차지한다.

자습당원들에 대한 이와 같은 방조형식은 모쓰크바 당단체에 있어서 광범히 보급되고 있다. 쓰딸린 자동차공장, 「낫과 망치」 공장, 기타 많은 공장들에서 준비된 해설을 주며 리론 담화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서적연구에 있어서의 당원들의 경험교환이 조직된다. 여기에서 당도서실은 해석자와 자습당원들에게 커다란 리론적 및 방법적 방조를 준다.

× × ×

맑쓰—레닌주의 리론의 연구성과는 이러한 또는 저러한 당원들이 자기연구를 집중할 제목을 정당하게 선택하는데 의하여 많이 결정된다. 연구제목은 당원들 자신이 선택하여야 한다. 이 선택이 우연적이 되지 않는것이 극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하여 당위원회나 당지도부는 당원들의 의향, 그의 준비정도, 사업성격을 고려하면서 그가 연구제목을 선택하는 것을 방조하여야 한다. 연구제목 선택에서 아무렇게나 한다면 그러한 동무는 곤난을 느끼게 되며 결국 서적에 대한 자체연구를 포기하게 된다. 폴리묘브의 브·므·몰로또브 자동차공장 직장당단체 지도부는 작년도에 백명의 당원들과 담화를 하였다. 이 담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또는 저러한 당원들이 사회과학의 어떠한 부면을 연구하기를 희망하는가가 명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매개당원들의 준비정도를 아는 지도부일군들은 혹은 그들의 희망에 동의하였으며 혹은 다른 제목을 선택하게끔 충고를 주었다. 이러한 방법으로써 매개 당원들이 연구제목을 옳게 결정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이 방면에 있어서의 진지하고 방대한 사업을 작년도에 모쓰크바주 뿌쉬낀구역당에서 수행하였다. 여기에서 담화의 방법으로서 도시와 농촌의 당열성자와 구역내의 인테리겐차중에서 우수한 약八백명의 당원들이 자습을 희망한다는 것이 확정되었다. 그들은 모두다 중등 및 중등기술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필하고 자습의 경험을 소지한 동무들이었다. 전체 자습당원들은 해석자들에게 분담되었다. 결과에 구역에는 六十五개의 맑쓰—레닌주의리론 자습반이 조직되었다. 그중 다수인 三十二개반은 볼쉐위크당사를 그 기본연구를 겸하여 학습하며, 十八개반은 볼쉐위크당사, 六개반은 철학, 그리고 九개반은 정치경제학을 학습하게 되었다. 연구제목이 결정된 뒤에는 매개 당원들에게 반드시 개인 학습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 리유는 경험한바에 의하면 이러한 계획은 자습소직을 방조하며 자체검열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에 대해서 기본연구를 겸하여 당사를 자습하는 빠라낀동무(구이비쉐브)는 말하기를 「부분적 저작들을 연구하기 위한 개인계획는 나에게 큰 학습

상 망조를 준다。개인계획에서 나는 서적의 매장을 읽는데 몇시간이、소비되며 어느시간에 보충적 저서들을 읽고 그것을 요약하여야 하는가를 예견한다。나의 개인계획이 그대로 실행된다고는 말할수 없다。그러나 그는 온갖 경우에서 나를 훈련하며 지정된 기한내에 저작을 연구하는 책임성을 제고시킨다」고 하였다。

개인계획에는 그 년도내에 읽으라고 소개된 전체 저작들에 대하여 학습시간을 배당하며 연구발표준비 기한을 설정한다。

해석자는 당원들의 개인자습계획을 작성하는데 방조하여야 하며 소개된 책중에서 어느것이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며 강령의 어느 부분이 용이하고 어느 부분이 곤난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쏠라또우또브스크의 제四직업학교의 당단체의 해석자인 체르노브동무는 자기반의 매개당원들의 정치적 및 사회적 교양의 준비정도를 리해하고 어떻게 읽는 저서를 소화하며 어느때에 그가 다 읽은 저서를 요약하여 보고를 작성하며 제출하여야 하는가를 명시하여 주었다。그런 다음에는 이 해석자는 개인계획을 보고 잘 준비된 당원에게는 이러한 또는 저러한 저작을 학습하는 기한을 단축할 것을 권고하였다。해석자는 넓은 시야를 소유하며 박학이 되어야 한다。그에게는 연구제목에 대한 기본적 리해가 요구된다。이는 자습당원들이 여러가지 맑쓰—레닌주의의 고전적 저작들을 학습하며 그들에게는 아주 다양한 의문이 발생되기 때문이다。물론 이러한 요구에 적응한 해석자를 선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그러나 경험에 의하여 본다면 다수당위원회는 아직도 이 문제에 관하여서 자기의 온갖 가능성을 전부 다 리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역시 끌리꼬브주당단체에서도 고등교육을 받은 혹은 고등교육을 종료하지 못한 三명의 당원만이 선전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불로고드당단체에는 선전사업에 다만 고등교육을 받은 당원의 一○%만이 리용되고 있다。

자습당원들에게 있어서 서적의 기본적 내용을 즉시로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그렇기 때문에 해석자들은 첫 순서로서 당원들이 서적의 기본내용을 인식하게끔 방조하여 주며 그 저작의 저술된 시기와 그 시기에 있어서 전개된 정치투쟁의 주요한 방향을 리해시키며 학습제목에 대한 보충적 서적들을 지적하여 주어야 한다。

서적이나 제목의 연구과정에서 자습당원들은 연구자료의 요점에 대하여 해석자들과 담화한다。해석자는 서적의 개별적 요지들을 어떻게 소화하는가、개요를 어떻게 검토하는 가를 설명하여 주며 사전、백과사전、맑쓰—레닌주의의 고전적 저작들에 대한 편람(便覽)을 어떻게 리용하는가에

대한 조언을 준다。최후의 담화에 있어서는 서적이나 제목의 근본적 요지를 정확하게 섭취하였는가 못하였는가를 해석자는 검토한다。만약에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소화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서한번 그 문제에 대한 자료를 읽고 독자적으로 그에 대한 개요를 작성하게끔 해석자는 권고한다。

습득한 지식을 공고화시키기 위하여 연구발표회를 조직하는 것이 유익하며 즉 자습당원들이 연구한 저작이나 제목의 기본적 개념을 문서로 작성하여 진술케 한다。당교양에 있어서 연구발표의 의의는 거대하다。당원들은 매일과 같이 대중속에서 사업하며 근로자들속에서 해설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때문에 그는 보고할줄 알며、정치적 담화를 실시할줄 알며、신문에 론설을 쓸줄 알아야 한다。연구발표조직은 이러한 능력을 조성함을 촉진한다。

연구발표 원고를 쓰기 위하여 불피코 지적된 제목에 대한 문헌들을 연구하며 숫자적이며 구체적 자료들을 발췌하여야 한다。연구 발표조직은 지식을 확고히 하며、내용을 문서로 쓰며、구두로 진술하는 습관을 준다。모·이·갈리닌은「만약 당신들이 맑쓰—레닌주의를·리해하며 그 리론을 소유하려고 희망한다면 자체학습의 기초 위에서의 연구발표 및 토론은 당신들에게 거대한 리익을 가져올 것이다」(「공산주의적 교양에 관하여」一九四七년판 三八페지)라고 말하였다。

해석자는 연구발표에 대한 사업을 지도하여야 한다。연구발표제목의 채용은 적지않게 중요한 문제이다。제목의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연구 발표할 사람의 준비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만약 당원에게 절대로서 브·이·레닌의 저서「무엇을 할까」에 대하여 전체의 연구발표원고를 쓰기가 곤난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제때에 그에게 브·이·레닌이 그 저서에서 연구한 제목중의 어느하나에 대하여 즉 말한다면「프로레타리아혁명루쟁에 있어서 혁명적 리론의 의의에 관하여」와 같은 것을 연구발표 원고로 쓸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제목이 선정되었을 때는 해설을 받은 연구발표 강령과 그가 리용하려고 생각하는 참고서적 목록을 작성한다。해석자는 강령과 참고서 목록을 검열하고 만일 필요하다면 변경 시정 또는 보충할것을 권고한다。서면으로 작성된 연구발표 원고는 해석자가 다시금 검토하고 오유、등한히 된 점、읽기 어려운 문장들을 지적한다。

이러한 해석자는 자습당원들에게 큰 방조로 된다。이와같은 실례를 들어 보자。뽀뽀브동무(보로비취「전기 신호기」공장)의 레닌의 저서「"인민의 벗"이란 무엇인가 그들은 어떻게 사회민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가?」에 대한 연구발표는

지적에 따라서 포포브동무는 브·이·레닌의 다른 몇 개의 저서들을 보충적으로 읽고 많은 정정과 보충을 하였기 때문에 연구발표는 훨씬 좋아졌다。맑쓰—레닌주의를 실생활에 적용시키는데 숙련되는 것은 자습당원들에게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바로 상기 공장의 주임기사 플라호트낀동무는 사회주의적 정치경제학을 자습하는 동무인데「새 쓰딸린적 五개년 계획에 있어서의 과학과 기술」이란 연구발표를 하였다。이 연구발표에서 그는 자기 공장사업을 분석하였으며 가치있는 결론과 제의를 내어 놓았다。이것은 공장전체의 연구제목으로 되였다。끄바쏘브동무는「생산의 문화성(文化性)과 공장제품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쟁」이란 자기의 연구발표에서 당단체가 실시하는 교양사업과 조직사업의 의의를 지적하였으며 공장의 유체자재들을 발로(發露)시켰다。

준비된 연구발표원고는 사전에 토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또한 그들은 강연원고와 별개로 연구제목(중심적 문제)에 대한 강령과 참고서 목록을 소유하여야 한다。

× × ×

출판물을 통한 지도사업은 맑쓰—레닌주의 자습당원들에게 큰 방조로 된다。최근의 야로슬라브당단체의 당교양사업에 관한 결정에서 볼쉐위크당 중앙위원회는 출판물에 선전원들에게와 간부들의 정치적 자체교양에 방조를 주는 리론적 론설 및 해설을 규칙적으로 발표할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당교양사업에서의 옳은 경험을 일반화하는 일을 강화하라고 과제를 주었다。

공화국 신문들과 주(州)신문들은 다수 경우에 있어서 볼쉐위즘의 력사와 리론을 학습하는 당원들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다만 생활하는 때에 에피소트적으로 선전적 론문을 게재한다。이러한 결점은 퇴치하여야 한다。지방신문 및 잡지에 선전적 론문을 발표하기 위한 제목별 계획뿐만 아니라 월일별 계획까지도 작성하여야 한다。

강연사업도 역시 볼쉐위즘의 리론과 력사를 자습하는 당원들에 대한 방조체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전동맹공산당(볼쉐위크) 력사」출판과 관련한 당선전조직에 관한 결정서에서 당중앙위원회는 중요한 방법으로 강연사업을 실시할것을 제시하였다。결정에서 말하기를「잘 준비되고 내용이 풍부한 강연은 반드시「전동맹공산당(볼쉐위크) 력사」와 맑쓰—레닌주의의 고전적 저작들을 연구하는 자습당원들에게 거대한 방조로 되는 것이다。또한 국제정세문제 및 부문적인 리론적 정치적 문제에 대한 강연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강연이 끝난 후에 강사는 제기된 질문에 대하여 대답

을 주는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강연은 자습당원들에게 맑쓰—레닌주의의 고전적 저작들의 기본내용을 해명하며 당원들이 읽어야 할 문헌들을 소화하는것을 용이케 하여야 한다。

강연은 리론을 실천에 적용한 실례들을 주며 그럼으로써 맑쓰—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섭취하는데 방조하여야 한다。꾸이비쉐브의 지방건설부의 기사인 고삔꼬동무는 말하기를「브·이·레닌 및 쓰딸린의 이러한 또는 저러한 저서를 학습하기 전에 우선 그 문제에 대한 당교양실 강연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그러나 강연을 듣기 전에 보통 나는 그 문제에 대한 저서를 읽는다。그리고 강연을 들으면서 요지를 간단히 필기하려고 노력한다。그리하여 강연은 나의 리론의 성과적 연구를 크게 도와준다。

강연을 들은 후에는 자신있게 그 저서의 세밀한 연구를 시작한다。즉 발췌를 하며 저서의 내용을 필기하며 보충적 참고서들을 읽는다。자료를 연구한 다음에는 개요를 작성한다」고 하였다。

선전사업의 실제에 있어서「전동맹공산당(볼쉐위크)력사」、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에 대한 그리고 정치경제학에 대한 또한 대외정책 국제관계에 대한 보충적 리론강연들은 튼튼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이 전체 제목에 대한 청강권을 발행한 모쓰크바、레닌그라드、꾸이비쉐브、스또브당단체들의 경험은 보급시킬만한 가치가 있다。청강권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은 청강자들 중에서 핵심이 되며 정식 성원으로 된다。매년 당원들의 일부는 강령의 첫 반부를 학습하며 다른 부분은 둘째번 반부를 학습한다。그렇기 때문에 매 제목마다 二개 내지 어떤 때에는 三개의 보충적 리론강연을 조직하여야 한다。일련의 보충강연들은 당사의 十월혁명전 시기를 취급하며 다른 보충강연들은 十월혁명후 시기를 취급한다。또한 한편에서 보충강연들이 자본주의의 정치경제학을 취급한다면 다른 보충강연들은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을 취급한다。

당간부 및 쏘베트간부를 위하여 큰 당단체의 위원회、구역당、시당들에서 조직되는 쎄미나르는「전동맹공산당(볼쉐위크)력사」、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 및 정치경제학을 자습하는 당원들에게 거대한 방조를 준다。쎄미나르의 사업은 례를 들면 다음과 같이 조직된다。즉 매 제목에 대한 강연을 한다음 참고서적을 소개하며 보고제목과 토론자들을 위하여 중심적 문제를 지적하여 준다。다음번 쎄미나르에서 보고를 토의한다。지도자는 쎄미나르의 총화를 지어주며 보고와 토론에 대한 평가를 주며 약하게 연구한 문제를 보충설명하며 보고와 토론에서 나타난 오유들을 시정한다。그런 다음에 다음번 쎄미나르에서 연구할 제목에 대한

강연을 준다.

일부 당단체에서는 쎄미나르가 강의사업으로 화하며 또는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자나 후자나 다 자습을 돕지 못한다.

가뜨친 시당은 쎄미나르를 성과적으로 조직하였다. 거기에서 「공산당선언은 공산주의의 강령적 문헌이다」라는 제목하에 쎄미나르를 조직한 일이 있다. 쎄미나르 참가자들은 이미 「공산당 선언」에 대한 강연을 두번 들었으며 「공산당 선언」이 작성된 시기의 력사적 환경이란 제목의 강연을 한번 들었다. 쎄미나르의 제목을 준비하면서 쎄미나르 참가자의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맑쓰—레닌주의의 고전적 저서들을 연구하였다. 즉 맑쓰—엥겔쓰의 「공산당 선언」, 베제메이에르에게 보내는 맑쓰의 서한 「맑쓰주의의 三대원천과 三대구성부분」, 「칼·맑쓰학설의 력사적 운명」 및 브·이·레닌의 「구라파합중국의 구호에 관하여」와 이·브·쓰딸린의 「레닌주의의 기본에 대하여」, 「무정부주의냐 사회주의냐?」—이상의 저서들을 연구하였던 것이다.

쎄미나르에는 맑쓰—레닌주의 기본을 자습하는 六十명당원들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주로 초급당단체 비서, 기업소 및 기관의 지도자, 시당위원회 일군, 시 공청 일군, 교원, 기자들이었다.

시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쎄미나르 참가자들에게 해설를 주었으며 그들에게 지시를 주었다. 당도서실들에는 「쏘련에서의 「공산당 선언」의 사상의 실현」이라고 제목한 사진 전시(展示)와 도서전시가 준비되었다. 이 모든것이 쎄미나르 참가자들로 하여금 제목에 대하여 심각히 연구하며 흥미있고 풍부한 토론을 준비하는데 방조를 주었다.

쎄미나르와 병행하여 리론담화가 널리 보급되었다. 제목에 대한 연구과정에서 자습당원들에게는 수다한 의문이 발생된다. 경험있는 지도자의 지도밑에 조직되는 리론담화는 이러한 의문을 해결함에 도움을 준다. 모쓰크바 레닌그라드의 경험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리론담화는 당자습반이 어떠한 저서나 제목에 대한 연구가 끝난 후에 조직하는 것이 적절하다. 리론담화는 저서의 깊은 습득을 촉진하며 습득한 것을 확고히 하며 이에 참가한 당원에게 리론적 문제에 관한 독자적 출연을 하는 습관을 준다.

동시에 이러한 담화는 얼마나 자료를 진지하게 연구하였는가를 표시한다. 리론담화는 급히 조직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는 사전에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해석자는 담화에 참가하는 동무들이 연구발표할 제목을 선택하며 중심적 문제를 지적하며 토론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반드시 도와주어야 한다.

꾸이비쉐브 지질연구소 기사 제벤꼬바 동무는 자

습당원 해석자인데 그는 말하기를 「우리반(班)이 브·이·레닌의 저서 「一보전진 二보퇴각」을 연구한 후에 우리들은 이 저서에 관한 리론담화를 조직하였다. 그것은 극히 열성적으로 진행되었다. 이틀밤동안 여러 연구발표와 토론을 들었다. 토론자들은 二차당대회와 대회 후의 볼쉐위크와 멘쉐위크간의 투쟁에 관한 문제들을 깊이 해명하였다. 담화는 지식을 확고히 하였다」라고 하였다.

어떻게 담화를 조직하면 안되는가 하는데 대하여 실례로써 브로네쥐주(州)의 노브호쁘르구(區) 철도 분기소(分岐所) 당 도서실을 든다. 철도의 다수 당원들은 당력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그 기본을 겸하여 자습하려는 희망을 표시하였다. 철도 분기소의 당도서실은 당원들의 준비정도를 고려함이 없이 전체 자습당원들에게 의무적인 공통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면 十一—十二일 마다 어느한 저서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되어 있고 같은 날에 전에 읽은 서적에 대한 리론담화를 조직하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공산당 선언」에 대한 강연이 있었고 그후 二주일을 지나서 이 문제에 대한 담화를 조직하였으며 또 다른 저서에 대한 강연을 주었다. 이와 같이 조급히 하여서는 아무 효과도 얻지 못할 것은 물론이다.

녀도막에는 맑쓰—레닌주의 리론의 자습사업 총화를 지어야 한다. 이때에는 몇개의 맑쓰—레닌주의의 고전적 저서에 대한 二—三회의 리론담화를 조직하여야 한다. 자습당원들의 사업총화를 위하여 연구발표회도 할 수 있다.

자습당원 방조 조직에 있어서 당도서실의 역할은 실로 크다. 당도서실의 중요한 과업은 맑쓰—레닌주의 리론을 연구하는 당원들의 학습에 대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방조하는데 있다.

당도서실에서는 리론적 및 방법적 문제에 대한 해설이 조직되어야 하며 제목별로 정돈된 문헌들과 교수참고서 및 도표들이 있어야 하며 맑쓰—레닌주의 기본적 저서에 대하여 간명한 주해를 기입한 도서목록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또는 저러한 문제를 습득함에 방조하는 신문과 잡지의 개별적 문제에 대한 론설 숫자 및 구체적 자료들이 선발 분류되어 있어야 한다. 다수 당도서실에는 「어떻게 자습할 것인가」하는 게시관이 있으며 거기에는 브·이·레닌이 서적연구를 여하히 하였는가를 표시하는 그가 작성한 개요의 사진복사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 게시판에 그 기업소 그 구역의 자습당원들이 작성한 가장 우수한 개요 및 강연원고가 제시되어 있다면 더욱 좋다.

당도서실의 해석자들은 학습하는 당원들에게 카—

크편람사전 및 백과사전등을 리용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당도서실은 맑쓰—레닌주의 리론을 자습하는 당원들에게 방조를 주는 과정에서 당단체들이 축적된 거대한 경험들을 반드시 연구하며 보급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간부들의 맑쓰—레닌주의적 교양을 더 일층 높은 계단에까지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 × ×

맑쓰—레닌주의리론 자습당원들에게 대한 온갖 방조체계는 당과 쏘베트간부 및 쏘련인테리겐차들의 볼쉐위즘 리론과 력사에 대한 깊은 연구를 촉진할 것이다. 저서연구에서 주되는 것은 맑쓰—레닌주의의 고전적 로작들에 포함된 내용과 요지를 심각히 소화하는데 있다. 레닌은 「만약에 공산주의의 연구가 다만 공산주의적 로작서적 및 팜프렛트에 서술된 것을 습득하는데만 있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독경자나 거만한 자로 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해독과 손실을 끊임없이 많이 가져 올 것이다. 왜그러냐하면 공산주의적 서적 팜프렛트를 배웠으며 읽기만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 모든 지식을 련결시킬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이며 공산주의가 진정히 요구하는 것과 같이 행동할줄 모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었다. (전집三○권 四○四페지)

맑쓰—레닌주의는 행동에 대한 전투적 지침이며 그것은 실천적으로 소유하여야 하며 그럼으로써 맑쓰—레닌주의의 리론을 공산주의사회건설의 실제적 문제들 해결함에 적용시킬줄을 배워야 한다. (「볼쉐위크」지 一九四九년 제九호)

제국주의에 대한 저작에 있어서의 개량주의적 경향을 반대하여

예·바르가

나의 저서 「제二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자본주의 경제에 발생한 제 변화」와 또한 세계경제와 세계정치연구소에서 전후 출판된 수많은 이전 저작들은—이 저작들에 대하여서는 그 연구소의 지도자로서 나에게 책임이 있다—주지하는 바와같이 당 출판물과 학술토론들에서 준렬한 비판을 받았다. 이 비판은 필요한 것이었으며 또한 정당한 것이었다. 나의 과오는 다른 동지들이 한것처럼 이 비판의 정당함을 내가 처음부터 인정하지 아니한데 있는것이다. 그러나 늦게라도 하는것이 전혀 하지 않는것보다는 나은 것이다.

잘못된 점은 나의 저서에 전반적으로 과오가 나타난데 있는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오들의 성격에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二차대전의 영향과 같은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처음으로 자립적인 연구를 하려고하는 저서에 있어서 과오를 면하기는 곤난하다. 비판자들이 옳게 지적한 바와같이 잘못된 점은 이 과오들이 결국에 있어서 현대 제국주의에 대한 레닌—쓰딸린적 평가로 부터의 관련한 일탈을 의미하는 개량주의적 경향의 과오의 련쇄(連鎖)를 구성하고 있다는데에 있는것이다.

개량주의적 경향의 과오는 또한 세계주의적 경향의 과오를 의미하고, 때문에 그러한 과오들은 자본주의를 치장(致粧)한다는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온갖 개량주의적 과오와 맑쓰—레닌주의 학설의 순결성을 훼손하는 온갖 기도는 최근의 력사적 환경에 있어서는, 특히 위험한 것이다.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의 심각화는 근로자들을 반대하고 공산주의와 그의 성책—쏘베트동맹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부르죠아지들을 더욱더 결정적으로 개량주의자들에게 의거(依據)하게끔 하

였다。모든 부르죠아국가들에 있어서 부르죠아지들과 개량주의적 반역자들간의 긴밀한 협력이 존재하고있다。개량주의자들이 부르죠아지들에게 대하여 어떠한 봉사를 하지않으며 근로자들의 리익에 대한 배반(국제직련분렬기도, 「마샬안」과 「북대서양조약」을 위한 선동, 쏘련에 대한 중상등등)을 감행하지않는 날은 없는것이다。

영국 스칸디나비야제국 오스트리야와 같은 나라들에서는 개량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있다。이것은 부르죠아지가 그들의 계급적 지배를 보위하고 그들의 계급적 리익을 대표할것을 직접적으로 로동계급의 반역자들에게 위임하였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이외의 여러국가들에 있어서는 개량주의자들은 부르죠아 정당들과 함께 련립정부에 참가하고 있으며 회합에 있어서는 심지어 로동자들에 대한 파시스트 교형리(絞刑吏)들 까지도 협력하고 있다)

로동자들을 기만할 목적으로 개량주의자들은 「정권」을 잡음으로써 부르죠아국가를 로동계급의 기구(인스트르멘트)로 전환시키는 것이며 그리고 평화적인 개혁에 의하여 혁명이 없이 사회주의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이러한 위험한 반혁명적 기만은 부르죠아국가의 계급적 성격에 대한 즉 정부의 수반으로는 누가 되든지, 부르죠아지 대신이든 또는 「사회주의자」의 대친이든 관계가 없다는 맑쓰—레닌적 학설을 철저히 지지함으로써 폭로할 수 있으며 청산하여 버릴수 있는 것이다。

유감하게도 나의 저서에서 볼수 있는 부르죠아국가에 관한 개량주의적 경향의 온갖 과오들은(저자의 의향 여하에는 관계할것 없이) 로동계급에대한 반혁명적 개량주의적 기만을 지지하는것이며 또 그럼으로써 부르죠아지를 지지하는것으로 된다는것은 의심할바 없는것이다。

나의 저작에 있는 개량주의적 경향의 과오들은 현하의 시기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제국의 로동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제국의 근로자들에게도 특히 위험한 것으로 된다。이러한 나라들의 수십만명의 사회민주당원인 로동자들과 수백명의 사회민주당의 좌익지도자들은 진정한 혁명적인 공산주의자가 될것을 진심으로 희망하고 개인적으로 공산당에 전당하였으며 또는 집체적으로 공산당과 합당하였다。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교양받은 개량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청산할것과 원칙적인 맑쓰—레닌적 재교양을 요구하는 것이다。수십년간 개량주의적 이데올로기로서 교양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가장 힘든 파업이다。여기에 일정한 시간내에는 개량주의적 경향이 재발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것이다。우리들의 형제적 당들은

개량주의의 이데올로기와의 투쟁에 있어서 쏘베트동맹의 과학일군들의 방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한 바라고있는 것이다。만약에 우리들의 저작에 (나의 저작에서 그러한 것과같이) 개량주의적 경향의 과오가 포함된다면 우리들은 비단 형제적 당들에게 아무런 방조도 주지못할뿐만 아니라 도리어 종전의 사회민주당원이었던—새로운 당원을 재교양하는 그 당들의 중요한 사업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나는 또다시 다음과 같은 것을 강조하려고 한다。

즉 확연한 개량주의적 저서는 이 방면에 있어서 많지않은 손실을 갖고있으며 그의 작용은 적거나 많거나 개량주의적 론법의 오유가 은폐되어 있기때문에 폭로하고 시정하기가 매우 곤난한 나의 저서보다는 적게 무해한것이다。

(주—나의 저서가 항가리어로 출판된후 항가리 근로자당 중앙리론기관지에 나의 저서에 대한 비판론문이 발표되었었는데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쏘련공산당 출판물에 발표된 비판론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여야 할것이다。)

나의 저서에 있는 과오들을 비판하여 밝히는것은 그 과오들이 무엇보다도 현재와 얼마전 시기에 있어서의 부르죠아국가의 역활과 성격의 평가 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부르죠아국가에 대한 평가문제는 반세기 이상되는 기간에 걸쳐 혁명적 맑쓰주의자‖불쉐위크들과 반혁명적 개량주의자들이 격론(激論)한 기본적인 론점(論点)의 하나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맑쓰와 엥겔쓰는 언제든지 또 어데서 든지 즉 「고타 강령비판」에 있어서, 파리 꼼문분석에 있어서,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에 있어서, 「반듀링론」등에 있어서 또한 그들의 여러 서한(書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자본가들의 계급적 지배의 기구로서의 근로자들을 압박하는 도구로서의 부르죠아국가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개량주의자들은 국가에 대한 맑쓰—엥겔쓰의 견해를 은폐하며 묵살하며 의곡하고 있는 것이다。

레닌은 자기의 가장 훌륭한 전투적인 저작의 하나인 「국가와 혁명」을 개량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바치었다。레닌은 서언에서 「국가에 대한 맑쓰와 엥겔쓰의 학설을—이 학설의 망각되었거나 또는 기회주의적 의곡을 당한 부분을 특히 세밀하게 취급하면서 다시한번 연구하여 보자」라고 썼던 것이다。

레닌과 쓰딸린은 맑쓰와 엥겔쓰의 많은 교시(教示)에 근거하여 국가에 대한 학설을 완성하였다。그들은 (레닌—쓰딸린—역자주) 제국주의 시대에 있

어서는 제국주의 제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을 강탈하기 위한 금융과두제(金融寡頭制)의 기구로 된다는것을 특히 강조하였던 것이다。

어찌하여 나의 저서중에 레닌과 쓰딸린이 완성하고 모든 맑쓰주의자들에게 주지되고 있는 국가리론에 어긋나는 전시경제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활문제에 대한 개량주의적 경향의 여러가지 과오가 포함되게 되었는가?

나에게 대한 비판자들이 옳게 지적한 바와같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는 방법론적 착오 즉 자본주의경제에 있어서의 변화를 정치와 관련시키지 않고 「순전한 경제적」인것으로 보려고한것이 이러한 과오가 생기게된 기본적인 발단점인 것이다。

모든 분석 대상으로 되는 현상들은 그의 호상련계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검토할것을 요구하는 맑쓰—레닌주의적 변증법적 방법으로 부터의 일탈은 불가피적으로 개량주의적 과오를 범하게 되지않을수 없는것이다。

경제—이것은 여러 계급간의 관계다。 계급투쟁은 모든 계급사회에 있어서의 정치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된다。 정치—이것은 집중(集中)된 경제다。 만약에 자본주의 경제를 「정치밖에서(政治外)」분석하려 한다면(나와 또한 종전의 세계경제와 세계정치연구소의 다른 여러 저작자들이 한바와같이) 이러한 맑쓰—레닌주의적 방법으로 부터의 일탈은 저작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불가피적으로 개량주의적 경향의 과오를 범하게 되는것이다。

정치를 취급하지 않은것과 계급투쟁의 상호관계 분석을 취급하지 않은 방법론적으로 그릇된것이 불가피하게 전시경제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활에 대한 옳지못한 평가를 하게끔 하였으며 전시경제에 「국가의 결정적 역활」에 대한 옳지못한 단정(斷定)을 하게끔 한것이였다。 만약에 자본주의 전시경제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활을 내가한 바와같이 옳지못하게 「순경제적」으로만 검토할것 같으면 계급적 립장에 서지않는 분석의 대상으로 「국가」에 있어서는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금융과두제가 결정적 역활을 놀지 않는다는 그릇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것이다。 맑쓰—레닌적 계급적인 분석을 할대신에 이와같은 피상적인 조사연구를 함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국가는 전쟁수행을 위하여 개별적인 독점의 리익을 반대하여 나선다는 그릇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부르죠아국가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지적하였던 것이였다。

「국내의 모든 자원을 전쟁목적을 위하여 가장 적절하게 리용하려는 부르죠아국가의 지향(志向)은 항상 개별적인 자본가 기업의 개인적인 리익과 충

돌하였으며 될수있는한 고율의 리윤을 얻으려는 그의 관심과 충돌하였다」(一〇폐지)

로론자들은 이러한 단정은 부르죠아국가의 초(超)계급적 성질을 인정하는 동기를 주는 것이라고 옳게 지적하였던 것이다。

나에게는 부르죠아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부인하려는 의향은 전혀 없었다는 것은 더 말할것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현시의 부르죠아국가를 금융과두제의 국가라고 규정하지않고 부르죠아지의 총체적(總體的)인 조직으로서 규정함으로써 과오를 범하게 되었다는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그릇된 방법론이 자실 자체의 서술은 정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량주의적 경향의 과오를 범하게한것이다。 나는 미국에 있어서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전시경제 관리기관의 고급 직원(職員)의 자리를 대독점의 대표자들이 차지하고 있다는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三〇—三一폐지) 나는 「대독점들은 전쟁시기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특히 전시경제 기관의 사업에 대한 결정적인 세력을 보지하였다。 그들은 이들 기관의 관리에 결정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사실상으로는 그것을 좌우하였다」(三七폐지)라고 썼던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들이 옳게 제시되었다 할찌라도 만약에 그 사실들이 원칙적인 맑쓰—레닌적 방법으로서 하지않고 옳은 변증법적 호상관계를 떠나서 인용된다면 그 사실들이 리론적으로 일반화되지 않는다면 과학적 연구라는 관점으로 볼때에는 그것은 별로 커다란 가치를 못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질 및 이와 류사한 사실들은 맑쓰—레닌적 국가리론에 근거하여 전시에 있어서의 국가기관과 금융과두제와의 결합이 더한층 강화되고 그것이 평상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전시에 있어서도 대독점에게 초고률 리윤을 보장하였다는 증거로서 제시되어야 할것이였다。

나에게 대한 비판자들은 나의 저서에 있는 국가문제에 대한 기타의 중요한 개량주의적 경향에 대하여서도 전적으로 정당한 지적을 하였다。 나의 저서의 三一八폐지에서 다음과같이 말하였다。「국가의 역활은 장래에 있어서도 의연(依然)히 전쟁전 보다 더 한층 커다란 것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국가관리에 더 크게 참가하는가、더 적게 참가하는가 하는 문제가 자본주의 사회의 두개의 거본계급 즉 부르죠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간의 정치투쟁의 주로되는 내용으로 될것이다。 더욱더 강화되고있는 부르죠아사회의 량극화작용(兩極化作用) 그 사회의 두개의 기본적인 적대계급에로의 분렬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비중을 높일것이다。」

개량주의자는 좋아하면서 이 구절을 승인할것이 다。이 구절은 二차대전 종료직후에 구라파의 다대수의 국가들에 있어서—비단 인민민주주의 제국뿐만 아니라 불란서, 이태리, 분란등에 있어서도—공산당원들이 정부에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인상(印象)을 얻고 쓴것이였다。이 구절은 파시스트 점령군을 반대하는 항쟁운동의 중심이였던 그 국가들의 공산당원들이 대중속에 가지고 있는 그들의 영향을 리용하여 가지고 정부내에 있어서의 그들의 립장을 보지할수 있으며 그것을 부르죠아지와의 투쟁에 있어서 확대하고 국가주권을 쟁취할 것이라는 기대밑에 쓴 것이였다。

이러한 사고행정(思考行程)은 국가기구는 의연히 부르죠아적인채로 남아 있으며 강압기구(군대, 경찰, 헌병)는 종전대로 남아있다는 결정적인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었다。부르죠아국가의 정부에 참가한 공산당원들이 부르죠아지를 반대하여 프로레타리아트의 리익을 결정적으로 옹호(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변화시키는것—)하려고 기도하였을때에 그들은 모든 부르죠아정부로 부터 제거되였던 것이다。이것은 영 미점령당국이 이와같은 투쟁을 예견하고 불란서 이태리등에 있어서의 공산당원들이 령도하는 항쟁운동을 무장해제시켰으며 그 전투적 편합을 해산시키고, 반동들이 공산당원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을 그들의 군대로서 지지하였기 때문에 근로인민들의 공산당원에게 대한 대중적인 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인민민주주의 제국에 있어서는 이와반대의 행정이 시작되였다。거게서는 쏘베트동맹의 지원(支援)하에 근로자들이 무기와 국가주권을 보지하였으며 자산계급의 대표들은 그들이 인민들의 지지를 상실하는 정도에 따라 정부로 부터 제거되여갔다。

전후 시기에 구라파에서 발생한 사변들은 국가주권문제는 계급들의 력량의 호상관계의 문제인것(이며 그것은 오직 계급투쟁에 있어서만 해결될수 있다」고하는 맑쓰—레닌주의 국가리론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새로운 명료한 실증인 것이다。

유감한 일이지만 一九四七년 위대한 사회주의혁명 三十주년에 제하여 쓴 나의 론문의 하나에도 또한 개량주의적 경향의 과오가 포함되어 있다。

내가 쓴 이 론문에서는 다음과같이 말하고 있다。「자본주의의 고향인 구라파의 부르죠아지는 현재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사회기구는 근본적인 개혁을 필요로 한다는것을 생산의 중요부문의 국유화, 경제에 대한 국가통제, 「경제의 계획화」를 하지않고는 견디어 낼수가 없다는것을 스스로 인정하고있다。」

이러한 테제는 물론 옳지못한 것이다。일부분의 부르죠아지들이 그리고 특히 그들의 앞잡이들, 온갖 종류의 개량주의자들이 오직 로동자들을 기만하기 위하여서 공산당을 반대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반대하여「투쟁하기 위하여서 모든 이러한 소리를 하는것이다。

좀더 령리한 구라파의 자본가들과 특히 그들의 개량주의적인 앞잡이들이 말로만은 자본주의를 사회주의적 방향으로「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것이다。이것은 용이하게 리해할수 있는 것이다。자본주의 경제제도는 三十년간에 구라파를 두번의 세계전쟁에 몰아 넣었으며 이 전쟁들은 수백만의 근로자들의 생명을 희생하고 수십만의 맹인, 불구자, 고아들을 남겼는데 한편 군수품 용달상인들은 무제한으로 리윤을 획득하였던 것이다。자본주의 경제제도는 자기의 수단으로서 강제수용소 민족간의 증오 수백만의 무고한 사람을 몰살시키는 파시스트의 야만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이 사회제도는 날이갈수록 더욱더 명백하게 자기가 살 만큼은 이미 다 살았고 력사적으로도 파멸할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대중들에게 보여 주고 있다。그것은 대중적인 실업자를 산출하게 되였고 또 생산기구를 전적으로 가동(稼動)시키지 못하는 상태를 주기적으로 나타냄에 이르고 있는것이다。나는 나의 저서의 마지막에서 이것을 다음과같이 규정하였다。

「최근 四반세기동안 부르죠아국가들에 있어서 로동을 찾는 사람들이 정말로 로동을 얻은 유일한 기간은 세계대전 시기이였다는 처참한 사실은 의연한 사실인 것이다。오직 수백만의 사람들이 서로 살륙하고 있고 또 다른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이 살륙의 무기를 만들고 있을때에 있어서만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로동자들에게 로동을 줄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의 四반세기동안 자본주의 세계의 생산수단이 전적으로 리용된때는 가장 처참한 인류 공포의 때였다는 사실은 의연히 사실인 것이다」(三一九페지)

이러한 정형하에 있으니 자본가나 또는 자본가의 대변인들이 현재에 있어서는 이러한 근로자들이 증오하는 사회제도를 변함없이 보존할것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는 것은 더 말할것도 없는것이다。사실에 있어서는 현존하는 자본주의적 착취제도를 변경함이 없이 보존하기 위하여 온갖 방책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자본주의의 근본적 개혁 운운의 큰소리를 치는 리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주—나는 여게있어서 파시스트들도 말로서는『반자본주의적』인 데마를 조작하였으며『독일사회주의』운운의 날조를 내걸었다는 것을 상기 시키려고 한다。전반적으로 보아 현재에 있어서는 개량주의자들(실례로 쿨•모크따위의)과 파시스트를 분간하기는 곤난한 것이다)

비판자들이 나의 저서에서 인용한 문제들과 관

련하여 모든 이러한것을 말하지 않는다는것은 커다란 기만이며 개량주의에 복무하는 것으로 된다는 것은 의심할바 없는것이다。레닌이 『국가와 혁명』의 서문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부르죠아지의 세력하로부터 특수적으로는 제국주의적 부르죠아지의 세력하로부터 근로대중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투쟁은 『국가』에 관한 기회주의적 편견과 투쟁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영국의 국유화에 대한 나의 옳지못한 규정도 역시 이러한 경향의 것이다。중요 경제부문의 국유화는 국가자본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는 것이다。따라서 『부르죠아적 국유화도 또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에로의 진행을 의미한다』라고 쓴것은 옳지 못하였던 것이다。(『세계경제와 세계정치』一九四七년 三호 五페지)

여기에 있어서도 또한 오유의 근본은 레이버당 정부를 수반으로 하는 현재의 영국국가의 성격과 인민민주제국의 성격간의 원칙적인 차이를 무시한데 있는 것이다。레이버당이 정권을 잡고있는 영국의 국가는 부르죠아 국가인 것이며 대부르죠아지의 계급적 지배를 보장하는 것을 주로되는 직능으로 하는 독점자본의 국가인 것이다。때때로 신월라 혹은 라스키가 로동자들을 개량주의의 진영에 붙잡아두기 위하여 데마적인 연설을 할것을 결단하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군대、국가의 압박기구는 자본가들의 수중에 충직하게 남아 있으며 근로자들을 반대하는데 리용되고 있는것이다。부르죠아지는 이러함에 있어서 로동귀족에게 그들의 초고률 리윤의 부스러기를 던저주며 정부내의 레이버당원 관료배들을 고액의 봉급으로서 매수하며 또한 얼마전의 "재판사건이 보여주는 바와같이 소소한 뢰물로써 그들을 매수하고 있는 것이다。모든 이러한 것은 영국 부르죠아지들이 쓰는 이미 충분히 시련된 정책인 것이다。

(주ㅡ미국에서도 역시 이러한 광경을 볼수있다。대자본가들의 신문인 "노이에·츄헬·차이퉁" (一九四九년 一월二十一일)에 『신래의 각하들』(新來의閣下)이라는 특징적인 제목하에 미국으로부터 온 통신이 게재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같이 써있다。『최근 몇해 동인에는 워싱톤의「백아관」의 랑하에서 또한 대신들의 초대연에서 더욱 흔히 새로운 형태의 사람들ㅡ직업동맹 지도자들을 만나게 된다。외견상으로는 그들은 미국의 중류(中流) 사업가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실례로 현재에 있어서는 직업동맹지도자들의 수입은 중류사업가들의 수입과 같은것이다。이것은 그대로 그들의 쟁활타이푸에 대하여서도 말할수있는것이다。……

계급투쟁자상은 그들에게는 인연이 없는것으로 되어버렸다。그들은 두발로 대지를 디디고서 있는것이며 그들의 머리만이 구름속에 남아있지 않는것이다。그들의 생각은 그들이 해결하기 위하여 불러워온 그들의 직접적인 과업에 쏠리고 있는것이며 미래에 대한 념원에는 쏠

리고 있지 않다。미국의 직업동맹 지도자들은「그들의」공업과「그들의」경제의 복리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더욱더 크게 느끼고 있는것이다。』

이 기사는 미국의 직업동맹 지도자들이 로동자들과 완전히 절연하고 있으며 부르죠아지와 야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나。광부직맹 지도자인 류이스는 년봉 一〇만 딸라를 받는다。최근까지도 미국대통령의 봉급은 그보다 적었던것이다)。

영국의 대자본가들이 레이버당 정부의 행동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하는것은 『급진과(急進派)』의 주간 잡지인 『뉴스테이트만 앤드 네이손』(一九四九년十一월二六일)에서 인용한 다음의 몇줄의 글이 보여준다。수일전에 아주 만족하고 있는 공업가의 한사람은 정치정세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물론 전쟁 직후에는 우리들은 곤난하였습니다。그러나 현재에는 로동자들은 잘 일하고 있으며 또한 질서 정연합니다。아시는 바와같이 나는 충직한 보수당원이며 또 언제나 그랬던 것입니다。그러나 나는 만약에 현재에 보수당원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데 대하여서 생각하는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방점은 저자)

인민민주주의국가는 이와 반대로 근로자들의 국가인 것이며 그는 전체 근로자들의 리익을 위하여 착취계급을 반대하여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이러한 나라들의 군대와 국가기구는 근로자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착취자들을 반대하는데 리용되고 있다。

국가의 현재와 같은 계급적 성격하에 있어서 영국의 국유화는『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에로의 진행』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다。

종전의 소유자들 즉 대독점가들이 여전히 계속하여 국유화된 경제부문의 관리기관의 수반을 차지하고 있다。그들은 국유화된 경제부문의 회생하에 즉 국가의 회생하에 다른 공업부문의 국유화되지않은 그들의 기업들을 유리한 조건에 두기 위한 방도를 강구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수 없는 것이다。

다액(多額)의 보상은 국유화된 기업의 소유자들에게 종전과 같은 수입을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머지않은 장래에 특히 강력하게 영국을 진동시킬 경제공황이 가져올 결과에 대하여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이다。그들은 조금도 공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심지어 국유화된 공업이 크게 결손을 보고 또 공황이 수많은 개인기업의 파산을 초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들의 수입은 세금납부자들ㅡ이것은 근로자들을 의미한다ㅡ의 회생하에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맑쓰ㅡ레닌주의 국가리론의 불철저한 적용은 직

민지문제의 연구에 있어서도 오유와 부명확성을 가져왔던 것이며 특히 영국과 인도간의 관계의 변경에 대하여 옳지못한 평가를 함에 이르렀다。

인도가 두개의 자치령으로 화(化)한것은 영국과 인도의 지배계급들간의 타협인 것이다。 인도의 부르죠아지는 봉건 지주와의 긴밀한 동맹하에 대영제국의 테두리 안에서 수백만의 로동자와 농민대중들에 대한 자기들의 계급적 지배를 보존하기 위하여 인도의 민족 해방의 대업(大業)을 배반한 것이다。 영국 부르죠아지는 자기의 자본과 인도에서의 기타의 경제적 지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장래에도 인도의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에 참가하기 위하여 점령군의 방조하에 직접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는것을 포기한 것이다。

나는 나의 저서에 있어서 인도와 영국과의 금융적 관계에 대하여서도 옳지 못한 평가를 하였다。 나는「인도가 영국의 채무자로 부터 채권자로 변한것은 이 두 국가간의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인도에게 유리한 변화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의 막/이려한 새로운 금융상태는 인도의 근로인민들의 막대한 희생의 댓가로서 사들인 것이다。 그들의 생활수준은 급격하게 저하 되었으며 약간의 지방들에 있어서는 실례로 벵가르에 있어서는 주민들은 정말로 기근 상태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一二二페지)

인도는 과연 영국의 채권자로 변하였는가? 만약에 우리들이 이 문제를 기계적으로 부기원(簿記員)적으로 취급한다면 영국은 그의 대인(對印) 자본투입액(공식적 계산에 의한)보다 인도에 부채(負債)진 액이 더 많다는 것은 의심할바가 없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들이 누가 누구를 착취하고 있는가하는 문제를 세운다 할것 같으면 영국내에서 획득한 잉여가치가 인도로 가고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반대로 인도가 영국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아직까지 매년 상당한 금액을 영국에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용이하게 리해할수 있다。 즉 인도(및 파키스탄)이 영국으로 부터 받을 것은 무엇보다도 리자가 없는 국채(國債)인 반면에 인도에 투입된 영국자본은 직접적인 자본투자인 것이며 또 그것은 비상하게 높은 착취 수준에 근거하여 보통정도를 훨씬 초과하는 리윤을 내고있는 것이다。 자본총액으로 볼때에는 인도는 영국의 채권자로 되고 있으나 자본으로 나오는 수입으로 볼때에는 현재에 있어서도 역시 영국이 인도의 착취자가 되고있는 것이다。

인도에 대한 영국의 자본투자는 영국에 대하여 대단히 강력한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인도에 대한 부채를 어느정도로 또한 어떠한 조건하에서 인도에「변상」하겠다는 것은 영국정부 자체가 결정한다는 것은 더말할 것도 없다。 영국정치가들 중에는 인도에 대한 부채는 인도방위로 말미암아 생긴것이라는 구실밑에 전반적으로 지불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자들도 간혹 있는 것이다。 물론 인도는 영국에 대하여 부채지불을 강요할수 없으며 또 지불을 지연(遲延)한 채무국에 대하여 영국이 흔히한것 처럼 인도의 함대를 파견하여 영국의 항구들을 폭격할수는 없는것이다。 설사 영국이 인도에 대하여 매년 얼마씩 자기부채를 갚을 것을 약속한다 할찌라도 이것은 주로 지불을 로골적으로 거절하면 인도에 대한 미국자본의 침입을 강화시키며 인도내에서 미국세력을 증장시킬 위협이 있을 것이라는 데로 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려한 나의 오유를 인식하면서 나는 또한 영인(英印)관계는「절대적으로 아무런」변화도 없었다고 단언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들은 영국이 상금토록 인도내에 가지고있는 경제적 군사적 및 정치적 지위를 신중하게 평가하지 못하였으나 인도는 영국군대가 주둔하고 영국관리들이 직접 통치하는 식민지로 부터 반식민지로、도미니온으로 되었으며 인도내에 있어서는 농민과 로동자운동에 대한 공포로 말미암아 영국제국주의와 타협함으로써 해방투쟁을 배반한 부르죠아지가 자신의 강압기구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이다。 인도부르죠아지는 영국제국주의와 미국 제국주의간의 적대관계를 리용하면서 영국과 미국사이에서 조작을 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도가 식민지로부터 도미니온으로 변한 의의를 절대로 과대평가는 하지말진대 그것은 현재 우리들의 눈앞에서 진행되고있는 대영제국의 쇠락과 붕괴를 말하는 력사적 행정의 쇠사슬의 한고리라고 보아야하는 것이다。

(주—영국제국주의는 도처에서 미제국주의로 말미암아 배제 당하고있다。 최근에 영국은 투르、파래스타인、희랍등지에서는 사실상으로 배제되었다。「미개지역 원조」에 대한 미국의 계획도 역시 영국을 위수로 하는、구라파 제국주의국가의 식민지에 대한 미국자본의 침입을 강화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의 부르죠아지가 그들의 계급적 리익으로 말미암아 파렴치하게 배반하여 버린 인도의 완전독립은 가장 가까운 장래에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인도의 근로자들의 손으로 달성 될 것이다。 그들은 영국에 있는 비호자들과 합력(合力)하고 있는 지주와 부르죠아지들의 지배를 종식(終熄)시

켜 버릴 것이다。

× × ×

방법론적으로 옳지못한 경제와 정치의 분리、전시경제에 있어서의 부르죠아국가의 역활의 조사연구를 비변증법적으로 두장(章)으로 나누는것(나의 저서의 첫장에서는 조절(調節)을 검토하고 제二장에서는 이것과 분리하여 가지고 조절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무계획성과 생산의 무정부성을 조사연구하였다)、문제의 정치적 면의 분석을 하지않은것、나아가 전시경제에 있어서 자본주의 발전의 불가항적인 법칙의 작용을 부인하며 또 자본주의적 관계하에 있어서도 전시에는 계획경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는 인상을 조성한다。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나의 의도하는 바가 아닌것이다。나의 저서의 三五페지에 있어서 나는「전시의 경제조절을「경제의 계획화」라 부르는것은 물론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쓰고있다。그러나 문제의 저술은 총체적으로 볼때 반드시 있어야할 맑쓰주의자적 명확성이 나의 저서에 결여(缺如)되고 있는것이다。

자기 과오를 변명하려할때에 으레히 생기는 바와같이 나는 토론시에 전후에「약간의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어떠한 독특한 종류의「고스프란」이 나타났다」는것을 주장합으로써 이러한 오유를 더욱더 크게 만들었다。나는「자본주의하에 있어서의 계획화」에 대한 모든 나의 주장은 一九三五년의 나의 정당한 립장으로부터 크게 일탈한 것이라는 것을 승인하여야 할것이었다。그 당시에 나는 제七차 국제공산당대회에서의 연설에서 다음과같이「자본주의 하에 있어서의 계획화」에 대한 개량주의자들의 데마적이며 부르죠아적 선전의 본질을 설명하였던 것이다。즉「이러한 선전의 주로되는 리유들은 첫째로 시장문제를 해결할수 없는 것이며、둘째로는 금융과두제의 국고금의 탈취를 은폐하려고 기도하는 것이며、셋째로는 국가경제를 전쟁의 수요에 적응시켜 개편하는 것을 은폐하려는 것이며、넷째로는 로동자 대중들이 혁명화 하여가는 행정을 억제하려고 기도하는 것이다」

현재에 개량주의자들이 진행하고 있는「마샬안」과 관련한 자본주의 하에 있어서「경제의 계획화」의 허위적인 선전에 대하여서는 더욱더 견결한 투쟁을 감행하여야 할것은 조금도 의심할 바도 없는 것이다。

(주 미국내에서는『자유로운 기업창발성』을 주장하고있는 미국 독점가들은 서구라파제국에 대하여는 미국 금융과두제의 리익을 위하여 경제의『계획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 ×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의 발생을 다만 정치적 형정으로만 보는것과 그 분석을 나의 저작의 二차적으로 계획된 정치부부에 넘기는 것은 절대적인 과오이었다。이 국가들이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탈락한것은 틀림없이 二차세계대전의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결과인 것이며 또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의 심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면적인「순전히 경제적」인 연구태도는 이 국가집단들의 의의와 성격에 대한 옳지못한 평가를 나리게 하였으며 그러한 평가에 의하여「이 국가들에 낡은 말의 의미에서 자본주의라 할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가 발생한것은 중요한 것이며 의의있는 것이라 할찌라도 자본주의 세계경제 전체중에서 이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않으며 또한 그것은 아직 전체적으로본 자본주의의 전박적인 발전의 전망을 기본적으로 변경시키지 않는다」(二九一페지)는것을 주장하게 되었던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성립될수 없으며 또 옳지 못하다。이 국가들을 비록「낡은 말의 의미에서」아니라 하더라도 자본주의 국가라고 보는것은 옳지못한 것이다。그것은 이 국가들은 급속하게 사회주의의 길로 들어서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이 국가들에서 국가자본주의가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것은(내가 이미 토론시에 인정한 바와같이)옳지 못하였다。그러고 이 국가들의 의의를 다만 경제—통계적 비교에만 근거하여 가지고「상대적으로 크지않다」고 평가한것은 특히 옳지 못한것이었다。인민민주주의국가의 발생과 그들의 경제적인 개화(開花)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체(政体)하에 쏘련의 경험과 백방의 방조에 근거하여 급속하게 사회주의적 발전을 하는것은 거대한 원칙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비변증법적인 다만「경재적」일 뿐이었던 연구태도와 새롭고 발전하고 있는 것에 리각하여야 한다는데 대한 쓰딸린동지의 지시를 망각한것이 그때에 나의 길을 가로막고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의 성격과 의의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정치와 경제의 분리는 또한 기타의 여러가지 오유를 범하게 하였다。즉 계급투쟁을 도외시하고 다만 새 산 요인으로서만 취급한 전시경제에 있어서의 로동자들의 역활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두체제(体制)간의 투쟁의 경시 및 전쟁중에는 민주주의 진영내의 이 투쟁은「잠정적으로 중지되고 있다」는 옳지못한 주장、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 있어서의 농업개혁의 결과에 대한 옳지못한 평가 등의 오유를 범하게 하였었다。

옳지못한 연구방법의 결과로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의 심화문제가 나의 저서에서 취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엄중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세계전쟁은 위기의 심화에 영향을 주지않았다는 인상을 가지게 할수있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물론 단 한책에서 모든 문제를 검토할수는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문제들이 없었다는것은 엄중히 취급될 등한시(等閑視)인것이다。

× × ×

내가 비판자들이 적출(摘出)한 오유의 승인을 오랫동안 천연한것은 틀림없이 손해를 끼쳤으며 우리나라의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맑쓰—레닌주의에 의하여 옳게 해결된지도 오랜 문제들에 다시 돌아가게끔 하였었다。 그러나 이것이 제국주의의 진영의 전쟁방화자들에게 나는「서방(西方)경향(傾向)」의 사람이 되었으며 내가 반혁명자이며 로동계급에 대한 반역자일 것이라는 허위를 전파할 가능성을 주었다는 것은 더욱 나쁜것이다。

자기가 범한 오유를 성실하게 승인하고 장래에 있어서 그것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것—레닌은 바로 이것이 공산당에 대하여서나 매개의 동지에 대하여서나 마찬가지로 유일한 옳은 것이라고 보았던것이다。

그의 리론적으로 심원(深遠)한 전투적인 저작인「공산주의에 있어서 좌익 소아병」에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매개사람에 관한것은—거개 해당한 변경을 가하면—정책에도 당에도 적용할수 있다。 오유를 범하지않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한 사람은 없으며 또 있을수 없다。 극히 중대한 오유를 범하지않으며 또 그것을 용이하고 신속하게 시정할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내가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현명치 못하게 행동하였다는 것은 틀림없다。

× × ×

전쟁중에 저술된 전(前)세계경제와 세계정치연구소의 기타의 저작중에 있는 오유들도 원칙적으로는 역시 이와같은 종류의 오유들이다。 그 저작자들은 나의 지도하에 사업하였다。 나는 그들의 지도자로서 이러한 오유들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바이다。

나는 이미 범한 오유로부터 장래에 대한 교훈을 얻어 내어야 할것이라는 것은 더 말할것도 없다。 내가 단순한 계속으로서 나의 저서의 제二권으로서 계획한 정치문제에 대한 저작은 현재에는 실현 될수 없다。 전후 시기에 있어서의 경제적 변화도 또한 기초로 삼지않고 현대 제국주의에 대한 독립적인 저작을 쓰는것도 역시 방법론적으로 옳지 못할것이다。

레닌은 그의 저서「제국주의와 사회주의의 분렬」

에서 까우쯔끼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썼던것이다。

「까우쯔끼의 이러한 규정은 철두철미 거짓말이다。……까우쯔끼는 자기의 저렬(低劣)한 뷰르죠아적 개량주의를 위한 길을 닦으려고 하여 제국주의 정치를 제국주의의 경제로부터 분리하며 정치에 있어서의 독점주의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다」

요컨대 이미 계획된 나의 이전 저작의 제二권 대신에「제二차 세계전쟁의 결과로서 자본주의경제에 발생한 제변화」에서 내가 등한하게 범한 개량주의적 오유들이 없는 전후 제국주의의 경제 및 정치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독립적인 저서가 저술되어야 할것이다。

(「경제 제문제」 一九四九년 三호)

외교의 개념에 대한 문제

드·브·레빈

一、문제의 의의와 기본요지(要旨)

「력사위조자들」이라는 쏘련정보국의 력사적 증빙서류와 쏘련외무성이 발표한 「제二차 세계대전전야의 문헌 및 자료」는 제二차 세계대전의 발생원인을 아주 명백하게 또한 정확하게 폭로하고 있으며 「전쟁전 시기의 서구라파 렬강의 외교계의 실제적 취지를 폭로시키는 수다한 첨부적 사실들을 주면서 인민들의 운명에 대한 어떤 노름관이 진행되었으며 어떻게 몰렴치하게 남의 땅을 매매하였으며, 어떻게 암암리에 세계지도를 개작하였으며, 어떻게 히틀러의 침략을 격려하였으며, 어떻게 이 침략을 동방에로 쏘베트동맹을 반대하여 돌려놓을 야심으로 정력을 다 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력사 위조자들」(력사적 사실) 모쓰크바 외국문서적 출판부 조선말판 一九四八년 二十二폐지)

이와동시에 출판된 자료들은 평화 및 제인민들의 안전을 위한 초소에 확고하게 서있으며 제二차 세계대전의 도발을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하고 있던 유일한 외교인 쏘베트외교 즉 사회주의적 외교와 자본주의의 외교와의 간의 온갖 대립을 또한 똑똑하게 그려내고있다.

자본주의외교와 쏘베트외교간의 대립은 전쟁종결후 세계무대에서 활동하는 기본적 정치세력들의 새로운 배치가 생기었으며 또한 세계가 두개의 즉 민주주의와 재국주의의 전영으로 형성되게된 현재에 있어서 더욱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두진영의 국가들 간에서 진행되는 외교투쟁은 제인민들의 아주 각방면의 국제적 및 국내적 생활에 심각하게 저촉(抵觸)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쏘베트과학에서 외교문제를 강구(講究)하는 의의가 높아지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외교문제들의 범위는 매우 넓고, 다방면하며 어떠한 한개의 과학분과의 한계를 훨씬 넘고있다. 외교문제들을 연구하려며는—

력사가, 철학가, 경제학자, 법학자들의 연구령역까지에도 들어서야 하는것이다.

외교의 개념 자체에 대한 문제가 외교문제들 중에서 결코 말석(末席)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는, 외교에 관한 교과서에서나, 저작에서나, 또는 국제법에 관한 교정(教程)에서나, 론문에서나, 그 어느책에서나 할것없이 충분하게 또는 광범하게 해명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례외로 되는것은 얼마전에 출판된 『외교사전』(一九四八년 쏘련국영 정치도서출판사판, 제一권)안에 들어있는 『외교』라는 론문이다) 특히 내용이 풍부한 이 론문에서는 각이한 력사적 단계에서의 외교의 목적 원칙 및 방법과 부르죠아외교와 쏘베트외교간의 근본적 차이를 론술하고있는 동시에 외교의 개념자체에 관한 문제도 취급하고 있다.

본 론문에서는 바로 그 외교의 개념에 관한 문제를 취급해 보려고한다. 이것을 위하여서는 즉 외교를 과학적 개념으로 규정하는데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반드시 해결하여야할 다음과 같은 세개의 방면 다시말하면 외교에 관한 세개의 리론적 문제를 고찰함이 필요하다. (一)、외교와 대외정책과의 상호관계는 여하한가. (二)、외교는 과학인가 또는 기술인가. 그리고 외교방법의 성질은 무엇으로 규정되는가. (三)、외교와 국제법과의 호상련결은 여하한가가 즉, 그것들이다.

二、외교와 대외정책

「외교」라는 말과 「대외정책」이라는 말은 때때로 전혀 동일한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두개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정책이라는것은 그 말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볼때 국가활동의 방향인 것이다. 레닌의 말에 의하면 정책이라는것은 즉 「……국가의 방향이며 국가활동의 형태, 과업, 내용의 규정이다.」(레닌전집 二十一권 十四폐지) 따라서 『정책』이라는 개념은 국가의 일체활동 즉 그의 전활동 또는 이런 또는 저런 분야에 속하는 활동들의, 목적과 또한 수단방법을 내포하고 있다. 대외정책이라는것은 소여의 국가와 그의 통치계급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추구하며 옹호하는 목적과 리해관계 그리고 이러한 목적 및 리해관계들을 달성하며 옹호하기위한 수단과 방법의 총체(総体)를 말하는것이다.

국제적 관계에 있어서의 한 국가의 목적 및 리해관계는 각종의 수단과 방법으로써 실현되는 것이다. 즉 그것은 우선 정부의 특별기관과 이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의하여 보지되고 있는 평화적이며 공식적인—교섭의 방법에 의하여

실현된다。다음으로 그것은 국가기관과 또한 한 국가로 하여금 다른 국가에 대하여 광범한 경제적 정치적 및 사상적 영향을 줄수있게하는 공공적 및 개인적(경제적 정치적 과학적 종교적 등등의) 기관들에 의하여 보지되고 있는 경제적 문화적 및 기타의 련결 방법에 의하여 실현된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무력을 적용하는 방법 즉 전쟁 또는 기타의 무력적 강제의 방법으로써 실현된다。

그런데 외교라는 것은 정부와 국내외에 있는 그의 특별한 기관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공식적 교섭의 방법으로써 국가의 대외정치적 목적과 리해관계를 담판、문서왕래、협정등등의 형태에서 실현하는 국가적 활동의 한 종류이다。이리하여 외교라는 개념은 대외정책이라는 개념을 포섭(包攝)하지 못하는 것이며 도리어 그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것이다。외교라는것은 대외정책의 수단 또는 방법이다。그러나 외교와 동시에 기타의 수단과 방법이 존재한다。

쏘베트동맹의 문헌중에는 이미 외교와 대외정책간의 이러한 관계가 대체로 지적되어있다。아·뜨로야노브는「외교」라는 니끄리쏜의 저서에 대한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외교라는것은 대외정책의 수단이며 외교활동은 국제적 교섭의 진행、국제적 조약의 체결、국제적 관계의 연구에 있다고 말할수 있다」(아·뜨로야노브의 편찬 및 서문으로 영문에서 번역한 그·니끄리쏜의 저서「외교」一九四一년 쏘련국영 정치도서 출판사판 四페지) 또 여기에 관하여「외교사전」내의「외교」라는 론문에는 다음과같이 적어있다。「외교의 대외정책에 대한 관계는 계획에 대한 그 계획의 완수와 같다。어떤 의미에 있어서 그는 대외정책의 도구이다。」(외교사전 제一권 五七〇페지) 외교라는 것은「대외정책 실현의 기술적 수단」이라고 그 론문의 아래에는 또한 첨부되어있다。(동상)

그러나 그 어느 저서에서든지 필자들은 이러한 명제를 정식화(定式化)하고 있을뿐이지 이것을 발전시키지 못하고있다。이 명제를 더욱 상세하게 해명하여 보기로하자。

레닌은 전쟁에대한 자기의 론술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정책의 형태 또는 수단이라는것을 한두번만 강조한것이 아니다。레닌은 다음과같이 썼다。「일정한 국가에서 그 국가의 일정한 계급이 전쟁전의 오랜기간동안 실시하고있던 바로 그 정치를 전쟁시에 있어서도 활동형태만을 변경시켜 바로 그 계급이 필연적으로 또한 불가피적으로 계속한다」(레닌전집 三〇권 三三三페지) 독일 군사평론가 끌라우제위쯔의「전쟁은 다른(즉 강제적) 수단으로서의

정치의 계속이다」라는 격언을 인용하면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맑쓰주의자들은 언제나 이 명제가 매개 전쟁의 의의에 대한 리론적이며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정당하게 인정한다」(레닌전집 十六권 一九七페지 또한 十九권 三八二페지 참조) (전쟁은、정치의 계속이다。그리고 정치는 전쟁시에도「계속」된다)

외교는 군사적강제 경제적 및 문화적 영향 등등과같이 대외정책의 형태 또는 수단 방법이다。

그러나 외교는 대외정책의 수단들중의 단순한 하나로 되는것은 아니다。대외정책의 모든 수단들중에서 외교는 평화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으며 다른 수단들을 종속시키고 있고 또는 다른 수단들의 훌륭한 적용을 제약하고 있다。노예국가 봉건국가 및 자본주의국가의 외교력사가 보여주는 바와같이 이러한 국가들의 외교라는것은 전쟁시초에 유리한 세력관계를 조성하며 동맹자를 획득하고 장차의 적을 고립시키도록 노력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는것이다。외교는 가장 유리하게 승리의 결과를 공고히하며 또는 패전의 결과를 약하게하기에 노력하면서 전쟁을 완수한다。외교는 바로 전쟁시기중에 있어서도 자기의 활동을 중단하지않는다。반대로 자기국가를 위하여서는 유리한 조건을 적국을 위하여서는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외교활동을 도리어 강화한다。외교는 광범하게 리용되고 있으며 그는 대외적 경제련결을 지도하며 발전시키는 국가의 파업에 종속하는것이다。현대에있어서 이러한 종속성은 더욱 더욱 현저하여지고있다。전동맹공산당(볼쉐위크) 제十八차당대회에서의 자기의 연설에서 쏘련 대외무역상 이·미꼬얀은 확인하기를「…국가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대외무역에관한 문제는 더욱더 급격하게 발전 성장한다」고하였으며 또 다음과같이 지적하였다。「……무역관계는、그의 성질과 범위에 있어서 정치적 관계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있다。」(전동맹공산당(볼쉐위크) 제十八차당대회 속기록 一九三九년 쏘련국영정치도서출판사판 二一八페지)따라서 외교라는것은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또한 주요하고도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말할수있다。바로 이러하므로「외교」라는 개념을 그렇게도 때때로「대외정책」이라는 개념과 동일시하는것이다。

대외정책과 외교와의 관계는 일정한 정도에서 전략과 전술과의 관계와 비교할수있다。쓰딸린동지는 로동계급의 혁명적 투쟁에 있어서의 전략과 전술에 관한 모범적 학설을 창조하였다。「로씨야공산주의자들의 전략과 전술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라는 론문에서 쓰딸린동지는 전략과 전술에 대하여 다음

파같은 정의를 내리었다。「정치적 전략의 임무는 우선 맑쓰주의의 리론과 강령에서 출발하여 그리고 모든 국가에서의 로동계급의 투쟁경험을 참작하고 해당한 력사적 시기를 위한 그 국가의 프로레타리아운동의 기본적 방향을 정확하게 규정하는데 있다。」「전술의 임무는 우선 지략의 지시를 지남으로하고 그리고 모든 국가에서의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경험을 참작하여 매개 시기 시기에서의 구체적 투쟁환경에 무엇보다도 적응하는 투쟁형태와 방법을 규정하는데있다」(쓰딸린전집 五권 一六五—一六六페지、一六八페지) 쓰딸린동지는 이와같은 정의를「레닌주의의 기본에대하여」라는 자기의 저서에서 더욱 발전시키고있다。쓰딸린동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전략은, 혁명의 그 계단의 토대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주되는 공격의 방향을 규정하는 것이며 혁명적 력량(주되는 및 제二차적 후비군의 력량)들을 배치하는데대한 적합한 계획을 작성하는것이요、혁명의 그 계단의 전기간에 있어서 그 계획을 실사하기위하여 투쟁하는것이다」「전략은 그 계단의 전기간을 통하여 대체로는 변동됨이 없으면서 혁명이 한계단으로부터 다른계단으로 넘어가는 것과 관련하여 변경되는것이다。」「전술은 운동의 만조 및 퇴조 혁명의 앙양과 침퇴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가 수행하는 로선을 규정하는 것이요、투쟁과 조직의 낡은 형태를 새 형태로써 바꾸며 낡은 표어를 새 표어로써 바꾸는 방법과 또 그 형태들을 련결시키는 방법등으로써 그 로선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다。」「전술은 혁명의 그 계단의 기초위에서 혁명의 만조와 퇴조 앙양과 침퇴에따라서 몇번이든지 변경될수 있는것이다。」「전술은 전략의 한부분으로서 그 전략에 종속되는것이며 또 그에게 복무하는 것이다。」(쓰딸린전집 六권 一五二、一五三、一五四、一五五페지 또한 전집五권 六三—六五페지에 있는 「로씨야공산주의자들의 정치적 전략과 전술에 관하여、소책자의 초안」이라는 론문도 참조할것) 로동계급의 정치적 전략과 전술에 관한 쓰딸린동지의 학설은 대외정책도 포함한 모든 분야의 정책을 리론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가장 귀중한 열쇠(鍵)이다。두말할것도 없이 대외정책은 자기의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대외적 국가관계의 분야에도 그의 전략과 전술이 있다。

대외정책은 해당한 력사적 시기의 기간에 있어서 대외적 관계분야에서의 국가의 모든 활동에 대한 기본적 방향이다。대외정책은 국외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목적들을 규정하며 또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는데 적용되는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및 기타의 모든 력량과 수단을 배치할데 대한 총계획을

결정한다。대외정책의 기본은 그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시기를 의미하는 국가존재의 대외적 또는 대내적 조건들의 본질적인 변동에 관련하여서만 변경되는것이다。다른말로 말하면 대외정책—이는 국가의 대외적 관계의 전략이다。외교—이는 대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와 그의 특별한 기관들의 공식적 활동의 형태 및 방법들이다。국가의 기본적 대외정책에 의하여 지도되는 외교는 퍽 짧은 기간에 있어서의 정부의 공식적 활동로선을 결정한다。이 로선은 해당한 시기에서 국제적 제사전의 발전에따라 또한 국제적 정치정세에 의거하여 일정한 력사적 시기에 있어서도 여러번 변동될수 있다。외교의 임무는 해당한 국제적 환경에서 대외정책의 총방향을 수행함을 보장하는 구체적 방법과 수단을 찾아내는데 있다。따라서 외교의 임무는 대외관계 분야에서의 공식적 국가활동의 형태와 방법을 숙달하게 적용하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적인 대외정책의 목적들과 계획들을 훌륭하게 실현하기 위한 대외정책의 기타 수단들과 공식적 국가활동의 형태 및 방법과를 옳게 결합하는데도 있는것이다。그러므로 외교라는것은 대외정책의 수단 또는 방법일뿐만 아니라 국가대외관계의 전술인바 그는 대외정책에 종속하며 그에게 복무하는것이다。개념은 쏘베트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바꾸 쏘베트인민위원회의 의장이며 외무인민위원이었던 그·쓰·샤우만에 보내는 전보(一九一八년 二월十四일)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우리는 당신의 강경하고 결정적인 정책을 기뻐하는 바이다。이 정책에다가 현재의 곤난한 정세에 의하여 무조건하게 집제(前提)되고 있는 가장 면밀한 외교를 배합할줄 알아야한다—그러면 우리는 승리할것이다。」(레닌전집 二十二권 二五四페지)

三、과학 및 기술로서의 외교

외교는 과학 및 기술의 대상으로 되는가? 외교를 기술로 보는 견해는 상고(上古)에 있어서 이미 지지받고 있었던것이다。현대의 저작자들은 외교를 대외관계에 관한 과학으로서 또는 담판(談判)의 기술로서 규정하고 있다。또한 이 두개의 규정을 결합하고 있는것도 볼수 있다。(「외교사전」 추록되어있는「외교」라는 론문에서는 외교의 기본적 수단들을 서술함에 앞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국이러한 방법들은 외교의 본질로 되고 있으며 이것들을 사용하는 가능은 외교의 기술이다」(一권 五七四페지) 여기에서「기술」이라는것은 외교의 전체 개념을 특정짓는것이 아니고 다만 그의 구성요소

로 들어갈뿐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특별한 분석을 받지못하고 있다。이러한 분석은 정책의 개념 전체를 과학 및 기술범주(範疇)의 관점에서 분석함과 긴밀하게 련결되어있다。왜냐하면 외교의 개념은 정책의 개념내에 들어있기때문에 다시말하면 그에게 내속되어있는것이기 때문이다。

맑쓰주의는 정책을 과학으로도 보고 있으며 기술로도 보고 있다。다시말하면 그의 법칙들이 현실을 개변하는데 적용되고 있으며 또 그러한 적용이 기술로 되고 있는 사회과학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현실에 대한 과학적 인식에 기초되고 있으며 그의 준칙(準則)들이 사회과학의 법칙들에 립각하고 있는 기술로서 보고 있는것이다。레닌은「공산주의에서의「좌익」소아병」이라는 저서에서「정책은 과학이며 기술이다」라고 옳게 지적하고 있다。(레닌전집 二十五권 二一九페지)

정책을 과학적 기초를 가지는 기술로서 간주하는 예로 되고 있는것은 무장폭동에 관한 맑쓰주의학설이다。「……무장폭동은—레닌은 썼다—주의깊게 고찰하여야할 특수한 법칙에 속하는 특수한 정치투쟁의 종류이다。칼•맑쓰는 다음과같은 말씀으로써 이 진리를 훌륭하게 또는 명확하게 표현하였다。무장「폭동은 전쟁과 같이 기술이다」」(레닌전집 二十一권 三一九페지) 그러나 맑쓰주의의 리론에 의하면 이러한 기술의 준칙들은 객관적 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으로부터 나오는것이다。

一九一七년 十월二十九일(十六일)의 볼쉐위크당중앙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로씨야와 구라파에서의 계급투쟁에 대한 정치적 분석으로부터 무장폭동만이 있을수 있는 가장 결정적이며 가장 적극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생겼다。그리고「……만일, 정치적 폭동이 불가피하게 된다면 기술에 대하는것과같이 폭동에 대하여야한다」」(레닌전집 二十一권 三三二페지 또한 五권 五一페지도 참조할것)

쓰딸린동지는 정치투쟁을 군사기술과 루차 비교하고 있다。위에서 인용한「로씨야공산주의자들의 전략과 전술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라는 론문에서 정치투쟁의 형태를 취급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현대적 조건하에서의 전쟁수행에 대한 기술은 전쟁의 모든 형태와 전쟁분야에서 달성한 모든 과학에 숙달하고 이것들을 조리있게 리용하며 교묘하게 배합하고 또는 환경에 따라 적시에 이것들중의 이런 또는 저런 형태들을 적용하는데 있는것이다。

이와같은것은 정치분야에 있어서의 투쟁형태들에 대하여서도 말할 필요가 있다。……

당의 임무는 투쟁의 모든 형태에 숙달하며 그것들을 투쟁마당에서 조리있게 배합하며 해당한 환경에 특히 적합한 투쟁형태에 기초하여 교묘하게 투쟁을 날카롭게 하는데 있는것이다。」」(쓰딸린전집 五권 一六八—一六九페지) 따라서 전쟁분야에 있어서나 정치분야에 있어서 투쟁형태들에 숙달하며 그것을 주위환경에 적당하게 또 훌륭하게 배합하는것이 기술로 되는바 첫째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군사기술이며 두번째 경우에서는 그것이 정치기술이다。

정치를 기술로 보는 견지는 대내정책에 대하여서나 대외정책에 대하여서나 모두 적용되며 따라서 대외정책의 일부인 외교에도 적용된다。

외교는 말하자면 정치경제학이나、국가와 법률 및 기타에 관한 과학이 가지고 있는바와 같은 자기의 연구에 속하는 실제현상의 특수한 범위를 가지는 독립적인 과학의 대상은 아니다。적어도 아직까지는 이와같은 과학의 분과가 창설되지않고 있다。그러나 외교는 외교기술에 대한 과학적 기초의 총체(總体)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사회과학의 자료에 립각하고 있다。국제관계의 력사、국제법、세계경제를 연구하는 경제학、외교사와 각국가의 국가법 및 기타는 무엇보다도 그러한 과학에 관계되는것이다。외교와 국제법에 대한 저작가들은 루루히 외교에 대한 과학적 병기고를 형성하는 학식의 총화(總和)에 들며 또한「외교의 백과사전」을 구성할만한 그러한 과학들의 상세한 목록을 주고있다。그러나 때때로는 책자중에서 특수한「국제관계에 관한 과학」을 제정하며 그것을 전혀 독립적인 과학적 분과로 하여보려는 시도를 보게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시도는 창시(創始)로 인정할수 없다。왜냐하면 이 제멋대로 생각해낸「분과」는 대상도 체계도 없으며 각개 저작자들에 의하여 지지도 못받고 있고 정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국가적 기술이며 과학의 제 귀결점에 조성되고 있는 준칙으로서의 외교는 어떤 특별한 과학에 기초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일련의 과학들에 대한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지식의 광범한 합성체(合成体)위에 기초하고 있다。

이와같은 제과학들의 지식은 외교활동에 있어서 아주 필요한것이다。왜냐하면 외교활동은 주위의 현실을 건전하게 분석하는데 기초하여 조성되어야 하기때문이다。그런데 이러한 분석 즉 국제관계에서와 각개국가의 대내 대외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객관적 법칙들을 인식함이 없이는 제아무리 유능한 외교가일찌라도 국가앞에 주요하게 나서고 있는 대외정책의 목적들을 실현하지 못할것이다。

이와같은 원칙의 특히 명백한 실례로 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체계가 몰락과정에 있으며 그의 통치계급들이 어떻게하여서든지 쇠퇴하여가는 사회적 및 국가적 체계와 그것에 적응하는 국제문제의 질서를 존속시키려고 애쓰면서 력사발전의 새로운 동향들을 깨닫지못하고 있고 현실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고 있는 착취자 국가들의 외교이다。 十七세기와 十八세기에 있어서 불란서는 구라파의 외교기술의 학교로 정당하게 인정되고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十八세기 후반에 이르러 불란서의 대외정책은 전제주의 쇠퇴의 시기인 위기에 빠지게하였다。 류도위크 十五세때의 대신들인 베르젠과 슈아젤리는 그 당시에 있어서의 비범한 외교가들이었다。 그러나 그때 이미 국제정치계와 대외정책에서 그들의 중요한 적수로 나서고 있던 영국의 무역에 있어서 또는 식민지적 리해관계에서 놓고 있던 역활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혁명적전의 불란서 외교정책의 중대한 실패를 방지할수 없었던것이다。 이보다도 더 절실한 례는 현시의 부르죠아 외교에서 찾아볼수 있는것이다。 과연 최근 十년간의 부르죠아외교는 평범한 수준에 오르는 한사람의 우수한 인물도 내놓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반복적이고 큰 오산 및 실패의 기본적 원인은 결코 여기에 있는것이 아니다。 그가 새로운 력사적 경향에 대한 인식을 포착하지못하고 있는데 있는것이다。 제二차세계대전전에 영국과 불란서의 정부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며 결국에 있어서 그들에게 엄중한 외교적 패배를 준 소위 불간섭정책이라는것은 만일 그 정부들이 현실적 사태와 무엇보다도 쏘베트동맹의 위력과 그의 외교력량을 랭정하게 깨닫는데 유능하였더라면 도저히 있을수 없었던것이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현재에 있어서도 「원자외교」를 가지고 나서는 미국정부와 그를 추종하고 있는 영국과 불란서정부 그리고 구라파의 기타 졸도들도 결국에 있어서 더욱 엄중한 패배의 위기에 서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계에서의 새로운 민주주의 세력의 장성을 고려하려고 하지않으며 또 몰로또브동지가 경고한 바와같이 「……현재에 있어서 새로운 제국주의적 모험은 자본주의의 운명에 대한 위험한 작란이다」(몰로또브「위대한十월사회주의혁명三〇주년 기념보고」一九四七년판 二十六폐지)라는데 대하여 인식할줄 모르기때문이다。 쏘베트국가의 외교는 객관적 현실에 대한 과학적 고려위에 튼튼하게 립각하고 있는 외교이며 그의 위대한 수령인 레닌과 쓰딸린은 그 누구도 소유할수 없는 맑쓰주의적 무기 다시말하면 현실을 완전하게 또 과학적으로 분석하며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내다보는 재능인 위력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쏘베트외교의 기초에는 맑쓰―레닌주의의 위대한

리론이 있으며 이 리론은 쓰딸린동지가 말하고 있는바와 같이 「……방향을 정하는 힘과 주위사건들의 내적 련결을 인식하는 힘」을 주며 「……계급들이 현재에 있어서 어데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까운 장래에 어데로 나아가야 할것인가에 대하여서도 리해함을」(쓰딸린전집 六권 八九폐지) 도와주며 또 그는 「정치에서 오유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뒤가 아니라 앞을 내다보아야한다。」(쓰딸린「레닌주의의 제문제」十一판 五四〇폐지)라는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외교활동은 일정한 과학적 준칙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형태로 흘러나갈수는 없는것이다。 정책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인식된 객관적 법칙은 현실의 일정한 개변에 자기의 목적을 두며 또한 그 자신이 어떤 의미에 있어서 그 법칙의 요인으로되는 그러한 창조적 활동으로 화한다。 이와같은것은 특히 외교에 있어서도 있다。 외교활동의 준칙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함을 목적하며 또한 부단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한다。 외교활동의 준칙은 환경의 변동과 그와 관련하여 설정된 목적에 종속되는 새로운 과업의 출현이 야기(惹起)하는 부단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이와같은 수정들은 상기한 준칙들을 적용하고 있는 사람에 의하여 실시된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정치는 사람을 통하여 실시된다……」(레닌전집 二十七권 二六四폐지)라고 레닌은 가르치었다。 그러므로 상술한 제준칙의 작용은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의 주관적 능력과 분리할수 없다。 외교활동의 제준칙은 마치 작전을 실시하는 사령관의 행동준칙들이 군사기술의 준칙인것과 마찬가지로 과학의 준칙이 아니라 기술의 준칙이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외교를 군사적 전투들과 비교하고 있는것은 리유있는 일이다。 레닌은 불의에 변동되는 환경에 활동의 형태와 방법을 반드시 적응시켜야 한다는것을 지적하면서 정책 일반을 군사적 전투와 비교하여 다음과같이 쓰고있다。 「적에게 있으며 또는 있을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무기와 전투에 대한 모든 수단 및 방법을 점유하는데 준비가 없는 군대의 행동은 우둔하며 또는 심지어 범죄적으로 까지 된다는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와같은것은 군사적 전투에 대하여서보다 정책에 대하여 더욱 관계된다。 정책에서는 장래의 이런 또는 저런 조건에 따라 우리에게 리용되며 유리한것으로될 투쟁수단에 대하여 예견하기가 더욱 힘든다」(레닌전집 二十五권 二三二폐지) 외교에 대한 참고서들에는 외교가의 기술적인 또는 비기술적인 활동에 따라서 각이한 정치적 결과들이 달성된다는 실례들을 인용하고 있다。 두말할것없이 모든 외교적 기술은 부르죠아저작가들이 루루하

제 쓰고 있는바와 같이 외교가의 일정한 주관적 소질에 귀착한다는것은 유치한 일일것이다。이와 동시에 외교기술에 대한 준칙들에 통달하며 특히 정부들간의 공식적 관계에서 적용되는 모든 형식과 수법들을 훌륭하게 리용할줄 알아야한다는것은 도저히 부정할수 없을것이며 이러한 형식과 수법에 의하여 정치에서 소기의 결과를 획득한다는것은 대외정책적 목적의 성과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결한 조건들중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四、국가의 사회—정치적 구조와 외교

그러면 외교기술의 기본적 특징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선 대외정책의 바로 그 내용에 의하여 제약되고 있는것이며 따라서 당해국가의 사회적 및 국가적 구조의 특성에 긴밀하게 의존하고 있다。왜냐하면 대외정책이라는것은 대내정책의 직접적인 계속이며 외교기구는 전체 국가기구의 일부이기때문이다。「「대외정책」을 정치 일반으로부터 분리하며 더우기, 대외정책을 대내정책과 대립시키는것은 근본적으로 정확하지않으며 맑쓰주의적 사상이 아니며 과학적 사상이 아니다」(레닌전집 十四권 二○七폐지)라고 레닌은 루차 지적하였다。「대외정책을 대내정책으로부터 분리하는것보다 더욱 오유적이며 더욱 해독스러운 사상은 없다。」(레닌전집 二十一권 六六폐지) 외교관계의 기관이 유일한 방법을 필요로 하는 정규적인 국제적 련결에 있어서는 국제적 정치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놀고 있는 거대한 국가들의 외교의 외부적 형태와 기술적 수단들은 다른 국가들에 의하여 감수(感受)되며 국제적인 것으로 된다는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외교기술의 성질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국가의 또는 국가들의 그루빠의 사회적 본성과 관련되고 있다。

현대 부르죠아국가들의 외교는 전제주의의 시기에 서구라파에서 구성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그 당시에 대외정책은 봉건귀족계급과 상층 신흥 부르죠아지의 략탈적 리해관계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었으며 구라파 대륙에 있어서의 이런 또는 저런 왕조(王朝)의 타국의 령토를 강점하며 통치범위를 확장하며 또는 이런 또는 저런 패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그리고 외국무역에서 우세를 차지하며 식민지를 강점하고 략취하기 위한 투쟁에 귀결되고 있었다。이 시기에 있어서 외교가 수행하고 있던 대외정책의 목적은 그 외교의 성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수 없었다。맑쓰와 엥겔쓰는 다음과 같은 말로써 (전제주의의 외교를 특징짓고 있다。「민족들을 서로 사수(使嗾)하며 다른

민족을 억압하기 위하여 어떤 민족을 리용하며 이와같이하여 전제군주적인 정권의 보다더 존재를 확보하는것—여기에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던 통치자들과 그들의 외교의 기술과 활동이 귀결되었던것이다。」(맑쓰—엥겔쓰전집 六권 二三七폐지)

또한 전제주의 국가들의 대외정책의 지도가 그 국가제도에 적응하여 지배계급의 극히 소수 상층분자들의 수중에 주로 황제와 그의 궁내관(宮內官)들과 관료들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정도 적지않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그러므로 외교에서는 비교적 크지않은 그루빠 더우기 완전하게 무통제적이며 탐욕스럽고 뢰물로 매수되는 특권계급을 구성하고 있던 집단에 속하는 개별적 분자들에 대하여 작용하는 방법이 매우 큰 역할을 놀고 있었다。여기에 있어서 외교활동에서는 기만、배신(背信)、매수、간계(奸計)、궁중음모가 광범하게 리용되고 있었다는것은 이상하지않다。

자본주의시대에 들어와서는 린방(隣邦)의 령토를 강점하며 식민지를 획득하기위한 투쟁뿐만 아니라 세계의 시장들과 「세력범위」를 쟁취하며 세계의 식민지를 분활하며 재분활하며 결국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경제적 및 정치적 패권을 위한 투쟁이 대외정책의 주요한 중심으로 되게되었다。또 일면으로서는 자본주의시대에 들어와 국가의 사회적 기초와 정치적 형태가 변동되었고 외교적 기술은 종래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근본적인 본질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현저하게 현대화되었다。외교의 임무와 방법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다색한 것으로 되었다。현재 부르죠아외교는 소수 통치배의 각개분자뿐만 아니라 통치계급의 더욱 광범한 그루빠와 또한 국외에서나 자국내에서의 광범한 인민들까지도 기만하는데 의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정치적 선전의 시설과 사회적 견해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수단들과 국내에서와 같이 국외의 출판물들을 교묘하게 리용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현재에 있어서 령토적 침략은 「문호개방(門戶開放)」과 「기회균등(機會均等)」이라는 자유주의적 구호로써 가장(假裝)하고 있으며 패권에 대한 야망은 국제적 질서를 보호한다는 사상으로써、침략전쟁의 준비는 국방이라는 리유와 평화주의적 연사로써 가자하고 있다。이와 동시에 매수、각종의 정치적 전제음모등등과 같은 기왕의 전제주의적 외교방법도 유지되고 있으며 그와같은 방법들은 더욱 큰 정도에서 제국주의시대에서의 부르죠아외교의 특유한것으로 되게되었으며 가장 침략적인 부르죠아국가의 외교에서 특히 빈번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모든 자본주의국가들에서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일으키었으며 통치계급의 대외정책 및 그의 외교

에 대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불신임의 장성과 비밀 외교에 대한 항의등등을 일으키었던 제一차세계대전 이후는 공식적 및 비공식적인 정치연설에서나 출판물들에서 평화적 선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교의 「변경」에 대한 「대외정책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를 강화할데 관한、「외교의 공개」를 높일데 관한、외교에서 「도덕적 원칙」의 승리에 대한 말들을 요란하게 떠들게 되였던것이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제一차세계대전과 제二차세계대전간의 부르죠아국가들의 외교에서는 기왕의 모든 부정적 특징들이 유지되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많은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더욱 첨예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만일에 파시스트국가들의 외교방법이 배신과 파렴치와 전제주의 추악한 방식을 모범받는데 우월하였다면 기타의 부르죠아국가의 외교도 그의 정치적 본질에 있어서나 도덕적 본성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그것과 구별되지 않고 있었다。 쏘련 정보국이 발표한 「력사적 사실」이라는 문헌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있다。 「이 시기에는 국제정책의 二개 로선사이에 투쟁이 전개되었었다。 한 로선은 평화를 위한 협동적 안전보장조직을 위한 자유애호 인민들의 련합적 협력을 침략에 대치하기위한 투쟁의 로선이였다。 이 로선을 쏘련이 시행하면서 자유를 애호하는 대소국 인민들의 리익을 철두철미하게 또는 강인하게 옹호하였다。 다른 로선은 협동적 안전보장의 거절、침략을 반대할데 대한 거절의 로선이었으니 이는 불피코 파시스트국가들로 하여금 그 침략적 활동을 강화하도록 격려하였으며 이리함으로써 새전쟁의 도발을 조장하였던것이다」 (「력사위조자들」 조선말판 十八페지)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이 두개로선은 그들의 외교방법과 일치하고 있었다。 소위 현재 「민주주의적」 부르죠아국가의 외교기술에서 새로운것이라고는 그들이 자기들의 대외정책의 목적을 위하여서 새로운 국제기관들(국제련맹 및 기타)을 빈번하게 자기들의 제국주의적 계획을 위한 무기로 전환시키면서 그 기관들의 권리와 권위를 리용하게 되었다는것과 그들이 광범하게 제국주의적 야욕을 가장하는데와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공식으로써 침략을 묵과하는 정책을 쓰는데 의지하고 있다는것 뿐일것이다。

쏘베트동맹의 외교는 완전하게 새로운 외교이었으며 또 지금도 그러하다。 사회주의국가에는 령토를 침략하며 다른 국가들을 습격하고 다른 인민들에 대한 지배를 설정하는데 흥미를 가지는 계급이나 집단이 없다。 쏘베트동맹의 대외정책의 기본목적은 자기국가의 위대한 사회주의적 개혁과 공산주의사회건설을 위하여 불가결한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며 전반적 평화를 강화하고 대소국가들의 자주권과 동등권을 존중히 하는 기초위에서 국제적 협력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이와같은 고귀한 목적에 복무하는 외교는 전제주의국가나 부르죠아국가들의 외교가 리용하고 있는것과 같은 비도덕적이며 반인민적인、수단들을 리용할수 없는것이며 자국내의 인민이나 타국의 인민들을 기만하는데 의거할수도 없고 이렇게할 필요조차 없는것이다。 왜나하면 그 외교녹적은 모든 진보적 인류의 공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쓰딸린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평화의 친우들은 공공연하게 일할수 있으며 그들은 사회적 여론의 힘에 립각하고 있다……전쟁을 반대하는 그들의 활동이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에 립각하고 있다는데 그들의 력량이 있다。」(미국신문련합 「쓰크립쓰•하와트 뉴스페빠」의 대표로이 하와트와의 쓰딸린동지의 회담 一九三六년판, 七—八페지)

쏘베트국가의 본질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쏘베트대외정책의 목적은 영속적이며 고정되어있다。 그러나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용되는 외교방법들은 국제정세와 쏘베트동맹의 국제적 지위와 이런 또는 저런 국가와의 그의 호상관계의 성질에 따라 변동되고 있다。 쏘베트외교는 부르죠아국가들의 외교수단과 방법들에 내하여 고려하지 않을수 없으며 도리어 그것들을 주의깊게 탐색하여야한다。 왜냐하면 봉착하지않으면 안될 그 무기들을 잘알아야 하기때문이다。 어떠한 국가든지 다른국가들의 외교방법들을 알지 못하고는 자기의 외교수단들을 강구해 낼수 없는것이다。 례를들면 부르죠아외교의 방법에 대한 기식은 쏘베트외교로 하여금 一九三九년 여름 쏘베트동맹과의 교섭에 있어서 영국과 불란서정부가 쏘련을 반대하는데로 독일을 사수(使嗾)하는 그들의 도발적 정책과 쏘련을 반대하는 독일의 정책을 백방으로 촉진하는 그들의 야망을 은폐하려고 하고、있던 교활한 기도를 신속히 해명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던것이다。 그후에 이르러 부르죠아외교술의 추악한 책동에 대한 지식은 쏘베트외교로 하여금 제二차세계대전시기에 있어서 쏘련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데로 지향되고 있던 배신적이나다 천박한 히틀러도당의 외교의 모든 노력을 뒤집어엎고 마는데 도움을 주었던것이다。

그러나 쏘베트외교의 기술은 부르죠아국가의 외교기술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설정된 목적을 실행하는데 있어서와 선언된 원칙들을 준수하는데 있어서의 목적 일관성과 철저성과 자기의 요구를 방식화하는데 있어서의 명확한것과 솔직한것이 쏘베트외교의 특징이다。 이러한 특성들이 부르죠아외교에는 전혀 없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부르죠아외교는 공공연하게 솔직하게 성명하는

우리의 새로운 외교가 가지는 방법들을 알지못한다」(레닌전집 二十五권 三七七페지) 또 그는 다른곳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낡은 세계는 자기의 낡은 외교를 가지고 있는바 그것은 공명정대하게 말할수 있다는것을 믿지못한다.」(레닌전집 二十七권 一一九페지) 쏘베트외교는 자기의 적들의 약점을 리용하는것, 유일한 반쏘베트전선의 형성을 방해하고있는 자본주의국가들간의 모순속에서 유리한 점을 빼내는것, 인민대중에게 은폐되어있는 그들의 비밀계획을 폭로하며 그리하여 그들의 국내와 전세계의 여론앞에서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또 포기할수도 없었다. 그러나 쏘베트외교는 언제나 매우 원칙적이다. 시기적인 리합집산(離合集散)에로 무원칙한 협정에로, 음모와 협박에로, 허위적 공식과 「주의(主義)」등으로써 실제적 지향을 가장하는데로 나가는 경향과 쏘베트외교와는 인연이 멀다. 쏘베트외교를 또한 특정짓는것은 약속에 충실하며 자기에게 부과된 의무를 엄격하게 수행하는것인데 여기에 대하여서는 부르죠아세계의 많은 정치가들 그중에는 쏘베트동맹을 심히 싫어하는 자들까지도 이를 강조하였다.

쏘베트외교와 쏘련의 모든 대외정책의 이러한 특성에 대한 훌륭한 설명으로 되고 있는것은 동맹국간의 관계에 있어 쏘련이 실시한 정책인데 그의 명백한 실례는 쏘련정보국의 「력사적 사실」이라는 문헌에 기록되어있다. (「력사 위조자들」七五—七九페지 참조)

쏘베트의 외교기술은 착취자국가들의 외교기술에 있어서의 전통적 수단인 「외교적 도박」, 위협, 배신, 허위등 그 어느 하나에도 의뢰하지 않으면서 항상 쏘베트국가가 가기의 대외정책의 목적을 실현하는것을 확보하고 있으며 동시에 쏘베트대외정책에 대한 전세계의 진보적 인사들측으로부터의 절대한 정신적 지지를 쟁취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일층 첨예화하였으며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세력이 강화된 정세가운데서 두개의 진영 즉 민주주의국가 진영과 제국주의 국가진영이 형성되게된 제二차세계대전 이후에 있어서 위에서 지적한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두개의 기본적인 로선간의 투쟁은 더욱더욱 광범한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두개의 대립되는 진영은 각기 이러한 투쟁에 있어서 자기의 전략과 전술 따라서 상호간에 근본적으로 상이한 외교방법을 쓰고 있다. 제국주의진영의 외교는 세계패권에 대한 미국제국주의의 야망에 우선 복무하면서 제국주의시대의 부르죠아외교의 가장 흉악한 방법들을 다시부활하던 二차에 걸친 세계적 쟁을 준비한 그와같은 방법들을 쓰고 있

다. 와르샤와에서 열린 九개 공산당대표자대회 선언서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있다. 「제국주의진영에서 리용하는 전술적 수단의 무기고는 대단히 각종각색인것이다. 이곳에는 세력의 직접적 위협, 공갈, 협박, 정치적 및 경제적 압박의 각종의 방법, 매수, 내부적 모순의 리용, 자기의 지위를 강화하기위한 갈등 등등이 련결되어있으며 이 모든것은 정치적으로 훈련되지못한 사람들을 기만하며 획득하려는 목적하에 자유주의적 평화주의적 외양하에 은폐되어 있는것이다」(一九四七년 九월 파란에서 개최된 수개 공산당보도회의 一九四八년 쏘련국영정치출판사판 七—八페지) 이러한 수단들중에서 적지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새로운」외교수단이라고 말할수 있으며 「원자외교」라는 정확한 칭호를 받은 원자탄생산의 비밀아닌 비밀을 대외정책적 압박을 목적하여 리용하고 있는것이다.

여기에 관련하여 몰로또브동지는 유·엔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매우 강한 국가들측으로부터 다른 국가들에 대하여 압박하는 수단이 적지않게 존재하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다. 군함의 분함대들과 친절한 비행기의 대대가 외교적 담판에서의 매우 좋은 성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는 그들이 일찌기 없었던 그러한 바다들과 지방들에 종종 출현하고 있다는것은 다아는 바이다. 딸라와 폰트가 특히 「딸라외교」의 행정에 발동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론 적어도 말하자면 「딸라식 민주주의」에 대한 필요한 존경을 확보하기 위하여서까지도 결코 사장(死藏)되어있지않고 있다는것도 알려져 있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지금 「원자외교」에 관한것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런 또는 저런 방법들을 여러가지로 배합하여 다른나라들에 특히 약소국가들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빈번하게 리용되고 있다는것은 누구에게도 비밀이 아니다.」(브·므·몰로또브 유·엔총회에서의 연설집 一九四七년판 一九페지) 전후의 제국주의외교의 전형적인 표본으로 되고 있는것은 「투루맨주의」와 「마샬안」이다.

이와 반대로 민주진영의 나라들에서는 평화와 제인민들의 자유옹호를 그 목적으로 내세운 성질하고도 공명정대하며 그의 탄생이 쏘베트사회주의 국가의 대외정책과 결부되어있는 전혀 새로운 외교가 발전하고 있으며 이 외교는 자기의 목적을 군사 및 정치방면에 있어서나 경제 및 문화방면에 있어서의 긴밀하고도 자원적인 호상원조의 민주주의적 협력방법과 또한 평화적이며 자유주의적인 언사로 은폐된 제국주의계획을 과감하게 폭로하는 방법으로써 달성하고 있다. 민주진영의 새로운 외교의 빛나는 표본으로 되고 있는것은 경제적 및 문화적 협정과 거

타의 외교조례(條例)들인바 이것들로써 쏘베트동
맹과 인민민주의국가간에 또한 인민민주의국가
호상간에 우의적인 협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그리고
유•엔의 각종 국제적회의석상에서와 자본주의 제
국가와의 일상적인 외교교섭의 과정에서의 민주진
영국가들의 외교활동이 유지되고 있다。국제정책에서
의 두 로선 및 여기에 상응하는 두형태의 외교방법간
의 그리고 두형태의 외교기술간의 투쟁은 결코 외
교문제 전문가들에만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다。이 투
쟁은 전세계인민들의 절실한 리해관계에 저촉하고
있으며 현대의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

五、외교와 국제법

외교와 국제법의 호상관계는 어떠한것인가? 마
치 외교를 국제법의 일부로 또는 이와반대로 국
제법을 외교의 일부인것같이 주장함으로써 이 두개
념을 동일시하고 있는것을 문헌상에서 가끔 볼수 있
다。그러나 동일시하거나 외교를 기계적으로 국제
법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국제법을 외교에 포함시
키거나 하는것은 모두 그들의 호상관계에 대한 문
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사실에 있어서 이 호
상관계는 매우 복잡한것이다。

국제법의 규범(規範)들은 제국가들의 공식적인
호상관계에 있어서 국가들에 의하여 창조되고 있으며
적용되고 있는바 이러한 관계는 주로 외교의 수단으
로써 유지되고 있다。그러므로 외교는 국제법 발전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역활을 한다。일정한 국가의
외교는 그 국가의 대외정책목적의 실현과 그 국가의
리해관계의 옹호를 촉진하는 일정한 일반적 원칙을
제기하고 있다。이러한 원칙들이 다른국가들에 의하여
승인되는 경우에 국제법의 규범으로 될수있다。례를
들면 헨리四세때 하프스부르그왕가(王家)의 강화
를 반대하기 위하여 불란서외교가들에 의하여 제기되
었으며 그후에 경쟁자를 반대하는 군사동맹체결의
공식적 동기로써 또한 령토강점의 정당화를 위한 공
식적 동기로써 불란서나 기타국가들에 의하여 적용되
고 있던「정치적 평등」이라는 원칙은 그러한 국제법
의 규범이다。이 원칙은 十七세기 四十년대에 있어
서 이미 문스테르와 오스나부르크에서의 외교담판
에서 역활을 놀았고 十八세기의 초엽에 이르러서
는 一七一三년 우트레흐트 평화조약에서 국제법의
원칙으로서 정식 인정되었다。패배당한 불란서의 리
해관계를 옹호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으로서 웨나회의
에서 타레란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그후 적어도 신
성동맹의 전존재기간중에 국제법의 원칙으로서 인
정되고 있던「정통왕조주의(正統王朝主義)」도 그러
한것이였다。十九세기 제一•四분기에 신성동맹의

간섭기도로부터 미대륙을 수호하기 위하여 미국외교
관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그후에 미 제국주의 자들이
미대륙과 그리고 아세아의 광범한 지역과 심지어
는 구라파에 대해서 까지 지배권강요를 실현하기 위
하여 미국의 외교실천에 있어서 광범하게 적용된
「몬로주의」도 역시 그러한것이다。이「몬로주의」
는 그 시초의 의의가 제국주의적으로 의곡된 결과
로 그의 국제법적 의의가 극히 의심스럽게 되었다는
조건부이지만 국제련맹의 조항에서 국제법의 지방
적 규범으로 약간의 승인을 받았던것이다。

현재에 있어서 쏘베트외교의 국제법창조는 가장
현저한것이다。쏘베트외교는 평화옹호의 새로운 방법
들과 국제협력의 새로운 형태들을 창조하였다。쏘
베트외교는 전반적 평화와 안전을 보지하는 원칙들
을 국제법의 기초에 올려세웠으며 침략의 검증을
위한 국제법의 규준을(一九三三년의 런던협정) 확
립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침략행동을 합법화하
며 정당화하려는 있을수 있는 기도에 대한 장애물을
설정하였으며 국제법에 두소유체계 즉 자본주의적
소유와 사회주의적 소유의 동등권에 관한 원칙을 도
입하였으며 유•엔헌장에서 민족자결권등의 원칙을
승인케하였으며 평화보장과 국제협조(국경위원회의
규정 상업대표단 및 기타)에 관한 허다한 새롭고
특별한 규정들을 실시하게 하였다。

외교는 국제법의 새로운 원칙들과 새로운 규정
들을 창조하는동시에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다년간
의 실천을 종합분석하는 과정에서 또한 전통과
각국가의 국체(國体)의 영향하에 형성된 현행 원칙과
규정 및 심지어는 광범히 보급된 법률학설까지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외교에 의
한 이러한 원칙과 규정들의 적용은 해당한 력사
적 조건에서의 그러한 원칙과 규정들의 실지적 내
용에 대하여서와 그들의 전체 발전과정에 대하여 큰
영향을 준다。때때로 외교에 관한 저작들중에서는 외
교활동이 국내의 국가활동보다도 더욱 엄격한 법적
규범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는것이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첨부할수 있는것은 유일한 립법자와
해석자 또는 그 집행을 보장하는 기관이 없는 국제
법 규범자체는 국내법의 규준보다 그 확실성과 안정
성이 적다는것과 또한 이 국제법의 규범은 그것
을 적응하는 정치가의 영향에 의존하고 있다는것이
다。그리고 국내의 행정적 및 사법적 실천이 여기
에 작용되는 법적 규범에 현저한 영향을 주고 있다면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국제법의 규범에 대한 실천의
영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국제법의 규범을
적용하는 외교는 국제적인 정치적 내용으로써 그것
을 충실하게하며 여기에따라 그 규범들의 의미와
모든 의의는 변경될수 있다。

맑쓰―레닌주의적 과학의 기본적인 방법론적 요구의 하나는 어떠한 국가적 및 법적 요구, 규정, 규범 및 질서라도 어떠한 사회적 조직형태이라도 그것이 가지는 내용에서 평가한다는것이다. 조직의 사회주의적 형태로서의 끌호즈와 쏘베트를 평가하면서 쓰딸린동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모든것은 이 형태에 어떤내용이 잠겨있는가에 달린것이다.」「레닌주의의 견지로 보아서 끌호즈들은 쏘베트와 마찬가지로 조직의 형태를 가진 무기이요, 오직 무기일 따름이다.」「모든 문제는 이 무기가 누구의 손에 있으며 또한 그것이 누구를 반대하여 돌려지게 될까하는 거기에 있는것이다.」 (쓰딸린 「레닌주의의 제문제」 十一판 四〇四페지 四〇六페지)

맑쓰주의의 이러한 방법론적 원칙은 국제적 관계에서의 법적 형태들을 분석하는데 특히 적용된다.

국제법은 오랜 세기동안의 자기 발전에서 각이한 력사적 시대의 성층(成層) 즉 진보적시기와 반동의시기의 사조(思潮)를 흡수하였다. 그렇기때문에 거기에는 진보적 또는 반동적인 원칙과 규정이 들어있다. 그러나 이런 또는 저런 원칙이나 규정을 평가하는데 결정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것은 해당한 시기에 있어서 원칙이나 규정이 표현되고 있으며 견고히 되고 있는 정책이다. 국제법의 동일한 규정과 규범이 직접 반대되는 목적에 적용된 일이 한두번만이 아니었다. 국제법의 가장 진보적인 원칙과 규범들이 반동적 외교의 수중에서 반동정책의 무기로 변할수 있다. 명백한 실례로 되는것은 十九세기초엽에 서진적 부르죠아국가들을 봉전적 전제군주들의 간섭으로부터 옹호하기 위하여 제기되었던 불간섭정책인바 이것이 二〇세기 三〇년대에 와서는 영국과 불란서의 통치배와 그들의 외교관에 의하여 다른국가들에 대한 파시스트침략을 장려하기 위하여 리용되었고 또한 최근에 와서는 유·엔헌장에서 확실하게 출발하고 있는 정당한 국제적 조치로부터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서반아 프랑코제도를 옹호하기 위하여 국제련합기구내의 영 미뿔럭의 외교관들에 의하여 리용되고 있다.

일면 쏘베트외교는 국제법의 진보적 원칙(주권(主權) 내정불간섭 조약준수 및 기타)에 내포되고 있는 민주주의적 내용을 현저하게 강화하고 심각하게 하였고 세계의 그 어느나라도 결코 실시한 일이 없는 그러한 첩저성을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고 있을뿐만 아니다. 그는 또한 전제주의적 및 부르죠아적 국가들의 실천에 있어서 이런 또는 저런 국가에 유리한 「세력균형」을 준비하는 기초위에서 군사―정치뿔럭을 창설하거나 또는 정치적 도박을 위하여 리용되고 있었으며 이미 오래전에 구성된 국제법의 규정까지도 여기에 전혀 새로운 정치적 내용을 포함시키어 평화의 확보와 제인민들의 안전을 위한 도구로 전환할수 있었다. 외교사전에 게재된 「외교」라는 론문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있다. 「쏘베트외교는……린접국과의 불침범조약(최초에는 一九二五년 토이기와 그다음에는 동방과 서방의 제린접국들과의)의 이미 망각되고만 조례들을 재생시켰으며 또한 이 조례에 못하지않게 중요한것이지만 호상중립 또한 적대적 련합에 불참가함에 관한 조문의 형태로, 새로운 형태로써 그를 풍부하게 하였던것이다. 이것은 평화의 공고화를 지향하는 외교조례에 있어서 새로운 설교이었으며 쏘베트외교는 이것을 정당하게 자랑하고 있다.」(「외교사전」 一권 五七六페지) 이와같은것은 외교력사상에 일찌기 있었던것과같은 동맹이나 군사적 보장에 관한 모든 협정과는 그 근본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상이하며 또 평화와 제인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새로운 방법의 무기고에 대한 귀중한 기여로 되고 있는 쏘베트동맹과 어떤 국가들간에 체결된 호상원조조약에 관해서도 말할수 있다.

국제법의 규범과 규정의 실제적 내용을 변하게하는 외교의 영향에 관하여 상술한 모든것에 첨부하여야할것이 있는바 그것은 즉 각이한 국가의 외교가 이런 또는 저런 국제법의 공식에 각이한 의의를 집어넣을수 있을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의 각이한 단계에 있어서의 부르죠아외교의 경험이 특히 훌륭하게 증명하고 있는바와 같이 각이한 력사적 시기에 있어서 동일한 국가의 외교가 각이한 대외정치적 목적을 옹호하기 위하여 국제법의 전혀 동일한 원칙을 변경시킬수 있다는것이다. 례를 들면 상술한 몬로주의의 내용은 미국의 대외정치의 력사기간에 몹시 변하였다.

이상과 같은것이 실제생활에 있어서의 외교와 국제법사이의 호상관계이다. 이 관계는 극히 긴밀하나 결코 기계적이 아니고 현상의 전반적 련관에 관한 변증법적 법칙이 발현되고 있는 변증법적 호상관계인것이다. 이와동시에 그는 국제적 관계의 실례에 있어서 「각이한 구체적 력사 조건하에서는 동일한 사상이 반동적으로도 될수있고, 진보적으로도 될수 있다는 맑쓰주의의 유명한 원칙」을 확증하고있다. (아·스다노브 철학의 제문제 一권 一九四七년판 二八三페지) 그런데 만약 외교활동에 있어서 국제법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국제법의 완전한 리해는 실천에 있어서 국제법의 규범들이 여하히 적용되며 여기에 있어서 그 규범들의 정치적 의의가 어떻게 본질적으로 변경되는가를 보여주는 외교사의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외교와 국제법의 호상관계에 대한 문제에는 또하

나다른면이 있다。국제법은 외교의 조직형태, 활동질서 및 그의 법률적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에 제공되는 국제법의 규범과 규정들은 국제법의 특별한 부문을 형성하고 있다。국가정권의 최고기관이나 국외의 특별기관 즉 국외에 있는 국가의 외교대표들에 의하여 실현되는 국제대표단에 대한 국가의 법률은 외교의 활동 및 규약의 일반적 법률적 기초로 된다。외국에 있는 특별기관에 관계되는 국제법의 규범은 사절법의 일반적 개념에 속한다。사절법은 외교대표의 임명, 채용 및 소환 절차와 그들의 등급 외교관계에서의 그들의 지위, 기능, 권한, 외교담관에서의 책임들을 규정하고 있다。끝으로 사절법은 현대문헌에서 때때로 외교적 특권이라는 일반적 개념을 의미하는 외교에서의 그들의 국제적 지위 즉 특별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 × ×

이상과 같은것이 외교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이며 리론적인 개관을 우리에게 준다。물론 이상의 모든 내용은 표제의 제목에서 지적된 모든것을 아주 불충분하게 기록한것이며 또 아무래도 그를 완전하게 서술할수 없다。이 서술은 오늘에 있어서 원칙적이며 실천적인 큰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외교 및 국제법에 대한 저작들중에서 비교적 적게 해명되고 있는 외교의 개념의 특수한 분석에 대한 최초의 접근에 불과하다。국제관계의 리론적 문제에 대한 강구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의 과학을 훨씬 앞서고 있는 쏘베트과학은 외교의 개념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돌리어 더욱 충분하게 또 심각하게 강구하여야 할것이다。

(「쏘베트국가와 법률」一九四八·九)

「전동맹공산당(볼쉐위크)력사」연구자료 (二十三)

전쟁 평화 및 혁명에 관한 볼쉐위크당의 리론과 전술

박 영

一、

어떠한 력사적 시기에 있어서든지 어느 국가나 민족이 전쟁의 위험에 부닥치게 된다면 무엇보다 먼저 닥쳐오는 전쟁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국가나 민족의 흥망을 결정함에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만일 어떠한 국가나 민족이나 인민들이 전쟁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적절하게 취하였다면 그는 발전을 계속 보장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멸망 또는 쇠약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이 부닥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국가나 민족이나 계급이나 사회활동가들까지 그 전쟁을 지지하든가 혹은 반대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립을 지키든가 하는 태도문제를 심각히 연구하게 된다。그런데 전쟁에 대한 옳은 태도를 가지려면 우선 전쟁에 대한 성격을 정당히 평가할줄 알아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 반드시 전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면 전쟁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여러가지다。

맑쓰 이전의 철학가나 현대 부르죠아 정객들이나 학자들은 한사람도 전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못하였으며 또 하려고도 하지않는다。다수의

부르죠아 학자들은 전쟁을 「영원한 존재」라고 설명하기 위하여 온갖 허위적 선전들을 함으로써 부르죠아 상층배들에게 복무하고 있다。

례를 들면 독일교수 니꼴라이란 자는 자기의 저서 「전쟁생물학」가운데 쓰기를 「전쟁애(戰爭愛)는 인민의 피 가운데 들어 있다」, 「강대한 민족은 승리하며 약한 민족은 멸망한다。 이러한 길은 멀고 류혈적이다。 그러나 역시 그 길은 높은 데로 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존경쟁과 마찬가지로 전쟁은 무조건하고 유익한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니꼴라이는 전쟁에 대한 애착심이 사람에게 동반되어 있는것 같이 보이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사람이 있는 한 전쟁이 없을 수 없다고 설명하려는 것이다。

또 다른 부르죠아 학자들은 전쟁을 「누가 먼저 진공하였느냐」하는 것으로써 전쟁의 성격(정의의 전쟁 또는 부정의의 전쟁)을 규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규정도 얼핏보면 옳은것 같이 보인다。

왜 그러냐하면 대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침략자는 미리부터 전쟁을 준비하고 불의의 침공을 하기 때문이다。 쏘련에 대한 독일의 침공 중국에 대한 일본의 침공들이 바로 그의 실례로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는 근본문제로 될 수는 없다。

제一차 제국주의전쟁에 있어서 보는 바와 같이 누가 먼저 진공을 하였든지를 물론하고 다 부정의의 전쟁을 하였던 것이다。

물론 침략자가 평화애호민족을 반대하여 강점적 침략전쟁을 준비해 가지고 먼저 진공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의론할 것도 없이 그는 부정의의 전쟁이지만 이와 반대로 평화애호민족이 타국의 침략적 준비를 미리부터 예견하고 침략자의 진공보다 먼저 진공을 시작하거나 외국강점자의 억압하에서 신음하는 민족이 그 정복자를 반대하여 전쟁을 시작하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쟁의 성격이 정의의 전쟁으로 될 것이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러한 구별도 없이 덮어놓고 먼저 진공한 나라는 다 부정의의 전쟁을 시작한 것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다른 부르죠아 리론가들은 「군대가 어디에 주둔하고 있는가」하는 것으로써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리론가」들과 그의 지지자들은 만일 군대가 자기 령토 내에서 싸우고 있으면 그것은 정의의 전쟁이고 남의 령토에서 싸우고 있으면 그는 부정의의 전쟁이라고 규정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이 옳지 않다는 것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제二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쏘베트군대가 독일 강점자들의 점령하에 있는 파란, 루마니야, 체코슬로바키야, 유고슬라비야 및 기타 나라 인민들을 해방할 목적과 파시스트세력을 완전히 소멸할 목적으로 외국령토에 까지 파시스트군대를 추격하였다 하여 그것때문에 그의 정의적 성격이 감소될 리유는 조금도 없는 것이다。

강점자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어느곳이나 그 세력의 근원지가 있는 곳까지 그를 추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레닌은 일찌기 사회주의 조국방어에 대하여 「다른 령토에서 자기국가를 방어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던 것이다。

만일 자국 령토 내에서 전투행동을 하게 된다면 전쟁에 대한 피해가 불피코 더 클것이기 때문이다。

× × ×

맑쓰―레닌주의자들은 전쟁에 대한 그릇된 「리론」들을 반박하고 전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으며 그는 일정한 력사적 시기에 발생되었고 일정한 력사적 시기에 가서는 완전히 근절되리라는 것을 보이어 주었다。

인류력사에는 원시공동체와 같이 전쟁이 없은 사회도 있었으며 앞으로 영원히 전쟁이 없는 사회(공산주의 사회) 도 이미 오래 전부터 맑쓰주의자들에 의하여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전쟁의 성격과 전쟁발생의 원인을 어디서 구할것인가?

그것은 전쟁을 하고있는 나라들의 사회제도의 본질과 그 나라를 지배하는 계급들의 정책에서 보아야 한다。

인류사회 발전력사에서 보는바와 같이 원시공동사회(계급전사회)에서는 생산력 수준이 낮고 잉여물품이 없고 물질적 불평등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제도 하에서는 전쟁이 요구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무장적 조직(군대)이 필요치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보다 사회가 발전된 단계(개인소유의 시기)에 이르러서는 생활자료들을 략탈하며 그를 위하여 경제적 정치적 충돌(계급적 충돌)들이 생기게 됨에따라 전쟁이 발생되게 되었다。

레닌이 말씀한 바와같이 「전쟁은 개인소유기초의 직접적 또는 피치못할 마찰의 모순에서 생기는것」이다。

레닌은 그의 유명한 저서 「국가와 혁명」에서 국가가 상용될수 없는 계급적 모순에 의하여 한계급이 다른계급을 압박하는 기관으로서 생겼으며 국가가 가지는 특색의 하나로서 자기 자체를 무장한 세력(전쟁을 위한)으로 조직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동시에 레닌은 계급사회의 불상용적 모순의 경제적 기초가 생산수단의 개인소유와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데 있다는 것과 이러한 개인 소유는 사회를 적대적 계급으로 또한 국가 민족등으로 분렬시킨다는 것을 밝히었다。(「국가와 혁명」조선어판 二三—二四페지참조)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은 계급사회의 발생으로 부터 생겼으며 인간의 불평등이 생긴시기부터 발생된 것이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바와같이 전쟁은 착취계급이 도발한다。

이 계급들은 상용될수 없는 사회적 모순을 전쟁으로서 해결하려고 시도한다。그렇기때문에 인간사회에서 전쟁을 근절하기 위하여서는 그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원인을 없애버려야 할것이니 그것은 곳 계급을 소멸하는것, 생산에서 개인소유제를 소멸하는것,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략탈적인 정책들을 근절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다。그러니까 전쟁을 없애자면 인간의 사회적 생활조건을 근본적으로 변경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론술한 바에 의하여 명백하여진 바와같이 어떠한 전쟁의 내용(성격 원인등)을 정당하게 파악하려면 우선 그 전쟁이 무엇때문에 하는 전쟁인가, 즉 그 목적이 어데 있는가, 어떠한 정책의 계속인가, 누구에게 유익한 전쟁인가 하는 문제들을 인식함으로써 해명할수 있는 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전쟁은 정책의 계속이다。전쟁에 앞서 정책을 즉 전쟁에로 인도하고 전쟁을 초래한 그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만일 정책이 제국주의적이었다면 즉 금융자본의 리익을 옹호하고 식민지와 타국을 략탈 억압하는 것이었다면 이 정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이다。

만일 정책이 민족해방적이었다면 즉 민족억압을 반대하는 대중적 운동을 표현하는 것이었다면 이러한 정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전쟁은 민족해방전쟁이다」。

그런데 정책의 원동력은 그의 경제적 기초와 계급성에 의하여 규정되는바 레닌은「정책은 경제의 가장 집중적 표현이며 그의 총결이요, 결산」이라고 하였다。그러니까 전쟁은 정책의 계속인 만큼 반드시 경제적 리해관계를 동반하는 것이다。어떠한 전쟁이든가 그것이 어떠한 형식으로 발생되었던가를 막론하고 일정한 정치적 목적과 어떠한 계급 국가 또는 그를 대표하는 지배적 그루빠의 경제적 리해관계와 련결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나라들의 통치배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대 함대 경찰 감옥등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이데올로기까지 만들어내는 것이다。

× × ×

전쟁을 발생시킨 나라들이 실시하는 정책의 본질과 성격에 따라서 전쟁의 성격 즉 정의의 전쟁 또는 부정의의 전쟁인가가 구별된다。

노예사회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 이르는 긴 력사기간에 일어난 모든 전쟁이 여러가지 형식과 명칭들을 가지고 있으나 그는 다만 두가지로 밖에 나눌수 없으니 곧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이다。다 아는 바와 같이 정의의 전쟁이란 어떠한 민족이나 국가의 령토를 침략할 목적이 아니라 략탈자들의 침략을 방위하거나 략탈자들의 강점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방적 성격을 띤 방위적 목적을 가진 전쟁을 말하는 것이다。따라서 부정의의 전쟁은 순전히 다른나라 령토를 략탈하며 타민족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려는 침략적 전쟁이다。

그러데 전쟁을 정의의 전쟁 또는 부정의의 전쟁으로 구별하는 표준은 이미 위에서 론술한 바와같이 전쟁에 참가한 나라들의 정책을 알므로서 가능하다。

만약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계급적 대립의 모순, 생산에서의 개인독립 제도를 가진 그러한 나라가 일으킨 전쟁은 부정의의 전쟁인 것이다。

그렇다면 제二차 세계대전에서 영 미제국주의자들이 쏘련의 편에 서서 독일 파시스트를 반대하여 자기의 무력을 동원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수 있다。그것은 물론 진보적 성격을 가진 군사적 행동이었던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그것이 쏘련의 립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침략적 의도에서 출발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할 것이다。

우리는 쏘독전쟁에 있어서 쏘련의 가장 곤난한 시기에 영 미제국주의자들이 오랫동안 제二전선 결성을 주저하고 있었던것을 알고있는 바이며 그들이 독일과 쏘련을 동시에 쇠약하게 만들려고 시도한것을 알고있는 것이다。만일 전쟁행정에서 독일이 우세하였다면 그들은 의식할것도 없이 독일의 편에서서 쏘련을 반대하여 자기의 무력을 동원하였을 것이다。

그들의 진목적은 구라파에서 주인이 되려고 한 것이었으니 그는 전후 四개년간의 그들의 정책에서 명백히 표현되고 있다。

이제 몇개의 중요한 전쟁들을 분석하여 본다면 제一차 세계대전은 그것이 완전히 제국주의 두 진영간의 침략전쟁이라는 것은 이미 위에서 지적한 바이며 제二차세계대전은 부정의의 전쟁이면서 또한 정의의 전쟁이다。

파시스트독일 이태리와 군국주의 일본 및 기타 동맹국들은 가장 흉악한 침략적 전쟁을 도발하였으며 쏘련을 비롯하여 영 미 및 기타동맹국가들은 정의의 전쟁을 하였던것이다。 一九一八년부터 시작된 쏘련의 공민정쟁은 十四개의 제국주의국가들의 침략적 간섭을 반대하고 사회주의 조국을 옹호하기 위한 해방적 정의의 전쟁이었다。

一八一二년 로불(露佛)간의 전쟁으로 말하면 당시 불란서의 나뽀레온은 침략적 전쟁을 도발하였으며 로씨야는 그를 방어하기 위한 정의의 전쟁을 하였다。

그러나 이 전쟁은 一八一四년에 이르러 로씨야군대가 자기나라를 해방하고 타국의 령토에 침입하기 시작(침략적 기도를 품고)함으로써 로씨야는 정의의 전쟁으로부터 부정의의 전쟁에로 넘어가게 되었다。

二、

불쉐위크당은 전쟁이라 해서 무조건하고 반대하는 단순한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그러한 당이 아니다。

불쉐위크당의 견지로 보아 반대하여야 할 전쟁이 있으며 반드시 지지하여야 할 전쟁이 있는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전쟁때에 민주주의의 수호(守護)나 드

는 민족 압박의 질곡을 반대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나는 조금도 이러한 전쟁을 반대하지 않으며 조국수호라는 말이 이런 전쟁이나 폭동에 관한 것일진대 그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자들은 억압받는 자들의 편에 항상 가담하며 따라서 그들은 억압을 반대하는 민주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투쟁을 목표로·하는 전쟁의 적대자로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레닌은「우리 맑쓰주의자들은 반혁명적 인민을 반대하며 혁명적 전쟁을 위하여 언제나 섰으며 또 서고 있다」고 하였다。

레닌의 이 말씀을 제二차대전에 적용한다면 독일에 있어서 전쟁을 직접 도발한 자는 파시스트 상층배이지만 적지않은 인민들이 그 전쟁을 지지 찬동하였던 것이니 이러한 인민들도 역시 전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혁명적 전쟁은 평화를 위한 문제와 결부된다。 불쉐위크당은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도발하는 제국주의 부르죠아 정권을 타도하는 혁명적 전쟁을 반대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불쉐위크당은 평화문제를 반드시 프로레타리아혁명과 결부시켜 생각하는 것이니 오직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승리만이 전쟁을 근절하고 평화를 보전할 수 있기 대문이다。

「제一차제국주의 전쟁에서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배층들은 물론 제二국제당 기회주의자들과 구라파 여러나라 사회민주당내 변절자들과 로씨야의 멘쉐위크, 에쓰에르들은 이 전쟁 초기부터「조국방어」라는 허위적 구호를 들고 나서서 지지하였다。

짜리정부의 대변인들은 독일이 침공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우리조국을 방어하기 위하여 전쟁을 해야 한다고 떠들었으며 독일제국주의자들은 로씨야가 우리를 반대하여 전쟁을 준비하기 때문에 미리 손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다른 제국주의자들도 이와같은 소위 주장으로써 자기의 침략적 기도를 은폐하고 제국주의략탈전쟁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레닌-쓰딸린이 령도하는 불쉐위크당만이 처음부터 이 전쟁의 략탈적 본질을 가장 정당하게 평가하였으며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옳은 투쟁구호들을 당과 인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레닌은『누구의 잘못으로 전쟁이 일어났는가?』하는 물음에 대답하기를『여기에 참가한 모든 제국주의자들이 다 잘못이다。 어느국가를 물론하고 또 누가 먼저 진공을 했든지를 론할것 없이 그의 목적이 다국가 타민족을 략탈하고 그를 자기에게 예속시키려는데 있다』라고 폭로하면서 레

닌은 불쉐위크당앞에 다음과 같은 투쟁구호를 제기하였다。

첫째로 불쉐위크당은「제국주의전쟁을 국내전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一九一七년 三월二十六일(四월八일)「스이스로동자들에게 보내는 고별(告別)편지」에서 레닌은 이 투쟁구호가 이미 一九一四년 十一월에 벌써 불쉐위크들에 의하여 제창되었으나 그 시기에는 이 표어가 사회-애국주의자(※)들의 조소와『중앙파』사회민주주의자들의 침묵으로써 대답되었으며 독일의 사회애국주의자 다비드는 이 표어를『얼빠진것』이라고 말하였으며 로씨야의 사회애국주의자인 뿔레하노브는 이 표어를『환상희극』이라고 비웃었으나 그러나 一九一七년 三월 후인 지금에 와서는 오직 소경만이 이 표어가 옳은것을 보지못할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레닌선집 조선어판 一〇권 二六폐지 참조)

(※)사회애국주의자란 말로서는 사회주의를 운운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기회주의자들이다。 제一차대전에서 이자들은 각나라 근로자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적인 자기나라를 위하여 손에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한다고 소위『조국옹호』라는 구호를 내걸고 인민들을 기만하면서 그들을 전쟁터로 이끌어 내기에 광분하였다, 사회-배외주의자 사회-제국주의자라는

것도 이런종류의 사람들을 말함이다。

「이 구호는 군복입고 무장된 로동자 농민을 포함한 근로대중이 만약 전쟁을 종결시키고 공정한 평화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들의 총뿌리를 자국의 부르죠아지에게 돌려서 그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당사 二八九페지)

레닌은 그의 유명한 四월테제(一九一七년 四월)의 첫항에서 전쟁에 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태도문제를 천명하였던 것이다。

레닌은 멘쉐위크「에쓰에르」들의 소위 혁명(一九一七년 二월 부르죠아혁명)을 독일 제국주의자들의 침범에서 방어한다는「혁명적 방어주의」를 철저히 폭로하면서 부르죠아 또는 부르죠아화한 지주로 구성된 림시정부가 실시하는 전쟁이 다만「방어전」이라고 기만하는「혁명적 방어주의」에 대한 사소한 양보라도 그것은「사회주의에 대한 변절이며 국재주의에 대한 부인」이라고 규탄하였다。

그러면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혁명적 전쟁(정의의 전쟁—필자)에 대하여 자각한 프로레타리아트는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밑에서만 동의할수 있는것이다。

「ㄱ、프로레타리아트 및 그에 가까운 빈농민의 손으로 정권이 넘어가는것

「ㄴ、말로서가 아니라 사실에 있어서 모든 침략을 거적할것

ㄷ、사실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모든 리해관계와 철저히 인연을 끊을것 등등이다」(레닌선집 조선어판 一〇권 二九페지)、

레닌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一九一七년二월—三월의 로씨야혁명은 제국주의전쟁을 국내전쟁으로 변화하는 개막이다。이 혁명은 전쟁의 종식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였다。다만 둘째걸음만이 전쟁의 종식을 보장할것이니 그것은 곧 국가주권이 프로레타리아트에게로 넘어가는 것이다。이것은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리익의 전선을 깨뜨리는 개막이 될것이요、또한 이 전선을 깨뜨리고야말 프로레타리아트는 전쟁의 위험속에서 인류를 건져내여 그 인류에게 견고한 평화와 행복을 줄수 있는 것이다」(레닌선집 조선어판一〇권 七九페지)

볼쉐위크당은 전체 당원들과 로씨야인민들에게 나아가서 전체 사회민주당들과 자유애호인민들에게

「제국주의전쟁에 있어서 자국정부의 패배」라는 투쟁구호를 내걸었다。

이 구호는 로씨야멘쉐위크 에쓰에르(사회혁명당)들과 제二국제당배신자들이 떠드는 부르죠아조국옹호정책과는 정반대되는 혁명적 구호이다。이 구호는

1. 반드시 군사차관을 반대하여 투표하며、

2. 군대내에 비합법적 혁명조직을 결성하며、
3. 전선에 있어서 각국 병사간의 형제적 친목을 지지하며、
4. 전쟁을 반대하는 로동자 농민의 혁명적 행동을 조직하며、

이 모든행동을 자국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봉기로 전환시켜야 한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볼쉐위크당의 이 구호에 의하여 전선에서 로씨야 짜리군대와 독일 불란서 병사들이 호상교환(交歡)하였으며 폭동을 일으켰다。

일례를 들면 흑해연안에 정박중이던 불란서 함대에서 안드레마르찌(※)라는 병사의 주도적 활동에、의하여 불란서 해병들과 로씨야군인들과의 친목을 도모하며 함대를 불란서 본국으로 돌려보낼 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안드레마르찌는 지금도 불란서 공산당원으로서 평화옹호활동가이다。

볼쉐위크당의 이러한 투쟁구호는 전쟁의 환경을 옳게 리용함으로써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려는것이다。이것이 바로 전쟁과 혁명에 대한 레닌—쓰딸린당의 전술이다。

레닌은 이러한 투쟁구호들을 제기하면서 전체당원들과 인민대중들에게 프로레타리아트혁명의 승리에대한 과학적 설명을 줌으로써 그들을 승리에로 고무하였다。우리는 어떠한 실례를 一九一六년 봄에 쓴 레닌의 유명한 저서「자본주의최고계단인 제국주의」에서 볼수 있다。

이 저서에서 레닌은 제국주의에 대한 제특징을 연구하면서 제국주의 시대의 자본주의경제 및 정치적 발전의 불균형성의 법칙을 발견하였다。

이때에(불균형적으로 발전하는때에) 한나라가 자기 발전에 있어서 다른 나라를 앞서가며、이와 관련하여 자본주의 렬강간의 세력관계가 변하며、이 나라들 사이에 시장과 령토를 재분활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첨예화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때에 세계재분활을 위한 제국주의의 전쟁이 불가피적으로 일어나게 된다。제국주의의 전쟁의 행정에서 제국주의전선의 력량들은 약화되며 제국주의의 가장 약한 지점에서 그 전선을 파괴할 가능성이 조성된다。레닌은 제국주의를 사멸해가는 자본주의라고 정의하면서「제국주의는 프로레타리아트 사회주의혁명의 전야이다」라고 말하였다。

이 모든 점으로부터 한국가에서 사회주의의 승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짓게되었다。이와 같이 레닌은 사회주의혁명에 대한 새 리론을 창조하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경제적 및 정치적 발전의 불균형성은 자본주의의 절대적 법칙이다。이로 말미암아、사회주의의 승

처음에는 소수 혹은 심지어 단독적으로 한개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가능하다」(레닌선집 一八권 二三二페지)

자본주의의 불균형적 발전에 대한 실제적 경험은 적지 않으나 그중 한가지 례를 들면 十九세기 七〇년대의 형편에서 보는 때에 영국은 벌써 그 이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이었으며 불란서는 제二위에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있어서 독일은 아직도 자국의 통일도 보장못하고 대소(大小) 三八〇여개의 독립국가로 분렬되어 있었다. 심지어 한도시가 독립국가인데도 있으며 좀 큰나라만 하여도 八十여개에 달하였다。

그러나 一八七〇—一八七一년의 보불전쟁(普佛戰爭)이후 독일은 통일되었으며 급속한 발전을 보게되어 영국 불란서를 좇아갔을 뿐만 아니라 十九세기말 또는 二十세기초에 와서는 그를 릉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각나라의 발전정도가 동일하지 않기때문에 수개국에서 동시에 혁명이 발생할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비교적 순조롭게 발전하던 독점시대이전에 생존하신 맑쓰—엥겔스는 사회주의혁명이 문명한, 전체 나라들에서나 혹은 수개국에서 동시에 승리할수 있으나 단독적으로 한개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였다。

문제의 이러한 설정은 이 시기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이었다。그러나 맑쓰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레닌은 새 력사적 환경에서 새로운 결론을 지음으로써 맑쓰주의를 더욱 풍부케 하였으며 앞으로 발전시키었다。

레닌이 창조한 사회주의혁명에 대한 전술상 새발명은 이 시기에 와서 처음으로 제기된것이 아니라 이미 一九〇五년에 발간된 레닌의 유명한 저서 「부르죠아 민주주의혁명에 있어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두가지 전술」에 풍부히 예견되었었다。이 저서에서 레닌은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에 대한 탁월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저서에서 레닌은 부르죠아 민주주의혁명에 있어서 령도권을 응당 프로레타리아트가 잡아야하며 또 잡을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론증함으로써 맑쓰주의의 보고가운데 새로운 전술적 원칙을 보충하였다。

또한 짜리제를 전복하고 민주공화국을 전취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써 프로레타리아트를 무장폭동에 조직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더우기는 이러한 민주주의적 과업이 수행된 다음에는 「부르죠아민주주의 혁명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든 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사회 민주주의자의 의무라고 주장하였다」(당사 一

二七페지)

계속혁명에 관한 레닌의 전술은 그의 四월테제에서 더욱 천명되어 一九一七년 二월 부르죠아 민주주의혁명에서 부터 一九一七년十월 프로레타리아혁명에로 「넘어가는 투쟁에서 불쉐위크당의 지침으로 되었다。

레닌의 탁월한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한 로씨야의 혁명적 로동자 농민들은 「제국주의전쟁의 국내전쟁으로의 전화」라는 불쉐위크당의 구호를 훌륭하게 실천함으로써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을 승리하였다。

사회주의 十월혁명은 제국주의전쟁행정에서 폭발되었으며 프로레타리아트의 승리로서 종결되었다。

이랬던 까닭에 十월혁명은 비교적 쉽게 승리할수 있었다。만일 제국주의 전쟁의 환경이 아니었더라면 혁명을 반대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무력간섭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다。

불쉐위크당의 이 구호는 오직 로씨야인민들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회민주당들과 자유애호인민들을 혁명에로 고무하였다。

一九一七년十월혁명을 계기로 구라파의 각나라들에서 자국의 지배층들을 반대하는 폭동들이 전개되었으나 그러나 그 혁명운동을 지도하여야할 사회민주당의 지도층들은 이미 전쟁행정에서 변절하여 제국주의전쟁의 지지자로 나섰기 때문에 혁명운동을 승리에로 이끌만한 지도적 당들이 없었으므로 모두다 실패에 돌아갔다。

오직 불쉐위크당만이 제국주의전쟁을 프로레타리아트혁명에로 전환시키는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보장하였다。

× × ×

불쉐위크당의 이러한 투쟁의 결과로서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을 승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의의 평화를 가져올수 있었던 것이다。

쏘베트정권은 짜리정부가 다른 제국주의국가들에게서 진 부채들을 물지않았으며, 브레스트강화조약에서 독일에게 주게하였던 령토와 배상금들을 물지않았다—다시말하면 잃은것도 없고 빼앗은것도 없는 공정한 평화를 보장하였다。

그러나 평화문제에 있어서 당내에 론쟁이 없은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이미 불쉐위크당 력사에서 뜨로쯔끼가 브레스트강화조약체결을 파탄시키려고 시도함으로써 당과 쏘베트정권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사실들을 알고있으며 뜨로쯔끼를 지지한 부하린 라디크등 소위 「좌익공산주의」 대표자들이 강화조약 체결을 반대한 사실들을 알고있다。

「좌익공산주의자」들은 「브레스트강화가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당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용납될수 없는 유해한 제국주의자와의 타협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레닌전집 조선어판 一六권 二六페지)

이에 대하여 레닌은 간단한 통속적인 비유로서 다음과같이 반박하였다。

「당신이 탄 자동차를 무장한 강도단이 붙들었다고 가정하자。당신은 그들에게 돈과 신분증명서와 권총과 자동차를 내줄 것이다。그리하여 당신은 강도들과의 알뜰한 힐난에서 벗어난다。이것이 타협인것은 사실상 분명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타협을「원칙적으로 용허할수 없다」거나 또는 이러한 타협을 한 사람을 강도들의 공범자라고(비록 강도들이 그 자동차와 무기를 새로운 략탈에 쓸수 있다고 하더라도) 말할 사람은 정신병자아닌 사람 이외는 얻어보기 어려울 것이다」。

(레닌선집 조선어판 一六권 二七페지)

레닌ㅡ쓰딸린의 지도하에서 평화를 실현할데 관한 볼쉐위크당의 투쟁의 결과로서 一九一八년 三월六일에 열렸던 제七차대회는 브레스트강화에 대한 레닌의 결의안을 통과하였다。

이로써 볼쉐위크당과 쏘베트정권과 쏘베트인민들에게 평화와 휴식이 보장되었으며 새로운 무력간섭자들을 반대하는 공민전쟁을 준비할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되었다。

물론 강화조약이 가장 가혹한 조건하에서 체결된 것은 사실이다。그러나「브레스트강화조약 교섭초기에 있어서 레닌은 적의 세력이 우리 세력보다 현저하게 우세인 경우에는 최대의 정력으로써 적에 대한 새 진격을 준비하기 위하여 질서 정연하게 퇴각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다는것을 당에 가르친것이다」

ㄴ、제二차세계대전에 있어서

제二차세계대전이 침략전쟁이면서 정의의 정쟁이라는것은 이미 위에서 지적한 바이다。쓰딸린은 벌써 전쟁이 일어난 첫날부터 전쟁의 성격과 본질에 대하여 명확한 대답을 당과 인민들에게 주었다。

파시스트독일이 불의의 침공을 한후 十一일만인 一九四一년七월三일에 쓰딸린은 자기의 라디오방송연설에서

「이 전쟁은 단지 두개의 군대간의 전쟁이아니라 동시에 독일파시스트군대를 반대하는 전쏘베트인민의 위대한 전쟁이다。

이 파시스트침략자를 반대한 전인민의 조국전쟁의 목적은 다만 우리국가에 림박한 위기를 청산할 뿐만 아니라 독일팟쇼의 압박에 신음하는 구라파인민을 구원하는데 있다。이 해방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고립하지 않을 것이다。우리조국의 자유를 위한 이 전쟁은 자국의 독립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구라파와 미국의 인민들의 투쟁과 결부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전쟁의 성격을 옳게 규정했기 때문에 능히 내릴수 있었던 것이다。그러나 이것은 용이한 일이 아닌 것이다。왜 그러냐하면 전쟁시기 특히 전쟁이 폭발되는 시기의 정세는 가장 미묘하며 가장 복잡한 것이어 일반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전쟁도발자들은 각종각양의 허위적 선전으로써 세계여론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끌려고 하는 것이며 침략적 기도를 정당화하기에 광분하는 것이다。

독일의 저명한 외교가「비스마ㅡ크」(一八一四ㅡ一八九八)는 말하기를ㅡㅡ「전쟁전과 사냥후에 처럼 많은 거짓말을 하는때는 없다」고 한것은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나 누가 어느나라가 어떠한 허위적 선전을 한다 하더라도 전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맑쓰주의자들을 속일수는 없다。쏘련은 전쟁 초기에 있어서 가장 큰타격을 받으면서 일시적 퇴각을 하였으나 볼쉐위크당은 인민들에게 나아갈길을 옳게 제시하였으며 승리에 대한 확고 부동한 신념으로써 인민들을 고무하였다。

전쟁초기에 있어서 쏘련군대가 일시적으로 퇴각하게된 주되는 리유는 전쟁초기에 팟쇼군대가 가지고 있은 아래와같은 일시적 특전(特典)으로써 설며된다●

첫째로 파시스트독일은 장기간에 걸쳐 전쟁을 준비하였으며 그 군대는 벌써 구라파에서 二년간에 걸친 침략전쟁을 하여왔으니만큼 완전히 동원된 상태에 있으며 그의 병력을 쏘련국경에 접근시켰던 것이다。

놈들은 전쟁의 첫순간에 벌써 一七〇개 사단을 동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쏘련군대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의 군대로서 특히 一九三九년八월 독일과의 사이에 체결된 불가침조약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완전히 평화건설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이미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야 자기의 병력을 동원하였던 것이다。

시간! 이것이 최초에 일시적이나마 파시스트군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되었다。

둘째로 독일은 이미 전쟁을 하고있는 국가로서 전체산업이 벌써 군수품 생산으로 개편되어 있었다。뿐만 아니라 독일은 이 시기에 구라파의 대부분의 국가ㅡ오스트리아、체코스로바키야、파란、유고슬라비야、덴마크、노루웨、베루기、오란다、룩셈부르그、불란서、희랍ㅡ들을 일시적으로 강점하고 있었으며 이 나라들의 산업이 파시스트군대를 위한 병기들을 생산하였다。

이랬던까닭에 최초에는 붉은군대보다도 더많은 땅크 비행기들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로 독일은 단독으로 쏘련을 공격한것이 아니라 그와 동맹하여 루마니야、필랜드、이태리、베루기가 전쟁을 시작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파시스트적 이스파니야 불가리야 일본이 독일을 원조하였다。

그러나 붉은군대는 단독으로 싸우지않으면 안되었다。

넷째로 파시스트군대는 이미 二년간의 전쟁에서 최신기술을 적용하면서 대규모의 작전을 수행한 경험을 쌓았으나 붉은군대는 아직 이러한 경험을 얻지 못하였다。「그러나 그는 전세계인류들 앞에서 자기들을 류혈적 침략자로 폭로시키었기에 정치적으로 실패를 보았다。

독일의 이 장구치못한 군사적 리득은 다만 한 장면으로 되었을 뿐이다。그러나 쏘련의 막대한 정치적 승리는 파시스트 독일과의 전쟁에 있어 심중하고도 장구한 원동력으로 되는것이며 이에 근거하여 붉은 군대의 결정적 군사상의 승리가 반드시 전개될것이다」(一九四一년七월三일 쓰딸린의 라디오연설에서)

사실상 독일군대는 쏘련을 침공하기까지는 자기의 병력보다 몇배나 적은 국가들을 상대로 전쟁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불란서가 큰나라이라고 할찌라도 불란서대자본계급중에서 나온 반역자들은 독일의 승리를 방조하였다。

그래서 히틀러선전자들은 이러한 일시적 성과를 리용하여「불패의 독일파시스트군에 관한 신화」를 류포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천재적 수령 레닌—쓰딸린에 의하여 창조되고 단련된 볼쉐위크당의 지도를 받은 쏘련인민들은 전쟁의 승패가 이러한 일시적인 조건에 의하여 좌우되는것이 아니라 전쟁의 운명은

1. 견고한 후방을 가지는가 여하
2. 군대의 사상적 통일 여하
3. 련대의 질과 량
4. 군대의 무장상태
5. 군관장교들의 조직적 재능 등

제반 실제적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는것을 알고 있기때문에 붉은군대의 일시적 퇴각에 실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련에 당면하는때마다 더욱더 튼튼히 볼쉐위크당과 위대한 령도자 쓰딸린대원수 주위에 단결되였던것이다。

× × ×

쏘베트 군대가 군사상으로 불리한 조건하에서 일시적 퇴각을 하고있던 시기인 一九四一년十一월

七일 사회주의十월혁명 제二十四주년기념 관병식에서 쓰딸린대원수는 전체 군인、정치일꾼、유격대원들에게

「전세계가 당신들을 독일략탈자들의 강도무리를 격멸할 능력이 있는 힘으로 바라보고 있다。독일강점자들의 압박에 빠져 노예화된 구라파인민들은 당신들을 자기들의 해방자로 바라보고있다。

위대한 해방적 사명이 당신들에게 부담되었다。이 사명에서 공훈자들이되라!」고 호소하였다。쓰딸린의 이 호소에 의하여 볼쉐위크당은 위대한 해방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인민들을 총동원하였다。

제二차세계대전은 볼쉐위크당의 이러한 투쟁에 의하여 인류의 가장 악독한 원쑤인 파시스트 독일 이태리와 제국주의 일본을 타도 분쇄하고 수많은 인민들을 제국주의의 야만적 압박하에서 해방하였다。

제一차와 제二차세계대전에서 볼쉐위크당이 전쟁의 환경을 옳게 리용하여 위대한 혁명적 투쟁을 전개하였던 결과 세계인민들에게 광명한 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제一차세계대전에서 사회주의의 새 기원을 열어 놓았으며 제二차세계대전에서 인민적 민주주의국가들이 나왔으며 약소국가들에 있어서의、민족해방운동과 제국주의국가들에 있어서의 로동운동이 급격하게 장성발전 되었다。이는 위대한 해방전쟁의 승리의 결과로서 인민들에게 정의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쏘련이 과거 자기를 반대하여 전쟁한 루—마니야와 필랜드에 대하여 그가 지불할 배상금의 절대한 부분을 면제하여준 한가지 사실에서도 명백하다。

만일 제二차 세계대전이 제국주의국가의 주동적 역활에 의하여 종결되었다면 오늘과 같은 평화는 가져올수 없었을것이며 따라서 약소국가들과 식민지 나라들의、인민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으리라는것은 상상하기 어렵지않다。

또한 해방전쟁의 승리의 결과로서 진보적 력량과 반동세력간의 력량배치가 변경되었다。그것은 민주주의력량의 거대한 장성과 반동세력의 약화로서 설명된다。

그는 이미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식민지 나라들에 있어서의 정세가 변경된것과 세계로동운동의 무한한 장성에서도 력력히 표현된다。一九四五년 쌘프란시스코회의에서 쏘련외상 몰로또브는「머지않은 장래에 비률빈、인도네시야、인도에서 해방의 기빨이 휘날릴날이 올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몰로또브의 이 예견은 이미 인도네시야 월남에서 실현되면서있다。

× × ×

위대한 해방전쟁의 승리적 결과로서 보장된 가장 중요한 사실중의 하나로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것은 전후 평화를 보장하고있는 그것이다。

일부 부르죠아학자들이 말하기를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이 제국주의 국가들과 동반된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공산주의자들은 무슨 까닭에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가?」고 비방한다。

그러나 제二차 세계대전의 경험이 말하는 바와 같이 미 영 제국주의국가들이 사회주의국가의 동맹국으로서 팟쇼독일을 소탕하는 전쟁에 참가하였던 것이다。

이는 두체계간의 평화적 협조가 가능하다는것을 실질적으로 증명한것이다。

一九四八년五월十七일 쓰딸린대원수는 월레스씨의 공개서한에 대한 답서에서

「쏘련정부는 경제체계와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량체계(사회주의와 제국주의一필자)의 공존과 쏘미량국간의 의견차이의 평화적 조정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또한 전반적 평화의 리익을 위하여 절대 필요한 것이라고 인증한다」。

오늘 전세계자유애호인민들이 국제적 협조와 대소각국의 자주권을 옹호하는 위대한 쏘베트동맹의 주위에 단결되어 미영제국주의를 선두로하는 국제반동세력의 새전쟁도발음모를 강력히 반대하여 나서고 있다。이 투쟁의 결과로서 전후 평화가 보장되고 있으며 평화옹호를 위한 인민들의 단결된 력량을 이겨낼 어떠한 힘도 없다。

보는바와같이 전쟁 평화 및 혁명에 관한 볼쉐위크당의 리론과 전술은 오늘에 있어서는 실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국제보도

지도간부들에 대한 사업

파란 통일로동당 중앙위원 제논·노바크

파란이 해방된후 인민정권과 당 앞에 직접적으로 제기된 여러가지 과업중에서 준비된 간부들로써 인민적 파란을 보장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과업의 하나이었으며 또 지금도 그런것이다。벌써 근 五년동안에 걸친 당간부사업은 자기의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우리는 히틀러 강점자들에 의하여 파괴된 파란을 부흥시키는데 있어서 다만 로동계급과 근로농민만을 동원시킬수 있었을뿐만 아니라 근로 인테리겐챠에 대한 당의 올바른 정책에 의하여 인테리겐챠의 대부분 특히 기술 인테리의 대부분을 건설사업에 인입하였다。

과거 우리당 지도부에 일부 존재하고 있던 우경적 및 민족주의적 편향은 간부를 선발하고 등용하며 교양주는 정책에 있어서도 옳지못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후보자들의 정치성에 대한 상당한 검토가 없이 책임적 지위에 임명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던 것이다。그 결과 여러 지역들에서 국가 및 경제기관 심지어는 당기관에 까지 기어들어온 이색분자들 때문에 중대한 지장을 받게 되었던바 이것은 이들 기관들의 사업에 반영되였던 것이다。우경적 편향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 특히 一九四八년 八월에 열린 중앙위원회총회 이후에 이 중대한 과오를 청산하기 위하여 많은 로력을 기울였다。

중앙위원회는 당간부의 교육과 당원들의 사상수준 제고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

현재에 이르기 까지에 두개의 중앙당학교 하나는 와르샤와에 있는 一년제학교이고 다른하나는 로드지에 있는 六개월제와 十六개의 三개월을 기간으로하는 지방 당학교가 있다。 시야간당학교와 강습회의 수는 천개 이상인바 그의 청강생 수는 八만명이나 된다。농촌 열성자들의 강습회는 七五○개 지방의 대표자들을 망라하고 있다。

중앙위원회 조직국은 이러한 당학습망을 불충분한 것으로 인정하고 당열성자들의 재교육을 일층 강화확대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수립하였는데 특별히 지방 당학교의 수업기간을 六개월로 연장시킨것과 로드지 중앙당학교는 一년제로 와르샤와 중앙당학교는 二년제로 할것을 결정하였다。

국가기관이나 산업과 농촌에 있어서 지도간부의 막대한 부족은 현재있는 학교 졸업생만으로써는 충당될수 없다。간부분야에 있어서의 기근을 청산하기 위하여서 당은 제작 로동자들一가장 능력있는 로동의 선진분자들을 지도적 지위에 등용하는 로선 즉 인

민석 파란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명도적 여할수 있게 강화시키는 이로서을 걸어왔으며 앞으로도 종전보다 더욱 용감하게 걸어 나아가야 할것이다.

중앙위원회 八월총회 이후 산서에 있어서의 간부 등용속도는 현저히 강화되었다. 당단체들이 이 사업의 중대성을 자각하고 이 사업에 훨씬 많은 주의를 돌티게 되었으며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간부의 자연발생적인 등용으로 부터 조직적인 등용에로 넘어 갔다는 것이다. 불충분한 자료에 의한다 할찌라도 금년 四월一일 현재로 지배인과 고급 및 중급 관리 일군의 자리에 一만五천명의 로동자가 등용되였는바 그중 섬유공업에 있어서는 三、六四六명, 석탄공업에 있어서는 二、九二五명, 야금공업에 있어서는 二、〇六六명 이다.

『뽀꾸이』주철공장에서 달성한 성과들은 모범적이다. 이 공장의 당위원회는 간부등용 사업에 있어서 우선 피 등용자들의 정치적 교양사업을 조직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하여 청강생들의 정치적 교양이 끝난 후에 기술 학습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三〇명되는 최근 졸업생들 중에서 十八명의 로동자가 기술자와 직공장의 직위에 이미 임명되었으며 나머지는 그 후비군으로 되고 있다. 훌륭한 전문가들이 선발된 사람들에 대한 지도자로 위임되었다. 『뽀꾸이』공장에서는 벌써 十八명의 이러한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각각 약간명의 괴 지도자를 가지고 있다.

선발된 사람들에 대하여 심심하고도 계통적인 배려는 당위원회앞에 제기된 중요 과업중 하나이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우리는 아직도 선발된 사람들에 대한 관료주의적이며 행정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을 볼수 있기 때문이다.

농촌 간부 선발사업에 있어서도 중앙위원회 八월총회 이후 역시 막대한 발전을 보게되었다. 우경적 편향자들은 농촌의 착취자—꾸라크를 『훌륭한 주인공』이라고 칭하였다. 이들의 우경 기회주의적 견지를 리용하면서 『훌륭한 주인공』들은 여러 지방에서 농민 상호 협조동맹의 지도부에서와 이 동맹의 면단체 그리고 면인민위원회에서 우세를 차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급당단체속에서 까지도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아내고 있었다. 혈재 농촌기관으로부터 꾸라크를 정산해내는 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불충분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농민상호협조동맹의 지방기관들에서 八、二二三명의 꾸라크와 면협동조합의 지도부에서 六、一一一명의 꾸라크들이 내쫓기었으며 그 자리에는 가장 열성적인 빈농과 중농들이 등용되었다. 『훌륭한 주인공』들이 없이는 협동조합과 농민상호협조동맹은 실패하리라는 『세심한』동무들의 예언과는 정반대로 이 단체들은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다. 빈농과 중농은 실천 속에서 이것이 자기 자신들을 위한 조직이라는것을 더욱더 확신하고 있으며 그들 적극 지지하고 있다. 지방 인민위원회에서도 꾸라크들이 청산되었다.

농촌 간부 선발에 있어서의 계급적 경각성의 부족은 여러지방에서 국유지의 련합관리자 및 지배인들의 직위에 미코라이치크가 농업장을 하고 있을때 박아놓았던 이전 지주들이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게끔 하였다. 이 소지주들에서 해독행위가 빈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놀랠바가 없다. 一九四八년에 이들의 직위에는 三一六명의 고용농이 등용되였다. 새로운 이

주인들은 사회주의적 국가소유지의 발전과 수입에 대하여 훌륭하게 배려하고 있다.

수천명의 로동자와 빈농들이 국가기관, 자치기관, 국영 및 협동조합상업의 각종 지위에 등용되었다.

전쟁전 파란의 고급학교들은 전혀 특권계급에게만 리용되고 있었다. 이것은 오늘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는바 一九四七년에 고급학교들에서 로동자의 자녀는 전체의 四%, 빈농의 자녀는 전체의 〇・二%가 교육 받고 있었다. 중학교에서의 상태도 그렇게 좋지못하였다.

인민적 인테리겐차의 창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급학교들의 재조직이 실시되었다. 중등교육 졸업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청년들을 위해서 예비강습소와 소위 『예비과』라는 것이 설치되었다. 이것은 벌써 학생들의 사회성분을 현저하게 변동시켰다. 一九四八—一九四九년도에 있어서 로동자 농민출신의 청년들이 예비 강습소에서는 八八%, 『예비과』에서는 六九%, 고급학교 제一학년에서는 四九・九%를 차지하게 되였다. 이것은 의심할바 없이 당이 성취한 중대한 성과이다. 그러나 아직도 불충분하다. 학생의 사회성분을 일층 변동시키는 것은 당의 일상적인 배려로 되는바 그 리유는 방대한 건설과업과 첨예화하여 가는 계급투쟁의 정세가 우리들에게 리론적으로 준비되고 정치적으로 능숙한 간부들을 비교할수 없으리만큼 빠른 템포로 교양시킬 것을 요구하는 가닭이다.

합동대회에서 채택된 六개년계획의 실현은 근사한 자료에 의한다면 八〇만내지 九〇만의 숙련로동자와 八만내지 一〇만명의 기술자와 약 二만四천명의 기사가 요구된다. 농업의 재건은 우리가 농촌에 수만의 농학자와 뜨락또르운전수, 농학교수 생산협동조합의 원장 및 회계원들을 줄수있는 조건밑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계획적인 문화계몽 보건사업의 발전은 우리가 七、五〇〇명의 의사, 二〇、〇〇〇명의 초등 및 중등교원 二、〇〇〇명의 고급학교 교수와 과학조수 및 一、〇〇〇명의 기타 문화부문 일꾼들을 양성할수 있을 때에라야만 실현될 것이다.

六개년 계획의 실현을 위한 투쟁은 늘어가는 과업을 완전히 수행하며 곤난을 극복하여 계급적 원쑤들의 음모를 미리 예견할줄 아는 수천의 자치기관 협동조합 및 직업동맹일군들을 정기적으로 교양해줄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당은 六개년계획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이와같이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많은 주의들을 돌리고 있다. 각종의 학습망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 작년에 전문가 강습회들과 농업일꾼 강습회들에서 약 四〇만명이 강의 받았으며 각종 형태의 학교에서 약 三一、〇〇〇명의 교원을 포함한 四七五、八〇〇명이 강의 받았다. 고급학교학생수는 전쟁전 시기에 비하여 二배나 증가하였다.

그런데 간부사업은 아직도 불충분하며 특히 간부부들이 절름뱅이 걸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업에 관한 모든 제과들이 뒤떨어져 있다. 당단체내의 간부부가 아직도 어떤 『중개사무소』역할을 하고 있는 그와같은 상태에서 어느곳에서나 다는 청산되었다고 할수 없다. 당단체들이 간부사업을 적절하게 보장하며 당간부사업에서 검열이나 지도만하는 그와같은것을 집어던지고 사업의 중심을 직접 행정 및 기타 기관으로 옮겨야만 된다는 것을 전체 당위원회들이 리해하고 있

지는 못하다。행정기관의 지도자들이 간부사업을 잘 하려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것을, 모두 다는 알고있다고 할수없다。

과거에 있어서 간부사업의 엄중한 결함으로서는 간부 배치에 있어서의 일치성의 결핍이었으며 사업일군들을 옳지못하게 리용함과 심지어는 보다 높은 봉급과 보다 좋은 로동조건등으로서 사업일군들을 호상 유혹하는 일까지 빈번하게 생기게 하였던 것이다。

또한 녀성들을 대담하게 등용함이 불충분하였다。중앙위원회의 최근총회는 녀성열성자들에 대한 사업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하여 주의를 돌리였다。

중앙위원회는 전당앞에 간부들의 교양, 등용 및 배치사업을 강화한데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특수 기술을 가진 간부들에 대한 맑쓰—레닌주의 정신에서의 정치교양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직무등록표가 작성되었고 여기에 기초하여 해당한 당위원회들이 임명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것은 당위원회들로 하여금 결정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시키게 할것이다。첨예화 하여가는 계급투쟁과 관련하여 간부들의 선택과 검열에 대한 당위원회들의 경각심은 높아졌다。후비를 만들어 둘레에 대한 대책들도 채택되었는바, 이것이 없이는 간부사업 부문에서의 어떠한 계획적 활동도 불가능한 것이다。간부부들은 지금 특히 면밀하게 사업을 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문제들과 카—드들이 정리되고 있다。

간부들의 문제는 당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중대하고도 중요한 과업들중의 하나이다。쏘련공산당(볼쉐위크)의 풍부한 경험을 리용하면서 간부들의 교육교양 및 배치에 대한 사업을 개선하여야만 간부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자각은 더욱 깊이 우리당과 우리당 각급당단체들속에 침투되고 있다。

(「견고한 평화를 위하여 인민민주주의를 위하여」一九四九년 六월十五일부)

근동 및 중동에 있어서의 영미의 모순

미국과 기타 자본주의제국가에서 심각화하여가는 경제적 위기는 근동 및 중동에 있어서의 미 영제국주의 사이의 모순을 또다시 첨예화시켰으며 판매시장과 전략적 원료의 원천을 위하여 그 세력범위와 자본수출범위를 위한 투쟁을 강화시켰다。일찌기 제一차세계대전 후에 승리한 제국주의적 약탈자들 사이에 있었던 식민지와 세력범위의 분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독점가들은 세계 석유생산지와 석유제품의 판매시장의 재분배를 위하여 영국독점을 반대하는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였다。그러나 一九二八년 이·브·쓰딸린이 지적한바와 같이 미국이 향하는 곳에는 어느곳을 막론하고 이미 강화된 영국의 지위라는 강대한 장애에 부딪치고야 마는것이였다。세계의 새로운 분배와 세계제패를 위한 투쟁은 자본주의 세계의 기본적

인 모순으로서 미 영제국주의 사이의 모순의 격화를 가져왔다。미 영제국주의의 리익의 충돌에서는 지중해 문제와 석유문제가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역할은 계속되고있다。

쓰딸린은 일찌기 一九二七년에 지적하기를 시장과 원료원천지의 재분배를 위한 투쟁의 강화는 석유문제의 첨예화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하였다。왜냐하면 석유없이는 전쟁을 할수 없으며 실지에 있어서 석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는 장래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기회를 가지게 되는 까닭이였다。

제二차세계대전시기에 특히 전쟁이 종료된후 미 영 자본사이의 가혹한 투쟁은 새로운 조건하에서 전개되었다。군사 및 정치적 관계에 있어서 약화된 영 제국주의는 이동안에 자기의 식민지를 보유할수가 없었다。조성된 형세를 리용한 미제국주의는 중동 및 근동 제국가를 포함한 전 자본주의세계에서 광범히 팽창하였고 섬멸된 독일 일본 및 이태리등의 제국주의자들의 지위뿐만 아니라 식민지 및 예속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이 팽배하게 일어나는 조건하에서 약화된 영국과 과거의 위력을 상실한 불란서의 많은 지위까지 점탈하였던 것이다。

자기의 식민지적 령토와 특권을 최종적으로 상실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영국은 부분적으로 그것을 나누지않을수 없었다。영국독점가들과 많은 협정을 체결하는 방법과 그의 식민지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후배를 「원조」한다는 기치밑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전에는 영국자본의 독점적 영향범위로 인정되었던 지방에 마음놓고 진출하게 되었던 것이다。호상 긴밀히 련결되어 있으며 억만장자 로크페르—러와 모르간의 감독하에 있는 미국의 五대석유회사는 근동과 중동의 대부분의 석유지방에서 거의 완전한 권력을 가진 주인이 되고 말았으며 이곳에서 자기의 지위를 확장하며 새로운 판매시장과 자본수출 시장들을 탈탈하고 있는 것이다。

미 영독점가들의 경제적 투쟁의 결과로 근동 및 중동에서의 석유채출 및 정련에 있어서의 미국의 비중은 해를 거듭할수록 장성하여가고 있다。一九三九년에 미국독점가들은 그의 三一%를 자기의 감독하에 두고있었는데 一九四七년에는 이곳에서 채굴되는 전채 석유의 四七%를 자기의 수중에 장악하였던것이다。이 과세해이지는 一九四八년에 이르러 한층더 증가하였다。

희랍·토이기 및 이란에 자기의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강압하면서 미국독점자본은 아라비아 동부에 있어서 영국의 정치적 영향이 매우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의 경제에 침투하며 자기의 의사대로 그들을 지시하고 있는것이다。미국인들은 차관과 경제적 침투의 방법으로서 이곳에서 상당한 지위를 전취하였으며 영국을 방위적 상태에 머물러있게하는데 성공하였다。딸라—권력은 현재 원동 및 근동에서 영국 폰드(磅)권력과 경쟁하고있는것이다。경제적 침투와 병행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은 근동과 중동에서 자기의 군사적—전략적 지위를 확장하며 이 나라들을 자기의 륙군 공군 해군기지망으로 덮어 씌워놓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영제국주의는 근동과 중동에서의 자기의 기본적 지위를 확고히 보지하고 있으며 그리 간단하게 그것을 미국에 양보하려고는 하지않는다。영국은 여전히 근동 제국가에 있는 풍부한 석유원천지의 주인이며 이 국가들의 대부분은 그의 비호하에 있는

식민지와 반식민지인것이다。영국독점가들은 이 나라들에 있는 많은 관건적(關鍵的) 지위를 자기 수중에 보존하고 있으며 미국 독점가들과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영국人들은 지중해와 근동 및 중동에 있는 자기의 전략적 기지를 강화하고 있는것이다。영제국주의자들은 근동 및 중동제국가에서 장성하는 미국의 세력을 이 나라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만 리용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그곳에서 독점적으로 주인행자할 가능성을 그들에게 주려고는 전연 생각조차 하지않는 것이다。미 영 식민지통치자들은 실지에 있어서 이 나라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할때에는 통일전선을 구성한다。그러나 미국과 영국의 리익이 충돌되는 곳에서는 자본주의라는 본태의 법칙에 의하여 문제는 강력한 제국주의 강도의 편에 유리하게 해결되는것이다。

근동과 중동에 있어서 이러한 대강도들사이의 리익의 모순은 매일같이 표현되고 있다。우선 팔레스티나 모험은 그의 명백한 실례인바 이는 군사기지와 근동 석유의 지중해에로 이르는 출로를 위한 미 영제국주의자사이의 투쟁인것이다。씨리야에서 발생한 최근의 군부 구데—타도 석유문제에 대한 영미간의 리해관계가 충돌된 결과인것이다。영국은 영국—이란 석유회사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유리한 조건을 주지않기 위하여 자우디·아라비야로부터 지중해에도 이르는 석유도관의 부설을 방해한것이다。미국인들은 씨리야의 경제에도 침투하였으며 그를 자기의 감독하에 예속시켰으며 자우디로부터 지중해에 이르는 석유도관부설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던것이다。이와같이 토이기에서 과거의 세력을 상실한후 영국은 팔레스티나의 상당한 부분과 씨리야에서 자기의 세력을 상실한것이다。

애급에서의 영 미 독점가들사이의 투쟁도 미국측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영국침략자들에 대한 애급인민들의 전통적인 증오감을 리용하는 미국인들은 이곳에서 영국의 과거의 지위를 차지하며 영국의 명예를 미국의것으로 바꾸기 위하여 자기를 아라브의 자선가인것같이 가장하고 있는 것이다。아라브제국가에 있어서의 영 미의 경쟁은 이 나라들을 두개의 그루빠로 분렬하고말았다。그 중의 하나는 미국에 의뢰하고 있는 자우디·아라비야、애급、씨리야이며 또 하나는 영국에 의뢰하고 있는 이라크와 트란스요르단이다。영국인들에 의하여 一九四五년에 창설된 아라브제국가련맹은 그들의 기대를 실현시키지 못하였으며 그들은 현재 이 련맹을 재조직하고 근동 및 중동에서 친영적(親英的) 아라브제국가를 참가시키며 친영적 회회교제국들을 인입시키는 새로운 블럭을 창설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영국은 영국의 괴뢰인 트란스요르단의 제왕 아브둘라를 수반으로 하는 아라브제국 또는 대씨리야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집요한 노력을 계속하였다。그러나 씨리야에서의 사건은 영국인들의 이 계획이 실패에 돌아갔다는것을 보여주었던 것이다。씨리야의 독재자 후스니·에즈—자임은 처음 성명하기를 아브둘라가 아라브국가연방을 지도한다는것은 얼토당토않는 이야기다。트란스요르단은 씨리야의 일개 지방에 지나지 않으며 아브둘라왕이 자망하면 후스니·에즈—자임은 그곳을 자기의 권력하에 넣겠다 라고 하였다。씨리야의 독재자는 계속하여 성명하기를 『만약 아라브왕국이나 제국이 수립된다면 그는 애급왕 파루—크가 그것을 지도할것을 찬성한다」라고 하였다。」

영 미의 투쟁과 병행하여 씨리야와 레바논에서는 최근 이 나라들에서 자기들의 상실한 지위를 회복하려는 불란서 자본의 활동이 적극화되었다。영 미 불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각방으로 은폐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근동 및 중동제인민들의 리익을 희생시키면서 이 나라들을 한층더 예속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것이다。그들은 자기들의 도발적 계획을 용이하게 실현시키기 위하여 북대서양조약의 보충으로써 지중해동맹을 결성할데 관한 협의를 맹렬히 전개하고있는것이다。

영 미식민지통치자들과 그들의 충복들은 과거의 영국의 통치와 새로운 미국의 속박을 반대하여 나서는 민주주의적 제단체의 광범한 대중과 그들의 지도자와 출판기관들을 탄압코자 흉악한 대책들을 적용하고 있다。미국상전들의 지시에 의하여 공산주의와의 투쟁이라는 기치밑에서 이 나라인민들의 민족 해방운동의 장성을 억압하는 각종 대책들이 적용되고 있다。영 미제국주의자들과 그들에게 매수된 앞잡이인 지방 반동분자들의 손은 토이기、이란、이라크、씨리야、애급 및 기타 나라들의 자기 인민들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사들의 선혈로 물들여있는 것이다。그러나 전세계인민들을 예속시키고 식민지 및 예속국가 제인민들의 해방투쟁을 탄압하려는 영 미팽창주의자들의 지향과 그의 실지적인 가능성을 동일시하여서는 안된다。자기들의 모순을 엄페하며 근동 및 중동 제국가에서의 자기들의 팽창의 실제목적들을 엄폐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갖은 수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의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도발적 계획에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을 한층더 명백히 인식하고 있는것이다。그들은 이 계획이 자기나라의 독립을 반대하는 음모라고 똑똑히 알고있으며 미국의 횡포한 팽창정책과 자기 나라의 반동적 통치자들의 반역적 정책에 대하여 완강한 반항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근동 및 중동의 제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이 이 나라들을 어떻게 많이 착취할것인가에 관하여 얼마든지 합의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리해하고 있다。그들은 긴장한 투쟁없이는 자기들의 압박자들로부터 해방될수 없으며 또 자유와 주권을 쟁취할수 없다는 결론을 한층더 확신있게 짓고있는 것이다。一九四九년 六월十一일 애급작가 살람·뭇사는 식민지통치자들의 정책을 반대하는 론문을 『알·쿠틀라』지(紙)상에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우리들은 가혹한 투쟁없이 완전한 독립을 달성하려고 희망하여서는 안된다』근동 및 중동의 제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며 그들의 지방앞잡이들을 반대하며 자기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가혹한 투쟁에서 유일하고 철저한 혁명적인 계급인 프로레타리아트주위에 단결하고 있다。

— 문 익 수 —

인도인민들의 자유와 민주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로농동맹은 중요한 기반이다

영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인도농촌에 있어서의 봉건적 압박은 조금도 경감되지않을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제국주의적 압박이 더 가해지고 있다。수백만명의 농민들을 극심한 곤궁에 빠뜨리고, 농업을 만성적 위기와 퇴화에 빠뜨리는 사회적 관계가 설정되었다。

인도의 三분지 二이상의 토지는 영국인 식민지 관리자와 그의 동맹자인 인도인 지주들의 수중에 집중되어있다, 지주의 토지소유는 현재 인도농촌에 있어서의 유력한 압박형태로 되어있는 봉건적 잔재의 주요한 기반으로 되어있다。인도농업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적 관계가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역로동 소작료 및 강제로동과 같은 착취형태들이 현재 보존되고 있으며 광범히 배양되고 있는것이다。

자본주의 착취와 자본주의이전의 착취로 인하여 인도 농민의 빈궁화는 혹심한 정도에 이르렀다。오늘날 인도농촌에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지없는 농민이나 또는 거의 토지없는 농민이다。농민의 빈곤는 특히 농업로동자수효의 련속적 증가로써 설명되는 것이다。농업로동자의 수효는 一八八一년도에 七五〇만명, 一九二一년도에는 二、一〇〇만명이던것이 一九三一년도에는 버째 三、三〇〇만명 이상으로 되었다。현재 농업로동자 및 여지없이 빈곤화된 농민수효는 더욱더 증가되고 있다。오직 현존하는 토지관계를 철저하게 청산하고 농업개혁을 수행함으로써만 인도의 농업은 그가 현재 들어가 있는 막다른 골목으로부터 나올수 있으며 인도의 농민은 빈궁을 며할수 있고 자기들의 형편을 근본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것이다。

대중적으로 토지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할수 없는 곤궁속에 신음하고 있는 수백만명의 인도농민은, 외국의 압박과 국내의 모든 반동적 력량을 반대하고 인도의 철저한 민주주의적 재건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가장 중요한 동맹자로 되고 있다。농민들은 프로레타리아트가 오직 농민과의 동맹에 있어서만 식민지혁명을 승리적으로 완수할수 있는것과 꼭 마찬가지로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밑에서만 오직 자기의 해방을 쟁취할수 있는것이다。제국주의와 결탁을 맺고 또 이에의하여 현재 정권의 일정한 부서에 들어가 있는 민족적 대부르조아지는 그 본질에 의하여 봉건주의를 반대하여 조금이라도 철저히 투쟁을 수행할수 없는 것이다。뿐만아니라 부르조아지 자신이 봉건주의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사실에 있어 인도의 봉건—지주토지소유와 자본주이전의 착취를 보존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봉건지주의 착취와 영국의 지배를 반대하는 인도 농민대중의 투쟁은 영예로운 긴 력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二차 세계전쟁 직전까지 농민운동은 대단히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었고 광범한 농민대중은 주로 민족부르죠아지의 영향밑에 있었다。그러나 당시 많은곳에서의 농민의 진출은 전투적인 혁명적 성격을 띠었고 제二차 세계전쟁전야에는 벌써 공산당이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던 많은 농민동맹이 존립하고 있었다。농민에 대한 로동계급과 공산당의 영향은 제二차세계전쟁시기와 특히 전후시기에 있어서 대단히 장성하였다。이는 전인도농민동맹에 의하여 통합되고 있는 혁명적 농민동맹의 가입층의 조직적 강화와 혁명적 단체들이 령도하는 대중적 농민운동의 장성에 표현되었다。

전후에 있어서의 인도의 농민운동은 로동계급과 공산당의 령도밑에 전개되었던 전체 민주주의 운동과 긴밀히 련결되어 있었다。이는 인도의 기본주민대중으로 되어있는 농민들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현저한 성과를 쟁취하였다는것을 증명하고 있다。그러나 인도의 몇몇 지방에 있어서의 농민운동이 아주 높은 발전수준에 이르렀다 할찌라도 더욱더 커다란 불균형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는것이다。농민소동은 아직 전인도를 휩쓸지않고 있다。이 운동의 내용과 형태는 아주 다종다양한 것이다。동부 및 북부벤가르와 오리쓰(힌두스탄)의 약간지방에서는 소작 농민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소작료의 감하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특히 전쟁이 끝난 직후에 이 운동은 커다란 규모와 전투적 성격을 띠게 되였다。벤가르에서는 주(州)내의 二〇개구지방의 농민들이 수확의 절반을 지주에게 지부하는것을 그만두고 그들에게 다만 수확의 三분의一만을 지불하게 되었다。이 운동은 사실에 있어서 벌써 약三년간이나 비하르(힌두스탄)、이티쓰(힌두스탄)、서부판잡브(파키스탄) 및 서북주(州)(파키스탄)의 많은 지방에서 계속되고 있다。

지주가 소작지로부터 추방하는것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은 확대되고 있다。농민들은 항상 자기들이 소작하는 토지를 내놓기를 거부하고 자기자신들이 수속을 하여 계속 경작하고 있다。

최근 수년동안의 흉작과 기아때문에 농민의 형편이 특히 악화된 마드랏쓰주(州)(힌두스탄)에서는 농민운동이 첨예화되었다。이 주에서는 농민운동을 령도하는 혁명적 농민동맹의 뒤를 농촌뿐만 아니라 전 지방에 파급되고 있다。이곳에서 농민운동은 주로 지주와一부기업자들에게서 곡물을 공동적으로 수탈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농민동맹들에서는 이 곡물을 조직적으로 농민과 로동자들 사이에 분배하고 있다。수의 어떤 지방에서는 농민 빨찌산부대들이 활동하고 있다。인도의 여러 주에서의 이러한 모든 농민의 대중적 진출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농민동맹에 의하여 령도되고 있다。

농업로동자들이 더욱 많은 적극성을 발휘하고 있다。례컨대 비하르에서는 그들이 농민운동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힌두스탄이나 파키스탄에서의 농민투쟁의 과정에 있어서 지주토지의 무상몰수와 농민에게로의 양도에 관한 요구가 더욱 자주 제기되기시작하고 있다。벤가르와 마드란스크주(州)에서도 농민이 이를 요구하고 있다。이러한 요구는 광범한 인도농민층에서 더욱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다。이는 로동계급과 그의 당의 장성한 세력과 로동계급 및 농민의 견고한 동맹에 관하여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

농민의 정치적 열성의 장성에 관하

여서는 공산당에 대한 네루―파렘의 국민회의과 정부의 맹렬한 박해와 공산당원 및 기타 민주주의 운동자들의 대중적 검거를 반대하는 항의의 표식으로써 전국에서 진행되었던 수많은 농민군중대회와 시위운동을 례증할수 있다。

농민운동은 전후시기에 있어서 하이다라바드왕국(王國)의 일부분인 체렌간지역에서 가장 치렬하였다。이곳에서는 무력봉기와 농업혁명의 정격을 띠었었다。이 때문에 왕국의 六분의 一의 지역에서 하이다라바드왕(王) 및 지주들의 주권이 전복되고 체렌간의 二、五○○개소의 농촌에서는 지주의 토지가 농민들과 농업로동자들에게 분배되었다。그리고 지주와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농민의 부채가 폐지되었으며 선거에 의한 인민기관과 재판소가 창건되었고 민경대(民警隊)가 조직되었다。

인도의 네루―파렘정부는 전제(專制)와 봉건적 착취를 반대하는 투쟁에 궐기한 농민을 탄압하기 위하여 토벌대를 파견하였다。그러나 야수적 탄압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토벌대들은 타라간 농민들의 전투적 정신을 무찌르고 그의 영웅적 운동을 탄압할수 없었다。농민들은 철재없이 계속하여 빨찌산투쟁에 흘러들어 가고 있으며 린접지방 특히 마드랏쓰주에까지 넘어가고있다。

공산당이 령도하는 체레간농민의 투쟁은 힌두스탄과 파키스탄에서의 민주주의운동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것이다。이는 투쟁과정에 있어서 실지로 설정되고 있는 로동계급의 지도적 역활밑에서의 로동계급과 농민의 동맹에 대한 명백한 표현이다。그는 본질에 있어서 인도의 약간 지역에 인민민주주의를 창건하려는 첫시도이다。체레간의 투쟁은 인도의 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농업혁명에 대한 예언으로 된다。

인도의 다른지방 농민들도 여러가지 정도에 있어서 체레간의 폐를 따라가기 시작하였다。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현재 중앙 및 기타 주의 많은 농업지방에서는 더욱 자주 지주의 압박을 반대하는 지방농민의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인도의 로동계급과 공산당은 농민운동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투쟁하면서 반동적인 칸디―주의를 철저하게 폭로하고 있다。인도의 반동들은 칸디―주의로써 농민대중의 적극적 투쟁을 억압하고 그들사이에 국민회의의 부르죠아적 지도의 영향을 보존하려고 애쓰고 있다。반동적인 칸디―의 두저항주의의 선도자는 국민회의가 창건한 전인도농민협의회인바이 단체는 약간주에 자기들의 지방단체를 가지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하등의 조그마한 농업개혁도 실시하지 않으려는 힌두스탄의 국민회의 정부나 회교련맹 정부의 반동적 정책을 통하여 광범한 농민대중들은 국민회의 회교련맹 및 그와 비슷한 단체들에게 가지고 있던 환상을 깨뜨리고야 말았다。

광범한 농민대중들은 로동계급과 공산당의 주위에 굳게 뭉쳐져 있다。공산당은 최근의 대회에서 지주의 토지소유를 청산하고 이를 밭갈이하는 사람에게 넘겨주기 위한 투쟁을 힌두스탄과 파키스탄에서의 인민해방운동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도 내세웠다。이렇듯 농업혁명에 관한 문제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함께 오늘날 민족해방운동의 추축으로 되어있다。이는 도리어 제국주의와 및 그와 협정을 하여 인도의 반동력당뿔럭의 주동적 력량으로된 인도의 대부르죠아지를 반대하는 투쟁을 첨예화시키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인도에 있어서의 제사건은 식민지 혁명이 오직 반(反)봉건적 농업혁명으로 흘러나옴으로써 승리할수 있다는 레닌―쓰딸린적 명제를 완전히 증명하고 있다。

최 천 일

一九四九년八월二十五일 인쇄
一九四九년八월三十一일 발행
『근로자』 제十六호
【정가 三〇원】

책임주필 기 석 복
편 집 인 김 정 용
인 쇄 인 오 기 익
평양특별시문수리三〇〇번지
발 행 소 로 동 신 문 사
인 쇄 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근로자』 편집국 전화 국장실 二二五 七六번
편집실 三八〇一—五번

제ㄱ—13883